우리 집에 머문 마음

찾아가는
가족사진



ori

찾아가는 가족사진

우리집에 머문마음

유승연 사진 인터뷰집

우리가 만든 가족의 다른 이름들
사랑과 돌봄의 기록

Prologue : 가족을 찾아서

유승연

사진가, 영화감독. <찾아가는
가족사진> 기획, 촬영, 인터뷰.

우리 집에는 오래된 가족사진이 하나 있다. 암청색 배경 앞에 부모와 아들 딸이 앉아 있는, 흔히 한국에서 찍는 그 오래된 형식의 가족사진. 열 살의 나는 체크 원피스를 입고, 웃음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사진은 이사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늘 집 한구석을 차지했다. 두꺼운 고딕 양식의 액자 안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굳어 갔다. 아무도 그 사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다시 찍자는 이야기도 없이 집 안에 남겨진 하나의 침묵처럼 걸려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을 그 침묵과 함께 자랐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진 속 어린 내가 할 말이 있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할 일 있지 않아?” 라는 표정으로.

한국에서 가족은 여전히 너무나도 좁은 말이다. 혈연과 혼인으로만 설명되는 세계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분노가 함께하는 일이었다. 내 자신을 설명하거나 숨겨야 했던 오랜 시간을 지나, 나는 비로소 퀴어 예술가이자 기록자로서 단단히 설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는 내가 보고 싶은 세계를 비추고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였다. 나는 그 카메라를 아낌없이 나와 비슷한 이들을 향해 꺼내 들기로 했다. 제도 밖에서 자신만의 가족과 돌봄을 만들어가는 이들. 어떤 이는 그 가족들을 ‘엽기 인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분노의 감정을 응원으로 바꾸어 쥐고, 기록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믿음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족들의 집을 찾아갔다. 때로는 기차를, 때로는 비행기를 타며. 나는 집으로 향하는 감각을 다시 익혀갔다.

그렇게 한겨울부터 초여름까지 여덟 가족을 촬영했다. 서울에서, 안동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낯설지 않은 집들이었다. 처음 만난 사진가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시간과 간식을 내어주던 가족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잠시 굳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면 금세 웃음이 피어났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존재했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선명하게 함께 있었다. 그 이야기들의 기꺼운 증인이 되었다.

이 가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본 경험은 결국 나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남겨주었다. 거창한 답이라기보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장면 같은 것들이다. 카메라를 다룰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간을 건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때때로 믿기 어려울 만큼 큰 행운처럼 느껴졌다. 이상한 포즈를 요구해도, 무엇이든 사소하게 물어도 즐겁게 답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냐고 말하면 결국 사진일 것이다. 하지만 더 오래 남는 것은 서로를 가족이라 불렀던 시간들, 사진을 보며 웃음이 터지던 순간들,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던 정들이다. 그래서 솔이와 가족들의 집을 찾아다녔던 이 계절들은 어떤 여행보다도 더 깊게 나의 안쪽에 남아 있다.

결국 사진 한 장 한 장은 그곳에서 보내는 엽서가 된다. 이 엽서 속의 가족들, 그리고 이 엽서를 받을 가족들까지, 각자가 집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

Seungyeon You

유승연

기록을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부르며 영화·영상·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람과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캐나다 벤쿠버 필름스쿨을 졸업하고 영화 <낙서>, <할리보다 좋은>, <유언비어>, <다음 중 올바른 답을 고르시오>를 연출했다.

unicpicnic@naver.com

@unicpicnic









동화, 동구, 동순 가족

“ 가족이 좀 비효율적이어도 되지 않나요?”





나연과 성주 가족

"우리가 서로 같아지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 수 있을까?"





에큐펨 : 유랑,꼬꼬,풀 가족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족이 되자!"



여름과 다현 가족

포실이와 로다

"같이 살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안정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장미와 나은 가족

포리, 유자, 표고, 타리

"가족은 기세다."





민희와 이현 가족

"느슨하지만 언제든 비빌 수 있는
언덕 같은 관계를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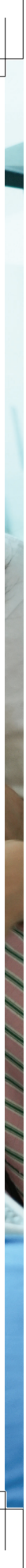


예지와 다정 가족

그리고 웬디

"사랑은 원래 지긋지긋 한 거야."





진아와 아현 가족

론과 코히

"우리는 기꺼이 싸바싸바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

목차

028 동화 희희(囍), 기쁨이 넘치는 집

052 나연과 성주 슬픈 날에도 우리는 케이크를 먹자

092 에큐펨 모여라! 퀴어 가족들아!

120 여름과 다현 망신살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지

152 장미와 나은 가족은 기세다

186 민희와 이현 캐나다라는 모자이크 안에서 가족을 조립하기

216 예지와 다정 사랑은 원래 지긋지긋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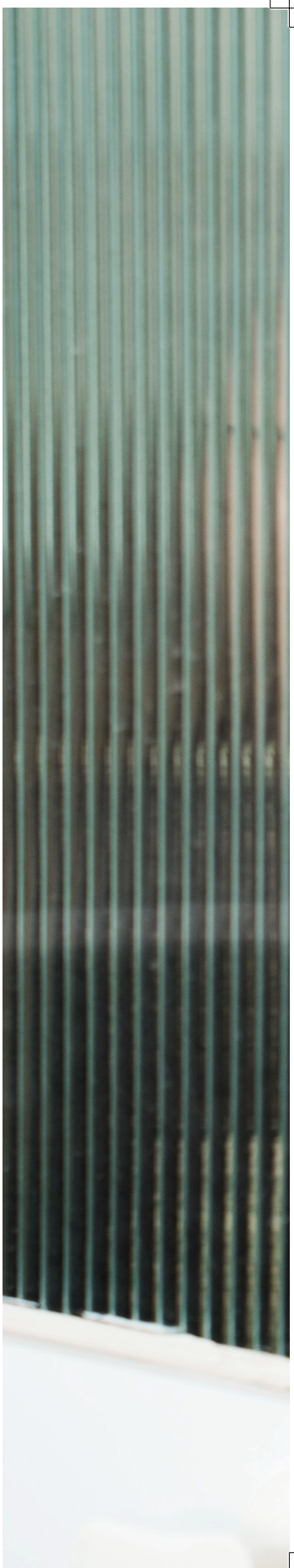
246 진아와 아현 레즈비언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스근하게' 행복해지는 법

동화

희희(囍囍), 기쁨이 넘치는 집

<찾아가는 가족 사진>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배워온 정상 규범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조금 비켜 서서,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집에서 이야기를 듣는 작업이다. 혈연, 결혼, 출산이라는 단일한 경로가 아니라 시간, 돌봄, 책임, 선택으로 엮인 가족의 얼굴을 기록하고 싶었다. 이 작업에서 집은 배경을 넘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해왔는지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장소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동화가 있다. 동화는 안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로 가는 것"을 하나의 서사처럼 말하지만, 동화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서울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람.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 삶의 형태를 또렷하게 만들어간 사람이다.




COMMAX
安東東和


JANOME




W400 D300
D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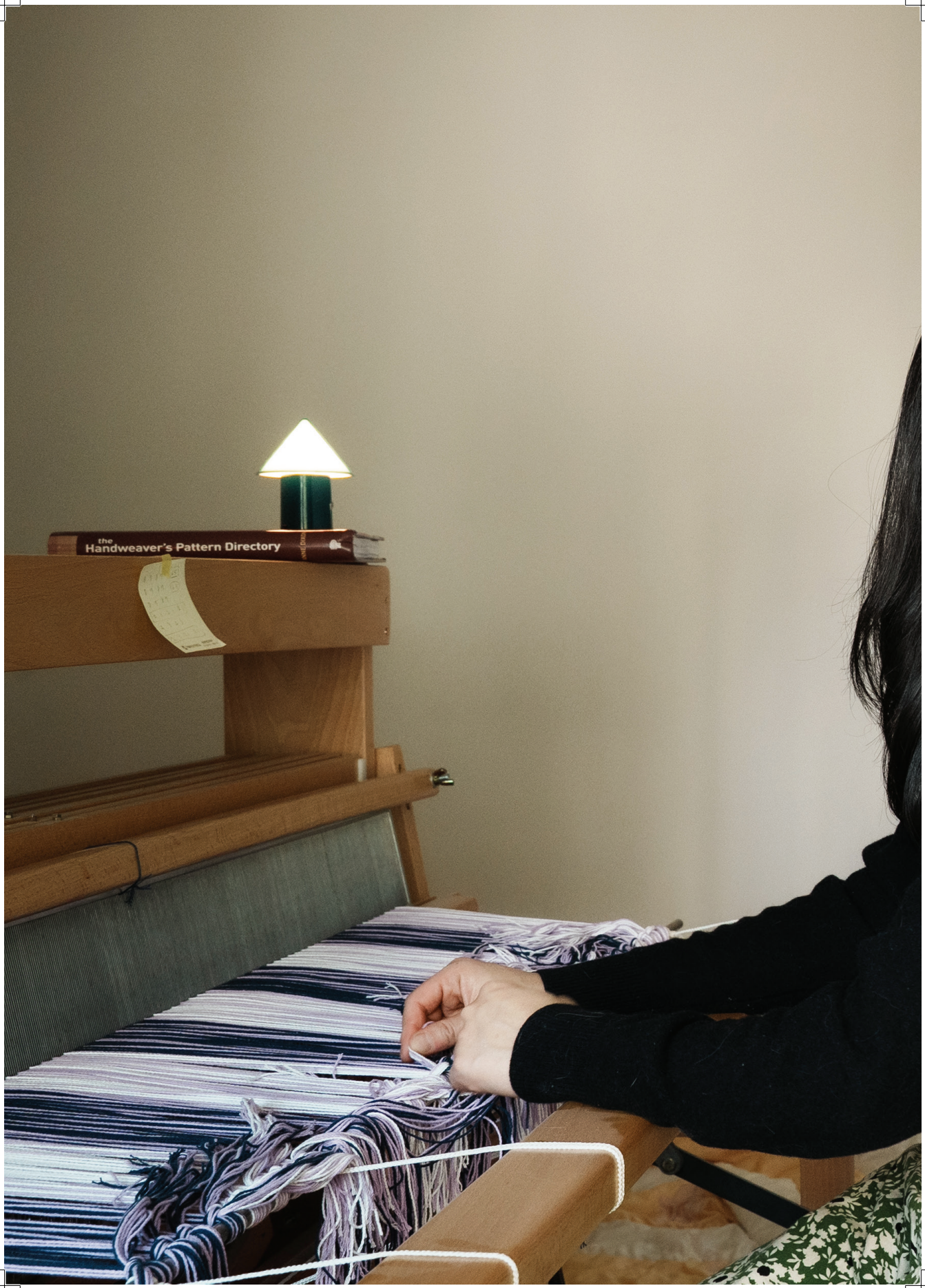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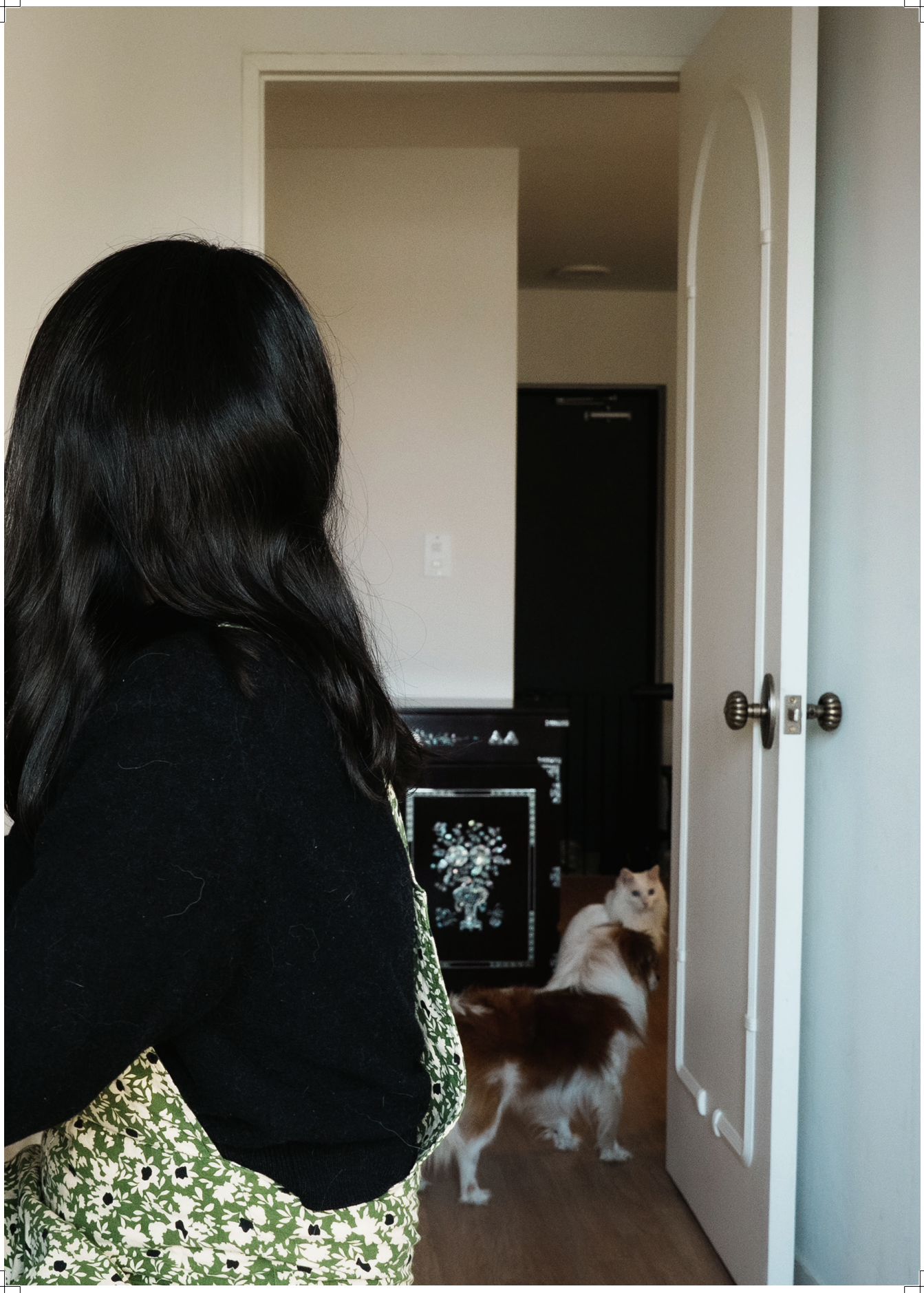









the
Handweaver's Pattern Directory







집은 생명체다

동화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집은 생명체에 가깝다. 쓰이지 않으면 금세 죽고, 방치되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붙박이장이 없다. 문을 닫는 순간 물건이 사라지는 구조를 그는 견디지 못한다. 좋은 것은 보여야 하고, 손이 닿아야 하며, 쓰이며 늙어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집 안에는 그만의 규칙이 있다. 이 물건은 여기 있어야 편하고, 저 물건은 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몸이 먼저 아는 규칙들. 그는 그 규칙을 찾기 위해 오랜시간 동안 집을 움직이며 살았다. 테이블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놓아보고, 구조를 바꿔보고, 무엇을 어디에 달아볼지 끊임없이 실험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왔다. 그제야 집이 안정되었다는 걸 알았다.

이 집의 중심에는 베틀이 있다. 원시 사회에서 집의 중심이 불이었다면, 지금 이 집의 중심은 손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노동의 과정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공간. 구조적으로는 비효율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집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가 분명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고양이 동순이와 강아지 동구도 있다. 그들은 가구의 배치와 동선, 하루의 리듬을 함께 결정하는 존재들이다. 어느 자리가 편한지, 어떤 소리가 불안한지, 언제 집이 쉬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존재. 동화는 가족을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보다는 다채로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확장된 형태를 꿈꿨다.

동화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한 과정은 계획이라기보다는, 그가 말하듯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어느 겨울날, 공방 근처에서 살던 고양이가 잡혔다. 말 그대로였다. 영하 19도의 밤, 참치캔을 흔들며 따라오던 고양이는 어느새 공방 문 앞까지 와 있었고, 그는 문을 열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고양이는 동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날 동화는 동순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기보다, 얼어 죽지 않게 두겠다는 최소한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최소한의 선택은 곧 책임이 되었고, 책임은 다시 생활을 바꾸었다.

고양이가 들어오자 집은 다시 움직이기 시



작했다. 물건의 위치가 달라졌고, 동선이 바뀌었으며, 문단속은 더 세심해졌다. 그는 이미 한 번 안정되었다고 믿었던 집을 다시 흔들어 보았다.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까지 뒤엎지 않아도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안다. 그때 자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다시 일렁이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를 들이는 일은 늘 집뿐 아니라 마음의 구조까지 함께 바꾸는 일이니까.

강아지를 처음 만난 곳은 테니스를 치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몇몇 남성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졌다.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설명하고 가르치려 드는 말들이 공기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실력보다 성별이 먼저 호명되고, 누가 이끌고 누가 보조해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종종 자신의 몸과 감각이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곤 했다.

바로 그 공간에서 떠돌이 강아지를 마주했을 때,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에게는 이런 세계 말고 조금 다른 삶을 건네고 싶다고. 더 크게 말하는 쪽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각자의 속도와 위치가 존중되는,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유기동물이라는 이유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쉽게 무시되고 함부로 다뤄지는 장면들은 그가 느껴왔던 성별 위계의 감각과도 닮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강아지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로. '동구'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그 선택 이후, 그곳에서 강아지는 더 이상 함부로 불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으로 호명되는 순간부터였다.

그렇게 동화, 동순이, 동구 가족이 완성되었다. 동화에게 동구와 동순이는 일방적인 보호와 위로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신의 삶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 존재들이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 집과 시간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지, 그 질문들 앞에서 동화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그 비효율 속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맞는 삶의 형태를 찾아갔다.









지방에서 자란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

동화는 대가족 속에서 자랐다. 늘 집에 사람이 있었고, 혼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독립은 로망이었지만, 실제의 서울은 그에게 쉼이 아니라 긴장이었다.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해야 잠들 수 있는 밤들. 혼자 사는 자유보다,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반대로 안동의 집에 돌아오면 그는 깊은 잠을 잤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회복되는 감각.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말한다. 자신은 혼자 잘 사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비로소 숨이 편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서울에 살면서 매주 주말 안동에 내려갔다. 가장 빨리 내려가서 가장 늦게 올라오는 방법을 연구했다. 회사가 있는 양재에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까지 30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안동까지 3시간 30분. 금요일 퇴근 시간과 월요일 출근 시간에 맞춘 서울-안동 버스 시간표. 그렇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그는 끊임없이 서울과 안동을 오갔다.

부모님은 그가 내려오면 말없이 산으로, 바다로, 드라이브를 시켜주었다. 그들만의 환기를 시켜줄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이의 얼굴을 푸는 법을 아는 사람들처럼.

동화의 가족 이야기는 더 넓게 뻗어 있다. 그의 가족은 한센병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했던 시대의 흔적 속에서, 가족은 자연스럽게 아주 큰 형태가 되었다.

부모만이 아니라 조부모, 고모, 작은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키웠다. 운동회에는 늘 어른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도시락은 항상 남았다. 그리고 여전히 관계를 이어오며 김장 때는 김장 400포기를 하는 활력이 넘치는 큰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조카들을 보며, 그리고 조카들을 아끼는 자신을 보며 문득 깨닫는다. 아, 나도 이렇게 컸구나. 돌봄이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었던 세계. 그 감각은 지금도 그의 삶 깊숙한 곳에 남아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동화도 제때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다. 물질적 안정과 효율을 따지던 관계들은 생각처럼 완전하지 못했다. 관계들이 정리될 때마다 질문이 남았다. 이것은 나의 실패였을까.

지금의 동화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 안에서 주변의 존재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책임지는 일이라고. 개와 고양이, 가족,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들이 편해지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삶의 리듬을 조정하는 것. 동화에게 사랑은 늘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는 그 비효율을 기꺼이 감당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동화가 지금의 삶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이전, 원가족 안에서 이미 경험한 감각에 가깝다. 돌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았고,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책임을 나누었으며, 아무 말 없이도 회복될 수 있었던 집. 동화는 그 사랑의 형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랑의 구조를 자신의 삶 안에서 다시 실천하고 있다. 집 안의 규칙들, 비효율을 감수하는 태도, 누군가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 자신의 리듬을 조정하는 방식은 모두 그 기억에서 비롯된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그 구조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고, 지금의 집은 그 사랑이 반복되고 유지되는 장소다.





우리는 종종 서울만이 '사는 곳'이고 지방은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화의 삶은 그 생각에 조용히 균열을 낸다.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자기만의 집과 가족의 형태를 만든 사람. 동화는 어떤 영웅적인 결단을 내린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기에게 맞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안정적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 집에 들어서면 알게 된다. 집도, 가족도, 사랑도 모두 생명체처럼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집 안 곳곳에는 '희희(囍)'라고 적힌 바구니가 있다. 동화가 직접 만든 것이다 '희'는 북을 치고, 입으로 노래하며 기뻐하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한다. 기쁨은 혼자서 성립되지 않고, 소리와 몸짓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같은 글자가 두 번 겹쳐진 '희희'는 겹경사를 뜻한다.

그런데 이 집에서 그 글자는 조금 다르게 들린다. 설명보다는 웃음에 가깝다. 희희, 하고 새어 나오는 소리. 동구가 곤히 잠자며 내는 숨소리, 동순이가 간식 뚜껑을 열라고 보채는 소리, 동화가 설거지하는 물소리, 기도를 하다가 우는 소리, 손작업을 하며 앓는 소리. 동화의 집에는 그런 웃음같은 소리들이 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을 쓰는 존재들이 서로의 기쁨을 겹쳐 놓으며 살아가는 방식.

그는 가족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알고 있던 사랑의 구조를, 자신의 삶 안에서 다시 배치해 놓았을 뿐이다. 기쁨이 겹쳐 경사가 되듯, 동화의 가족은 그렇게 존재한다.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서로의 빛을 겹치며 살아가는 형태로. (동화 2025.12.10)


安東



나연과 성주

슬픈 날에도 우리는 케이크를 먹자

좋은 동거라는 것은 무엇일까.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제각각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집에서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일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가족들은 그런 연습에 서툴다. 서운한 게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은 잔소리로 덮거나 참고 넘어간다. 그러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고, 또 모른 척 살아간다. 정말 가족과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나 싶어진다.

각자의 방을 떠나 유목민처럼 서울의 여러 집을 전전하거나, 긴 기숙사 생활로 '집 아닌 집'에 익숙했던 두 사람이 만났다. 나연과 성주, 서로에게 조용히 곁을 내어줄 수 있음을 직감한 이들이 '동거'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서로의 침묵을 편안하게 여기고, 함께라면 막막한 서울에서의 삶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시작된 동거. 이들의 일상은 노션에 꼼꼼히 기록된 규칙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점차 견고한 형태를 갖춰간다. '우리는 다르다'는 말이 서운함이 아닌 이해의 시작이 되고, 지친 마음을 뉘일 수 있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집. 각자의 삶을 꾸려가면서도 서로의 세계가 지워지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일, 두 사람은 그것을 '돌봄'이라 부른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두 여성이 리듬을 맞추며 만들어지는 동거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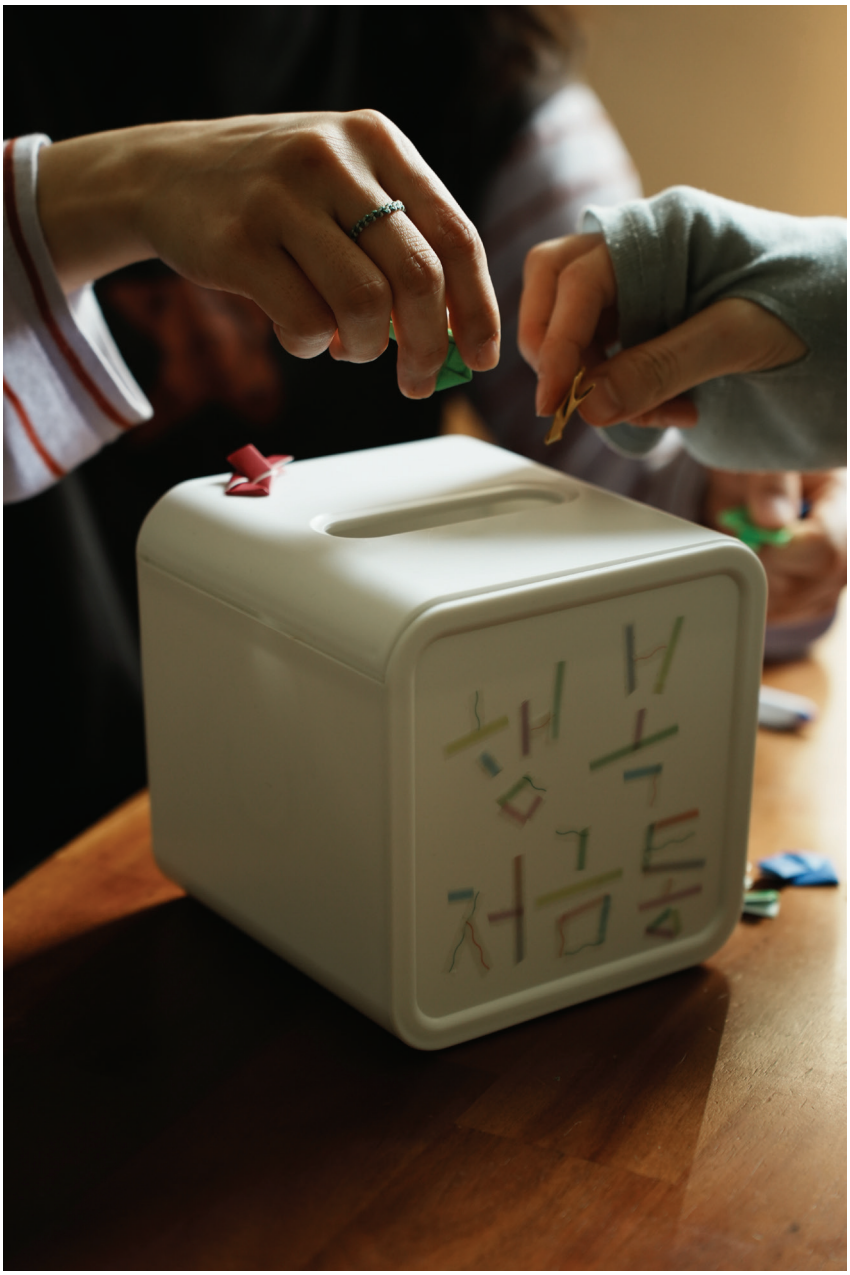

















CHALLENGERS
CLAUDE MONET






난 멋져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로.
진짜 멋집니다.
진짜 멋져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
정말 멋져요 난.
Youth Spirit
승현관
부엌 앞






SOULMATE
Making Diary
낭만적 우정과 무가치한 연애들


토끼의
간에는












현대 컴퓨터 크리닝
303-7414
"친 환경 세탁
직수입 기름"
을 사용합니다
※ 냄새가 없고
※ 옷이 가볍
※ 옷감이 상하
※ 윤기가
크 리
닝
류·모피·카페트
LG
DUAL Inverter


31 새터산 14 길 35
Saetteosan 14-gil



승연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 부탁드려요.

나연 저희는 동거 6개월 차 권나연.

성주 내 이름은 내가 말할게. 저희는, 안녕하세요.

나연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거 6개월 차 권나연.

성주 김성주입니다.

승연 아, 인트로부터 너무 웃겨요. 두 분 동거하신 지 6개월 차라고요? 진짜요? 왜 자꾸 알면서도 새삼 놀라게 되지. 여러분 사는 모습 보면 한 6년은 같이 산 사람들 같거든요. 동거하시기 전에는 각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주 저는 계속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대학 생활 내내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집 아닌 집 같은 공간에서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나연 저는 본가에 살았는데, 계속 집을 나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돈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집 있는 친구들이 여행 갈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친구 없는 동안 그 집에서 몇 개월씩 살고, 또 다른 집 가고. 그런 식으로 좀 유목민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승연 그러면 그렇게 유목민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는 좀 정착해야겠다' 싶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나연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방이 두 개뿐이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군대 가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제 방 하나 엄마 아빠 방 하나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제대하면 다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방도 없네? 난 이런 데서 못 사는데… 싶어가지고 독립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성주 저는 본가가 광주에 있고 계속 광주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과연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았어요. 워낙 집값도 비싸고, 집 구하는 것도 사실 넉넉치 않았고. 혼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연이랑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 구해보자" 했죠. 둘이 있으면 월세 부담도 덜하겠다 싶고, 서울 사는 것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거의 바로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승연 두 분이 대학 동기였는데 원래 친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나연 엄청 친한 건 아니었고, 그냥 서로 겹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같이 창업 동아리도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약간 일로 만나는 사이였죠.

성주 그래서 막 단둘이 만나서 오래 얘기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색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대화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준다는 걸 아니까 편한 거예요. 서로한테 좀 편한 사람이다… 약간 그 정도 감만 있었던 상태였어요.

나연 저희 둘의 공통점이, 둘 다 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에서는 리스너 역할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둘이 만나면 리스너와 토커의 균형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대는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정도 좀 자연스럽고 빠르게 내려졌던 것 같아요. '얘라면 괜찮겠다' 싶었던 거죠.

성주 또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조용함을 견딜 수 있느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서로 그걸 되게 잘 지켜주는 편인 것 같아요. 각자 새로운 걸 추구하는 성향도 좀 비슷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승연 오늘 집 보면서 재밌었던 게, 사실 각방도 가능한 구조인데 같은 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나연 저는 동거의 로망이 삭막하게 각자 사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같이 얽혀 붙어 있고 싶다? 그런 게 있었고요. 둘 다 작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작업실은 따로 있으면 좋겠다, 생활이랑은 좀 분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주 맞아요. 자는 거랑 일하는 거를 분리하고 싶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는 공간은 아예 하나로 합쳐버린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승연 근데 또 가끔은 혼자 자고 싶을 때도 있고, 눈치 안 보고 방구도 끼고 싶고 그렇잖아요.

성주 기숙사 생활을 워낙 오래 했어서, 딱히 그런 데 대한 불편함은 없는 편이었어요. 선생님은요?

나연 저도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낯선 집이라는 게 솔직히 좀 외롭기도 하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말하다가 그대로 잠들고… 그래서 덜 무섭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성주 누가 같이 있으니까 괜히 더 "잘 자" 하고 챙기게 되고, 생활 리듬도 좀 맞춰지더라고요.

나연 그게 좋더라고요. 딱 씻고 소등하고 나면, 저도 괜히 늦게까지 안 자게 되고 같이 자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정해지잖아요. 눈도 같이 뜨게 되고. 그렇게 서로의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성주 그래서 괜히 피해 안 주려고 제 시간도 좀 빨리빨리 조절하게 되고요.

승연 보통 친구끼리 하는 룸메이트 생활이나 동거라고 하면, 각방 쓰고 집안일 분담하다가 싸우고, 결국 누가 나가고…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근데 두 분은 계속 서로 맞춰가면서 가장 좋은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집을 구하고 동거를 시작하시면서, 집과 관련된 여러 아이디어나 결정들을 전부 노션에 정리하셨었다면서요?

나연 이거 노션을 보여드릴까요? 저희는 집 구하면서 계약이나 논의된 내용들을 전부 노션에 같이 정리해두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방식을 좀 낯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냐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는 집 자체를 약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집 장점도 같이 찾아보고, 처음 집 사진 같은 것도 정리하고, 해야 할 일들도 계속 적어두고요.
심지어 집 이름도 같이 정해봤어요. 그게 너무 웃기고 재밌었거든요. 집 후보 같은 것도 막 정해보고, 가구는 뭐 살지, 계약은 어떻게 나눌지, 나중에 혹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할지도 같이 얘기하고요.
제가 원래 노션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제가 먼저 하자고 했고, 이 친구는 흔쾌히 좋다고 해줘서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성주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걸 결정하고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연 둘 다 그런 방식을 선호했어요. 그때 되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쌓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집 사용 규칙이나 동거하면서의 로망 같은 것도 같이 정리해서 정해보고. 저희도 처음 집 보러 갔을 때 집주인분이 "친구랑 살면 금방 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규칙 같은 걸 좀 더 확실하게 정해두기도 했고, "2년은 최소한 같이 채워보자"는 약속 같은 것도 있었어요. 중간에 갑자기 "너랑 못 살겠어" 하고 나갈 성격의 위인들은 되지 않을 걸 아니까. 그래서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부딪히면서 조정해가야 하는 관계라는 걸 전제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칙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규칙이 있어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승연 그 점은 진짜 서로 닮으신 것 같네요.

성주 저도 완전히 그 틀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연 아예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

성주 그리고 거기서 괜히 감정의 영역까지 섞이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거나 감정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해야 하는 것들이랑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분리해두는 게 더 좋으니까.

나연 제 혈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칙 같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부딪히는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라는 방식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관계가 쉽게 무너지는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건 조정해보자"처럼 싸움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승연 그러니까요. 사실 가족 회의 같은 걸 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가 구조화된 한국의 혈연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좀 어색하잖아요. 실제 같이 살면서는 어떠셨어요?

성주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들어 "우리 진짜 다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나름대로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이것도 같네, 저것도 같네" 하면서, 공통점이 많으니까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 살수록 오히려 다른 점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틀렸다"거나 "고쳐 달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같이 맞춰갈까", "어디까지 합의할까"를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거에서 중요한 게, 물론 처음에는 공통점 때문에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같이 살게 되면 서로의 다른 점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로 "와, 우리 진짜 다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같다"는 말이랑 "우리는 다르다"는 말이 결국 비슷한 뜻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승연 사실 "우린 다르다"는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서로를 이해해보려는 말처럼 느껴져요.

나연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서로의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이 다름을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가 되게 어렵기도 했어요. 조금씩 거슬리는 게 생기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은 합의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주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엄청 서론을 길게 깔고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성주가 그걸 되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줬어요. 자연스럽게 중간 지점을 같이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성주야,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건 우리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같은 말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승연 맞아요.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게 약간 다시 한 번 양육을 하고 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관계 안에서 스스로 계속 변화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분은 서로 어떤 점이 제일 다르셨어요?

나연 제가 느끼기에는 둘 다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민한 포인트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집 안의 되게 사소한 것들을 잘 보는 편이에요. 먼지나 물기 같은 게 눈에 들어오면 계속 신경 쓰이고, 바로 치우고 싶어 하거든요. 반면에 이 친구는 큰 소리나 쿵쿵거리는 소리 같은, 조금 더 감각적으로 큰 자극에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것들에 예민한 사람이고, 이 친구는 좀 더 큰 자극에 예민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성주 저는 제일 크게 느꼈던 게, 관계에 쓰는 에너

지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지치고,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워낙 늘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약간, 감정의 여유가 남들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연이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반면에 저는 조금 더 안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나연이는 나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싶었고, 동시에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연 그래서 성주랑 한참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으로 길게 대화를 나눴던 것도 결국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쓰는 에너지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라는 이야기.

성주 맞아.

나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빠지면서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주랑 나누던 일상적인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든 거죠. 원래는 같이 눈 뜨고 같이 잠드는 생활이 일상이었는데, 제가 늦게 들어오면 같이 못 자는 날도 생기고 생활 리듬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주는 같이 사는 사람에게 자기 에너지를 많이 맞추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저는 밖에서 이것저것 다 하고 돌아와도, 집에 와서 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쓰는 에너지의 방향 자체가 좀 달랐던 거죠.

성주 그러니까 상황이 이랬어요. 그때 나연이가 저한테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나연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뭔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성주 근데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아, 나는 바뀐 상황에 맞춰서 이 관계에 접근하는 거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연이는 계속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말해달라"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정리해보면, 9월에 이사하고 10월에 집 정리하고 적응하면서 계속 둘이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에너지를 거의 나연이한테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에너지를 여러 방향으로 쓰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게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연이도 밖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들어오는 날들이 생기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관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제 에너지를 다른 곳에도 나눠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연이한테 쓰는 에너지도 초반의 100% 같은 느낌보다는 한 20% 정도의 밀도로 바뀐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나연이 입장에서는 집에서 느껴지는 제 모습이 거의 전부다 보니까, 그 변화가 훨씬 크게 체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앞으로는 예전처럼 너한테만 100%를 쓰기보다는, 한 20% 정도의 에너지로 더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식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나연 그런데 저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달랐어요. 성주는 변화에 적응했다고 하지만, 집에서 봤던 성주는 그동안 저한테 더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텐션도 그렇고 더 활발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내가 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오히려 저에 대한 태도가 조금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그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과정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냥 결론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생각에 도달했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근데 성주는 "그냥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저는 오히려 "아니, 그 과정을 말해줘. 나는 그걸 알고 싶다" 이런 쪽이었어요.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돌봄의 방식이나 관계 맺는 방식이 되게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좀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아, 성주한테는 기대치를 낮추는 게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고요. 동시에 그걸 어떻게 맞춰갈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조정해 나갔던 것 같아요.

승연 이 얘기 들으니까 단순히 "서운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되게 선명하게 느껴져요. 돌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원래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나연 저는 돌봄이라는 게 되게 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도 서로 챙겨주고, 아픈 것도 같이 나누고, 그런 것까지 전부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거의 모든 관계를 돌봄으로 이해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돌봄은 좀 다르더라고요. 돌봄은 엄마랑 자식 사이의 관계 같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성주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건 그냥 돌봄이라기보다는, 예의나 배려의 차원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나연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관계가 예의를 차리는 관계라고?" 하고 좀 놀랐죠.

승연 이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한데요. 그때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경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나연 저희가 돌봄에 대한 얇은 책을 같이 나눠 읽고, 소감도 공유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죠? 돌봄에 대해서?

성주 돌봄이라는 건 저는 삶에 깊이 관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일대일로 밀착돼 있고, 그 안에서 계속 뭔가가 생겨나고, 삶이 서로 엉켜 있는 상태 같은 거요.
근데 나연이랑 계속 같이 살면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이 살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밥을 챙겨준다는 것들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물론 돌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연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돌봄이라는 개념을 계속 가져오더라고요. 가족처럼 깊게 엮인 관계가 아닌데도, 거기서도 돌봄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것도 돌봄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돌봄이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 이동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나연 그러니까 다정함이 그냥 이렇게 뻗어 나가는 느낌의 돌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생각했던 예의나 배려는 문 잡아준다거나, 뭐 챙겨준다거나 이런 정도였다면, 돌봄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애정을 계속 쏟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음… 뭐라고 해야 할까.

승연 나연 님은 또 나름대로의 돌봄 정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나연 제가 카톡방에 10명 정도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졸업하고 남은 친구들끼리 있는 방인데, 정말 틈틈이 가끔 아침에 눈 뜨거나 어느 순간에 누가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하고 운을 띄우거든요. 그러면 "너 어떻게 살고 있어?", "요즘 뭐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 같이 각자 하루 얘기 같은 걸 하면서 서로의 상태를 공유해요. 그러다 보면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서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상태가 좀 안 좋거나 힘들다고 하면 바로 같이 반응하는 편이에요. 다 같이 해결 방안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해줄까?" 하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 집 와, 재워줄게, 밥 해줄게. 좀 쉬었다가 다음 날 다시 움직이자" 이런 식으로요. 꼭 직접 만나는 게 아니어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 서로를 확인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돌봄 같기도 하고요. 저는 결국 돌봄이라는 게, 그냥 "너를 계속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승연 너를 인지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결국 돌봄이 어떤 역할이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계속 세계 안에서 지워지지 않게 두는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연 맞아요. 또 좋았던 게 성주가 해줬던 말인데, 저는 누군가한테 찡찡대는 걸 잘 못하는 편이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성주가 "나연아, 우리가 살면서 서로한테 싫은 말, 못된 말 한다고 해서 헤어질 것도 아니고 같이 안 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서로 믿을 구석이 되어주자. 그리고 그걸 연습해보자" 이렇게 말해줬어요. 서로 그런 말들도 해보고, 싫은 감정도 꺼내보는 연습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같이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서로에게 믿을 구석이 되어주면서, 그런 것까지도 '연습'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되게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편하게 말도 하게 되고, 힘들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성주 왜냐하면 서로 텐션이 지치거나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상태로 집에 와서 계속 사회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각자의 원가족한테도 보여왔던, 사실은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서로에게 드러날 수밖에 있는데, 그걸 서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각자 시간을 좀 갖고, 에너지가 괜찮을 때는 다시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식으로 조절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이 상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 같아요. 저는 사람들과 되게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편인데, 그 깊이가 제가 기대하는 만큼까지 잘 안 갈 때가 있으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기대치가 큰 만큼 서운해지기도 하고, 그게 또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좀 끊어버리거나 혼자 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큰 기대를 완전히 없애지 않더라도, 좀 더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상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승연 그런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성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나연이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상대 입장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바뀔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자체의 정체성인데, 내가 그걸 건드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서 되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완전히 같아질 필요는 없는 관계가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승연 진짜 멋진 말이야, "같아지지 않으면서도 같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사실 관계에서는 제일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해온 동거 방식이나 돌봄의 감각이 딱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주 옛날에는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럼 우리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관계인가?"로 바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아야 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굳이 맞추려고 하는 순간 관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한 지점이 생겨도 그걸 꺼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신영복 선생님 관련 수업도 듣고, 또 "화이부동" 같은 개념들을 접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때 좀 탁하고 깨달았던 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다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이 있는 상태에서도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다"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나는 너랑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전제를 같이 두고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승연 되게 불안형이 안정형이 되는 마법의 키워드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너를 꾸짖거나 바꾸려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나도 여기 있고, 너도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리는 느낌.

성주 저도 말하면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좀 약간 부끄럽잖아요.

승연 그렇죠. 연약함이나 취약성을 내비치는 거잖아요.

성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

도 약간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저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를 좋아하는데, "나 좀 챙겨줘", "나 이런 거 해줘" 이런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말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다음부터는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나연 저희도 한 번 그렇게 딱 부딪히고 나서, 그때 이후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연아 옷 너무 많다, 옷걸이 정리 좀 해줘" 하면 저는 그냥 "아 오케이" 하고, 서로 "성주야 이것도" 하면 "오케이" 이렇게 피드백이 되게 빨라지더라고요. 말을 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구나,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구나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냥 턱턱턱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집 가훈 할 거예요. 화이부동.

승연 나연 님도 이런 거 있으세요? 같이 잘 살기 위한 접근 방식 같은 거요.

나연 예전 집에 살면서 항상 제가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에 있는데도 몸이 계속 붕 떠 있는 것 같고, 바닥에 착 붙지 않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주랑 같이 살면서도 계속 "너는 이 집이 너 집 같아?", "이 집 편안해?", "동네는 너한테 좀 익숙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느낌이 조금씩 바뀌면서, 예전처럼 붕 떠 있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고, 집에 좀 더 붙어 있는 느낌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성주 그리고 저는 네가 이 집에서는 그냥 좀 우울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그런 상태를 좀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게 느껴졌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 내가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일 때 그걸 "잘못된 상태"라고 느끼거나 "집은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바꾸려고 할까 봐 그게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네가 좀 힘든 상태였잖아.

나연 맞아.

성주 근데 저는 나연이가 우울하거나 힘든 상태여도, 집에서는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밝아지려고 하거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느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나연이가 점점 집에 애정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경험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집이 더 이상 나연이한테 즐겁거나 긍정적인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봐요. 그런 신호는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승연 꼭 항상 밝고 화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기보다, 우울하거나 말이 없는 상태도 같이 견딜 수 있는 집이 중요했던 거네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서로의 연결감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연 그리고 얘가 말한 거랑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집에 같이 있을 때 한 명의 기분이 조금 안 좋아 보이거나 제가 좀 꽁한 느낌이 들면, 그걸 어떻게든 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집이란 공간이 왠지 항상 둘이 같이 행복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상대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집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거 초반에는 늘 같이 붙어 있고 화목한 분위기였는데, 점점 각자의 시간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가 말없이 방문을 닫아도, 저도 말없이 그냥 있어도 "아 괜찮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굳이 꽁한 상태를 풀려고 하지 않아도, 침묵이 깨지지 않아도 이 집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라는 걸 조금씩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성장기 때 부모님한테 제 삶에 대한 지지를 많이 못 받은 기억이 있어서, 원래는 제 이야기를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엄마 나 이거 한다" 이런 말도 잘 안 했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시는 반응이 있어서, 좋은 것만 말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어요.

근데 얘한테는 “나 이거 했는데 사실 퇴사 통보받았어”, “나 잘렸어”, “나 이거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친구는 “그럼 쉬면 되겠다”,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받아주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집이 진짜 집 같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주 다행이네.

나연 집에서 내 모습을 꾸며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

승연 두 분은 동거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혈연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같이 살아본 이후에요.

나연 저는 엄마 아빠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집 나가기 전까지는 거의 침묵 상태였고, 집에서도 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엄마 전화도 더 자주 받게 되고, 관계가 좀 더 친근한 모녀 같은 느낌으로 변했고요. 오히려 사이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 있었어요. 원래는 냉전 기간도 되게 길었는데, 지금은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예전보다 훨씬 친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지니까 더 잘 지내게 된 것 같아요.

성주 네, 그래서 이제는 “가족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기보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계속 잘 이어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은 가장 친밀한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친구는 안 맞으면 안 만나거나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데, 가족은 완전히 그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관계 맺는 방식을 계속 훈련해야 하는 대상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가족이라는 건 되게 사회적인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연 근데 지금의 가족은 예전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라기보다, 함께 같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같은 시대를 살고, 비슷한 나이대로서 현재를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훨씬 더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주는 영향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빠르게 공감되기도 하고, 지금의 삶에 바로 연결되는 조언이나 감각들이 오가니까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주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상대가 조언해주는 입장이 되고, 우리는 계속 조언을 받는 사회초년생 같은 위치에 머물게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동등한 친구와 같이 살다 보니까, 상대가 나를 먼저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고, 또 실제로 배우기도 하니까 조금 더 어른이 되는 기분이 들고요. 만약 가족이었다면 “다 원래 힘든 거야”, “청춘은 다 그렇지” 같은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친구랑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도 너 멋있다”, “잘하고 있다” 같은 존중의 말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연 엄마 아빠의 말은 가끔 저를 더 압축시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아직 좀 모자라구나”, “더 성장해야 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통 자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애든, 정치이든, 직업이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가도 결국에는 “우리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같은 말들로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를 조금 더 넓어지게 해주는 감각이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성주 불안한 이야기들도 가끔은 되게 재밌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니까 할 수 있는 말이구나”, “지금의 우리라서 가능한 대화구나”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이가 더 들면 오히려 못할 말들 같기도 하고요.

승연 저도 친구들을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요.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저렇게 열심히 살

아가는 걸 보면, 마음이 되게 좋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괜히 더 응원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보니까, 그게 여러분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결국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라는 감각이요.

나연 서로 큰일 있을 때마다 부적처럼 괜히 곁에 두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성주 맞아. 어쨌든 서로 자극도 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나연 저희 집 문화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서로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아니까, 취업이든 퇴사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했든 실패했든 뭔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꼭 조각 케이크를 사 와서 같이 먹어요.

성주 나연이 퇴사한 날에도 케이크를 불었어요.

나연 조금 더 많이 기뻐해주고, 많이 축하해주자는 마음으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주 저는 슬픈 일도 "우리 오늘은 케이크 먹는 날이다"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승연 되게 좋네요. 좋은 일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힘들거나 흔들리는 순간까지도 같이 기념한다는 느낌이라서요. 여러분 집의 재밌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소개해주실래요?

나연 우선 행복 저금통. 행복 저금통은 행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쪽지를 접어서 넣는 건데요. 나중에 동거가 끝나는 시점에 같이 열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한 번 해보고 싶었던 로망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때는 자기 전이랑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명상도 했어요. 명상 어플로 3분, 5분씩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초반에는 "느긋느긋 해방~" 하면서 서로 잘 잤냐고 안부 묻는 문화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아요

성주 "느긋느긋 해방~"은 여유롭게 살자는 의미에서 외치는 거예요. 저희 둘 다 되게 조급한 편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둘 다 백수이기도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연 그리고 현관문 앞에 네컷사진도 붙여놨는데, 거기엔 저희 둘 다 같이 나온 사진만 붙일 수 있어요.

성주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항상 대청소를 해요. 그래서 한 명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한 명은 집 전체 정리를 하고, 같이 이불도 털고요. 그다음에는 각자 할 일을 하는 식이에요. 3월부터는 제대로 서로의 루틴이 생기기 시작했고, 2월까지는 계속 일정들을 공유하고 기록해두는 방식으로 맞춰왔어요. 평일에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각자 일정이나 약속을 달력에 다 적어두고 공유했어요. 또 채워야 할 음식 같은 것도 위에 적어두면, 누가 지나가면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동으로 쓰는 카드도 있어서, 같이 생활비를 나눠 쓰는 구조로 생활하고 있어요.

나연 그리고 월말에는 꼭 월별 회고를 하기도 하고, 같이 날짜를 맞춰서 한 달을 쭉 돌아보면서 서로 재미있었던 것, 성취한 것, 아쉬웠던 것, 다음 달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동거생활 자체를 같이 회고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둘 다 내향적인 편이다 보니까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딱 한 명씩만 초대하는 집들이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많이 부르지 않고, 한 명씩만요. 아마 계속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한 6명 정도 온 것 같고, 그렇게 천천히 집을 공유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승연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는 집들이로 놀러오고 싶어요. 오늘 사진 찍으면서 어떠셨어요?

성주 제가 그전까지는 계속 "동거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가족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좀 처음으로 스스로도 "아, 우리 가족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이건 그냥 동거인데"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우리 가족 사진 찍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으니

까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정말 사진 이상의 촬영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연 그리고 뭔가 컨셉을 잡고 찍는다기보다, 잠옷 입은 모습도 있고 진짜 저희 일상을 그대로 찍는 느낌이었잖아요.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포착해주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나 오늘 컨셉 잡고 촬영했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을 담았다는 기분이 더 크게 남았어요.

성주 맞아. 우리 일상 맞잖아.

나연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남겨져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촬영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지나온 6개월을 조금 더 천천히 돌아보게 된 것 같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면 되겠다" 같은 것들이 지금 조금씩 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형태가 생기는 기분이랄까요.

성주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승연 저도 오늘이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가거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같이 살아가는 방식과 시간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낯설어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보며 “우리가 가족이구나”라고 나직이 읊조릴 수 있게 된 것은, 그간 이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조각 케이크와 월말 회고, 그리고 “힘들어도 괜찮다”는 무수한 다독임 덕분일 것이다. 조각 케이크를 나누며 서로의 오늘을 축하해 온 두 사람의 시간이 앞으로도 저금통 속 행복들로 차곡차곡 쌓여가며 더 깊고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나연과 성주 2026.3.27)


성산3교



에큐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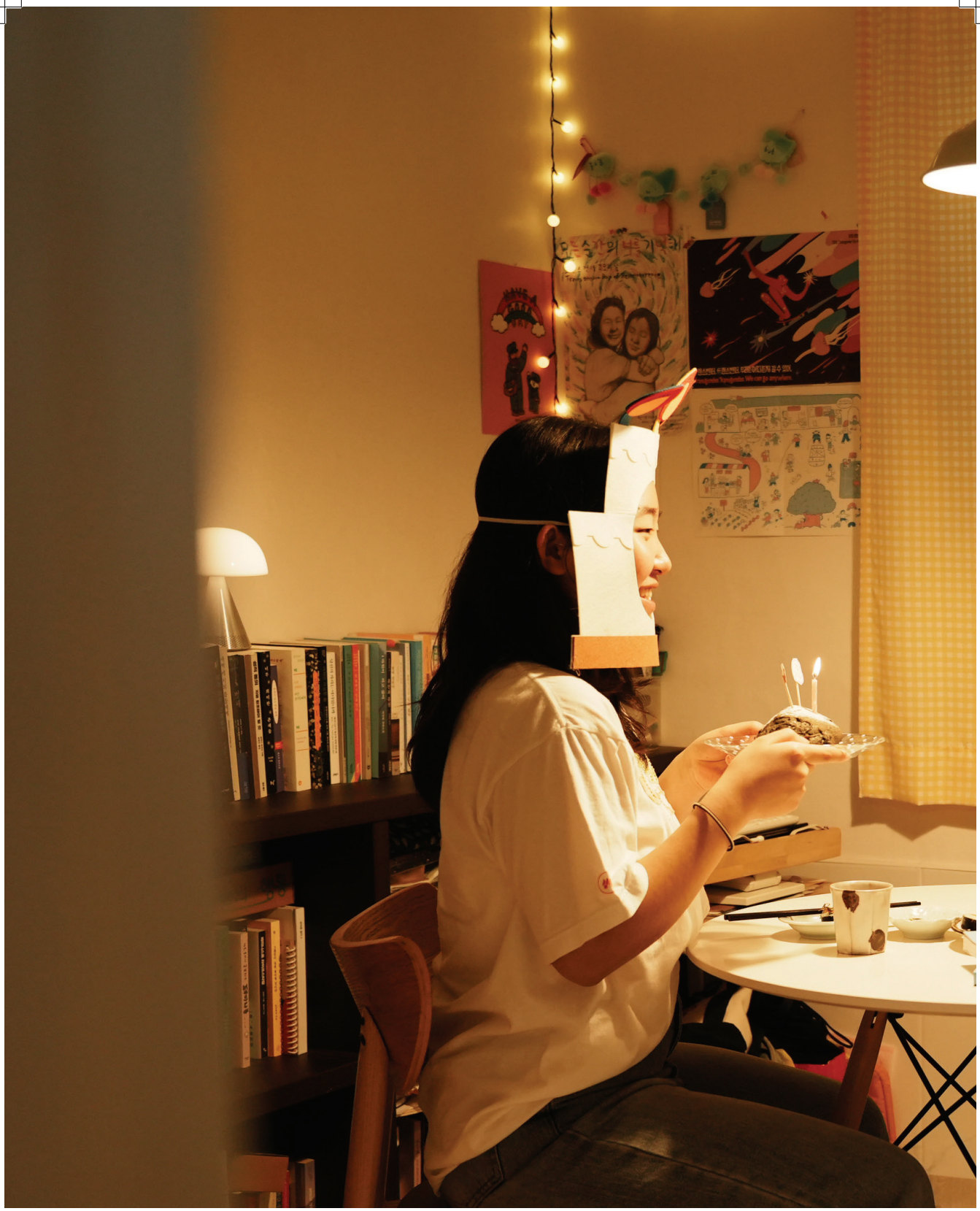
모여라! 퀴어 가족들아!

대안학교의 낡은 교칙과 이분법적 문법을 향해, 이들은 숨죽이는 대신 전교생 앞에서의 대공개 커밍아웃과 퀴어 당사자 모임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학교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열며 풍경을 바꾸고, 퀴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책《모여라! 퀴어 청소년》을 엮어낸 사람들. 교사와 학생으로 처음 만나, 이제는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동료이자 가족이 된 에큐펨(에코 퀴어 페미니스트)의 꼬꼬, 풀, 유랑의 이야기다.

이들에게 가족은 제도가 정한 울타리가 아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식탁'을 열어 비슷한 존재들을 불러 모아 밥상을 차리며 안부를 묻는 일. 그 지난한 반복이야말로 이들이 세상과 맞서는 방식이다. 누구를 곁에 두고, 어떻게 함께 먹고 살 것인가. 밥 냄새 나는 일상 속에서 서로의 우울을 다독이며, 가장 치열하고도 다정한 안부를 나누는 이들의 풍경을 들여다보았다.








귀어 청소년
귀어 청소년




모여라! 퀴어 청소년
퀴어 청소년 당사자 모임 ★ 깡돌
모여라! 퀴어 청소년






HAVE A GOOD DAY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Transgender. Transgender. We can go anywhere.


생일축하해
Happy 유랑 Day
25.02.02 메롱💗
앞니 플러팅 성공💗💗💗
FEMINISTS WITH PALESTINE
혹시나 새벽에 너무
아프다면 !
- 체온계로 열재기
- 귤들을 촬집기약 / 환상은 다이레놀
-혹시 열이 난다면 최우선의 조제약 먹기
↳ 콧물이 같이 난다면 아침약
↳ 콧물 안나고 열만 나면 점심약
2025.07.12💗
HBD💗
기부증서
귀여운 유랑단
기부일 : 2025년 7월 12일
기부금 : 500,000원
유랑 💗
오늘 하루도 고생많았어!
스트레스 받는 일들 멋지게 끝낸
유랑이에게 무한한 박수를! 짝짝짝짝




3:24
신흥상가교
P2
P3










BT 오디오
4:33
AKMU (악뮤)
소문의 낙원
튠 노브를 눌러주십시오: ▶/II







승연 반갑습니다, 에큐펨 여러분. 에큐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큐펨은 무슨 뜻인가요?

꼬꼬 에큐펨은 '에코 퀴어 페미니스트'를 합쳐서 만든 말이고요. 꼬꼬, 풀, 유랑이 함께 활동 중입니다. 처음 만난 건 저희가 다녔던 대안 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퀴어 당사자 동아리였어요. 거기서 처음 만나서 '짱똘'이라는 모임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때 학생이었던 저랑 풀은 졸업을 했고, 교사였던 유랑도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공통분모가 되게 많았어요. 퀴어라는 점, 페미니스트라는 점, 비건이라는 점 같은 것들이요. 이것저것 잘 맞다 보니까 같이 많이 놀게 됐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해서 에큐펨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유랑 짱똘의 자세한 비하인드는 저희가 만든 책《모여라! 퀴어 청소년》을 참고해주세요.

승연 이럴 때 광고해야죠. 짱똘은 그 당시에 누가 만드신 거예요?

꼬꼬 제가 입학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정체화를 하는 시기를 거치고, 2학년이 되면서 학교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커밍아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승연 발상이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완전히 숨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 결정을 하게 된 어떤 단서나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숨고 지내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 커밍아웃을 하게 만든 동력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꼬꼬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숨기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내기에는 계속 답답했고, 그 사이에 여러 사건들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저한테 먼저 커밍아웃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페미니즘이나, 모두가 평등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실제로 퀴어의 정체성이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이랑 학교 선후배들에게 1대1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자기가 아는 퀴어들이 좀 있다"고 하면서, 원하면 연결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두 명의 멤버를 만나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만나서 얘기만 했는데, 평소에는 접점이 거의 없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퀴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주기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짱돌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유랑은, 저희가 멤버들을 따로 모집하던 시기에 등장해요. 짱돌을 만들고 나서 오픈 카톡방을 파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고 폼도 만들어서 받았는데, 거기에 유랑이 처음으로 신청을 넣은 거죠.

유랑 "저도 가입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죠. 저도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2017년이고, 2016년 12월에 교사회에는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학교 교육 목표가 '더불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더불어' 안에 퀴어는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퀴어로 살아가려고 이 자리를 선택한 건데, 계속 학교에 남을지, 나갈지, 남는다면 퀴어를 드러낼지 말지 그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교사회에는 커밍아웃을 했고, 그렇게 드러냈으니까 뭔가 수업 같은 것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이 좀 잘게 나뉘어 있어서 여름방학 전에 5일 정도 짧은 수업을 열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퀴어 관련된 작은 수업을 하나 열게 됐어요. 그 수업에 꼬꼬가 들어왔고, 그때를 계기로 사실 꼬꼬랑은 거의 접점이 없었는데 처음 연결이 생긴 거예요.

승연 그전에 안 친했다는 말이에요? 학교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꼬꼬 학생에 비해서 교사가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이거나 동아리를 같이 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면, 제가 교무실에 자주 놀러 가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접점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안 친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유랑 퀴어 수업은 7월, 방학 직전에 5일 동안 진행된 집중 수업이었어요. 꼬꼬를 포함해서 한 3~4명 정도가 들었고, 전체적으로도 4~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이었어요. 학년 제한이 있어서 1, 2, 3학년만 들을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몇 개의 집중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듣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단위로 진행됐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방학이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개학하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페이스북에 우리 학교 '교내 퀴어 당사자 모임' 페이지가 생긴 거예요. 방학 동안에 갑자기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가입을 망설였던 건,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 위계가 꽤 강하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학생들은 교사에게 당연히 존댓말을 쓰고 '쌤'이라고 부르고, 교사는 반말을 쓰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퀴어가 드러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학생들이 아직 자유롭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거나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거죠.

승연 대안학교라서 자유로운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위계가 있었던 거네요. 의외예요.

유랑 나는 교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했는데도, 동료 선생님들한테 계속 "쌤 남자친구 없어요?" 같은 질문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게 반복되니까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저 사실 누구인데, 이 모임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저 레즈비언이고 당사자라서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교사라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달라. 가입해도 되면 되고, 불편하면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요. 그리고 동시에, 학교가 워낙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교사나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도 된다, 가입 여부는 편하게 결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거의 바로, 그날이나 다음 날쯤 연락이 왔고, 가입해도 된다고 해서 저를 초대해 준 거예요.

승연 처음에 신청서 받았을 때 어땠어요?

꼬꼬 놀랐어요. 너무 놀랐죠. 교사가 신청할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승연 근데 너무 필요했던 거잖아, 유랑한테.

꼬꼬 그렇죠.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승연 진짜 인연이다.

풀 어쨌든 들어간 덕분에 유랑의 차를 이용해서 외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짱똘 모임 자체가 서로에게 꽤 득이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승연 풀은 언제 짱똘에 가입 신청을 한 건가요?

풀 1학년이었을 때라서, 저는 그때 퀴어에 대해서 거의 처음 접하는 상태였어요. 유랑의 성교육 시간 안에 퀴어를 다루는 파트가 아예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퀴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레즈비언, 게이 같은 단어들도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꼬꼬가 전교생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승연 어디서요?

꼬꼬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강당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월요일 1교시에 한 주를 여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주여'라고 불렀어요. 전교생 중에서 매주 한 3~4명 정도가 발표를 꼭 해야 하는 시간이었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풀 돌아가면서 전교생이 자기 자신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꼬꼬 근데 그게 마침 딱 제 차례가 그 타이밍에 돌아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PPT를 만들어서 올라가서, "저 오늘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저는 젠더퀴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풀 그리고 그걸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PPT로 같이 설명도 했어요. 젠더퀴어가 뭔지, 범성애자가 뭔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요.

꼬꼬 왜 커밍아웃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했어요. 5분 정도요.

승연 근데 그때 너무 떨리지 않았어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꼬꼬 저 약간 기억이 안 나요.

승연 두 분이 듣기에는 그 발표가 어땠어요?

유랑 저는 꼬꼬가 그걸 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던 게 기억나요.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짱돌에 가입하기 전, 개학하자마자였어요. 거의 2학기 시작하자마자였죠. 저희가 실제로 만난 건 수업 5일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 교무실에도 잘 안 오는 학생이었고, 저한테 따로 찾아올 만한 관계도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학기 초라서 제가 너무 바빴어요. 계속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름쌤 바쁘세요?”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온 거예요. 보통이면 학생들이 와서 말 걸고 그러는 상황인데, 꼬꼬는 좀 달랐어요.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머뭇거리니까 꼬꼬가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고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저 사실 주여에서 커밍아웃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풀 근데 발표할 때 반응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때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아서, 영어도 그렇고 개념 자체를 따라가느라 바빴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수업 때 들었던 걸 계속 떠올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런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라 다들 좀 생소해하는 분위기였고요. 반대로 앞쪽에 있던 선배들은 이미 퀴어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박수도 많이 치고, 분위기 자체는 되게 지지적인 편이었어요. 특별히 야유가 나오거나, 혼잣말로 혐오적인 반응이 있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꼬꼬 근데 그런 혐오 반응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농담처럼 “넌 저런 거 아니지?” 같은 식으로 말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이미 제 편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커밍아웃을 한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지지적인 분위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크게 보이면 오히려 바로 비판을 받거나 분위기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원래는 주여 자체가 그렇게 집중력이 높은 분위기의 시간은 아니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커밍아웃 할 때는 진짜 아무도 잡담 안 하고 진짜 고요하다가.

풀 다 끝나고 박수가 엄청 길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나뉜 느낌이었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발표에 집중한 사람들은 되게 열렬하게 환호를 보내줬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건 결국 박수와 환호였어요.

승연 아니, 되게 성공적인 커밍아웃 같은데요. 어땠어요? 그걸 하고 나서 좀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꼬꼬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가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거였고,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는 충격 효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때 제 주변 사람들도 “너 덕분에 퀴어에 대해 알게 됐다” 면서 따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성별 이분법이 너무 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설문지에서 남녀를 나누는 방식이나, 남녀로 줄 세우는 구조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로 학교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하려는 분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승연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짱돌은 결성된 이후에 학교 내에서 몇 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고, 각자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궁금해요.

꼬꼬 일단 만들어지자마자 학교 축제에 부스를 열었어요. 약간 캠페인처럼, "저는 젠더퀴어입니다"처럼 자신의 성정체성을 본인의 몸이나 부스에 붙이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놀이를 후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금을 받기도 했어요. 축제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나서 굿즈도 만들고 그랬어요.

풀 그거 있잖아요. 성교육.

꼬꼬 맞아, 대안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성교육 관련 포럼을 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그런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외에는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승연 유랑은 무엇을 했나요?

유랑 일단 드라이버로써 운전을 많이 했고요, 행사나 포럼이 있으면 같이 회의도 했어요. 중간중간에는 학교 익명 게시판, 그러니까 대나무숲 같은 데에 혐오 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같이 대응하면서 댓글을 달고, 어떻게 반응할지 논의해서 같이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학교 안에서 자잘한 제도들이나 약속들도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예를 들면 행사부에서 4·19 민주항쟁 마라톤 같은 걸 할 때, 원래는 남성/여성이 무조건 짝을 지어서 뛰는 구조였거든요. 손을 잡고 뛰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당연하게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구조도 "두 명만 가능한 게 아니라 혼자도 가능하고, 셋이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약속' 같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했고요.

승연 실질적으로 학교라는 사회를 바꾸어 갔네요.

꼬꼬 그 짱똘 모임이, 학교 내 퀴어 문화 축제를 만드는 새로운 팀으로 확장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퀴어 활동을 하는 팀이 된 것 같아요.

풀 그래서 거기는 이제 퀴어 당사자만이 아니라, "퀴퍼를 같이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은 다 와라"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첫해에는 15명이 모여서 퀴퍼를 진행했고, 텀블벅에서 펀딩도 받았어요.

승연 뭐 했어요? 행진하고 이런 거?

꼬꼬 부스도 열고,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했어요. 원래는 외부인도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결국 못 받고, 학교 안에서 우리끼리 진행하게 됐어요. 오픈 마이크도 하고 공연도 했고요. 영화 상영하고 GV도 했어요.

승연 아, 못 가본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럼 졸업 이후에 유랑, 풀, 꼬꼬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졌나요?

유랑 저희 3명은 졸업 이후에도 퀴퍼도 같이 가고, 종종 연락하면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놓게 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라기보다는 동료로서 함께 해보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별명도 사용하면서요. 그러다가 "어차피 같이 활동을 계속할 거면 이름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농담처럼 "에코 퀴어 페미니스트니까 에큐퓀 어때?"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풀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끼리 노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확장돼서 책을 내는 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승연 되게 자연스럽게 확장된 관계네요. 그러다 어떻게 같이 살게 되셨나요?

풀 그게 재작년이었는데, 각자가 엄청 바쁜 시기였어요. 꼬꼬는 워킹홀리데이를 가 있었고, 저는 입시를 시작했고, 유랑은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같이 뭉치기 어려운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고, 저는 서울, 유랑은 인천, 꼬꼬는 해외에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을 잘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서로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자주 만나서 놀고 퀴퍼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가니까 "아 이 관계가 되게 중요했구나" 이런

걸 서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연말에 꼬꼬가 호주에 있는 김에, 저희가 각자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호주로 같이 갔어요. 논문도 끝내고, 저도 입시를 끝내고요. 거기서 꼬꼬가 지내던 숙소에서 2주 정도 같이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때를 계기로 다시 훨씬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풀 예전에는 좀 더 거리감이 있었다면, 같이 지내보면서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해보자, 활동도 함께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꼬꼬 그래서 같이 여행도 하고, 제 집에서 그냥 지내기도 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조금씩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원래는 제가 호주에 1년 더 있을 예정이었는데, 치과 치료 때문에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하게 됐어요. 문제는 제가 본가가 강원도 태백이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머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랑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어떠냐"라고 제안해줘서, 그렇게 해서 유랑이랑 같이 살게 된 거죠.

유랑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의 9년이 퀴어로서 꽤 힘든 시간이었구나를 직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이 논문 자체도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더 힘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도 더 크게 느끼게 됐어요. 그걸 호주에 가서 더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작년에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게요. 관계든 작업이든 전반적으로 너무 버거웠는데, 호주에서는 그 이슈가 잠깐 멀어지면서 오랜만에 쉬는 느낌, 되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꼬꼬가 저한테 정말 많은 걸 내어줬던 것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호주에서 꼬꼬가 자기 집도 내주고,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니고, 저희한테 돈도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는 "언젠가 나도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이었지, 꼭 뭔가를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꼬꼬가 진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 꼭 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치과 치료도 급하고 당연히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집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았어 가지고. 어쨌든 2주를 같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사람하고 같이 못 사는 이유가, 제 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느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호주에서의 2주 동안은 그게 가능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꼬랑은 그래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꼬꼬가 왔을 때도 편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오면 좋았고요. 그때가 너무 재미있었어서요.

승연 동거에 대한 두 분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꼬꼬 전 너무 좋았어요.

유랑 저는 진짜 주변 친구들도 다 아는 편인데, "아무랑도 같이 못 사는 사람"이라고 늘 공표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꼬꼬랑 동거할 때는 같이 사는 것의 좋은 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좋았던 건, 제가 가끔씩 우울에 빠지는 시기들이 돌아오는데, 그럴 때 원래는 사람들 만나면 일부러 티를 안 내요. 불편한 얘기도 잘 못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오면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듯이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완전히 닫혀 지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살게 되면서는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요. 그때도 똑같이 방에 누워만 있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상태가 이어졌는데, 옆에서 계속 그 상태를 "노크"해 주는 느낌이 있었던 게 되게 좋았어요. 같이 살면 내 상태를 숨기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나한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연습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로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할 때, 혼자 살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순간들을 같이 살면서는 누군가가 노크해 주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걸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꼬꼬 저는 일단 솔직히 집이 없으면 한국에 못 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것도 큰 전제였어요. 근데 같이 살았을 때 저도 되게

좋은 점이 많았어요. 한국에 와서 거의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혼자 있으면 더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를 챙길 여유가 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 집에 들어왔을 때 밥 냄새가 나고, 불이 켜져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고요. 저는 원가족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에 안 좋은 기억이나 감정이 많은 편이었는데, 같이 살면서는 그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서로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주고, 배려할 건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시간은 또 존중할 수 있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승연 그때부터 약간 대안 가족 구성 같은 걸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랑 근데 꼬꼬가 그때는 사실 얼마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왔어요. 치료만 하고 호주로 돌아갈지, 계속 한국에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문제도 있었고, 모임을 같이 하려면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지원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마침 꼬꼬가 4월에 오기로 되어 있었고, 3월쯤에 "꼬꼬가 온다, 같이 산다" 이런 게 거의 정해지던 시기에 지원사업 공모가 뜬 거예요. 노무현 재단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게 됐고, 원래도 줌으로 그냥 같이 밥 먹는 모임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장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각자 따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걸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어요. 그걸 모임 형태로 만들어보자고 하면서, 처음으로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것'에 대한 시도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시에서 사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지역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밥을 직접 지어 먹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게 에큐펨의 지원사업의 시작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식탁' 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며 같이 밥을 먹었죠.

승연 유랑은 가족과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었어요?

유랑 저는 가족이랑 절연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청소년·청년 시기에 집이나 가족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저한테 집은 전혀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퀴어라서 더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제 원가족의 문제였던 건지 계속 헷갈렸고요. 그래서 집이나 가족이라는 질문이 늘 제 안에 남아 있었는데, 정면으로 마주하기는 좀 회피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나 주변에서는 가족을 너무 좋은 것, 끊어낼 수 없는 관계로만 이야기하니까, 관계를 끊어낸 제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 때 애니메이션 다큐 '나의 집은 어디인가'를 봤었어요. 난민이나 퀴어 이야기들이 담긴 작품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퀴어의 삶이 결국 계속 집을 찾아 떠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집을 찾는가, 가족을 찾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남았어요. 안전하지 않아서인지, 관계를 원해서인지. 그때 꼬꼬가 호주로 가는 과정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 시간을 따라가면서 지금 청년 퀴어들이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집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고, 한때는 결혼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 이후 비혼을 선택하면서 "그럼 가족을 못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 관계와 커뮤니티를 만나면서 가족이 꼭 제도나 한 사람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를 통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승연 지금은 고민이 어떤 지점에 와 있는 상태세요?

유랑 이제 꼬꼬와 풀이 같이 살면서 이 집을 떠났잖아요. 집이 두 개가 된 거죠.

승연 가맹점이 2개가 된 거죠. 에큐펨 인천 지점이 생긴 셈이고요.

유랑 우선은 도시에서 계속 살지 말지, 그 위치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편안한 건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동시에 같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연결을 만들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공간이나 시간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도시 안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지역으로 가야 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기에 도시가 맞는 곳인지,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승연 두 분은 어떠세요? 인천 지점을 오픈하시고 지금까지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꼬꼬 어떠세요?

풀 그리고 저는 사실 자취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내 집을 내가 꾸리고 살아본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직접 구한 집이고, 그 공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며놨고, 필요한 것들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편안하고 포근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승연 3명이서 살 때가 가끔 그리우세요?

풀 네, 3명이 같이 살 때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근데 유랑이 자주 놀러 와서 괜찮아요. 지금은 인천에서 셋이 모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셋이 모이기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두 집 살림을 하는 느낌이에요. 주말부부마냥. 어쨌든 셋이 같이 살아보면서 이 공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동료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여기서 모이고 연대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게 좀 기쁜 것 같아요.

승연 좋아 보여요.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셋이 함께 살던 형태는 끝난 거니까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꼬꼬 근데 가끔씩 유랑을 데리고 오고 싶기도 해.

유랑 이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사람이 떠난 거잖아요. 보통 제가 늦게 집에 오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집이 비어 있는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항상 누군가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면 당연히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상태일 거잖아요. 그 감각이 익숙해지는 과정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승연 저는 지금 원가족과 함께 살면서 여자친구과의 동거 경험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독립해서 혼자 살아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갈 집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연이나 동거를 넘어 더 느슨한 커뮤니티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계가 느슨할수록 책임을 나눌 수 있고,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이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 저에게 가족은 같이 사는 형태라기보다, 아플 때 서로를 챙기거나 계속 상태를 살피는 것처럼 '돌봄의 감각'에 더 가까운 개념인 것 같아요.

유랑 그냥 같이 살든 안 살든, 내가 평소에 잘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나 관계가 있다는 게 되게 가족 같다는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픈 걸 되게 티 내기 싫어하는 편인데, 그게 어릴 때 경험이랑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새벽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침하는 걸로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집에서도 아픈 걸 잘 티 내지 않게 됐고, 오히려 숨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걸 누군가에게 드러냈을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감각이기도 하고요.

승연 맞아요, 저는 그 결핍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되기 전에 충분한 준비나 교육 없이 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상태에서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진 채로 가족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시 대물림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왜 나는 계속 힘들까" 같은 감각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도 달라질 수 있구나" 같은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게 일종의 사회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가족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래의 친구들이나 주변 관계들이 그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역 정체성도 되게 크게 느끼는데, 양천구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 안에서 퀴어로 존재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리집 같은 공간과 그 안의 관계를 통해 그 정체성들이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결국 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또래들과의 관계가 그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고 느껴요.

풀 맞아요. 어쨌든 그게 내가 선택한 사람들, 내가 선택한 관계라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나 만족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노력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관계들은 내가 유지하려면 계속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관계들이니까,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점 자체가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유랑이 말한 것처럼 집이라는 공간이 결국에는 가면을 벗고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과 만날 때는 내가 그 관계를 신경 쓰고, 내 이미지를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같은 관계에서는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지나 관계를 신경 쓰는 이유는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불안해서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못나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너무 애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나 안정감이야말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솔 저도 작년에 진행했던 행사 <다이크 마치 코리아>에서 주제가 "She makes me feel like home"이었는데요. 그때 독일에서 살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You make me feel like home"이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과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 집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대안 가족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생각할수록, '집'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걸 저도 비슷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랑 저는 '아르케'라는 커뮤니티에도 소속돼 있는데,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다시 커뮤니티를 준비 중인 시기이고요. 그러면서 멤버 중 한 명이 실제로 지역을 이주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도 엄청 활동을 열심히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가족 같은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떠난다고 했을 때 되게 아쉬움이 크고, 약간 질투 같은 감정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도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시 저희랑도 연결이 되고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지역을 떠나고 공간을 옮기더라도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구나, 이런 걸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아직은 저도 감정적으로 완전히 적응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쉬움인지 질투인지 잘 모르겠는 감정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겠죠. 저는 그런 관계를 더 '집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만나고, 저기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이어지는 게 더 좋아요. 처음처럼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아니라, 관계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과 있으면 어디에 있든 집처럼 느껴진다.” 에큐펨이 매일의 식탁 위에서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환대하느냐에 따라 가족은 얼마든지 퍼져 나가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촬영을 하던 날은 마침 이들의 기록이 담긴 책《모여라! 퀴어 청소년》이 세상에 나온 직후였고, 풀의 생일이 겹쳐 작은 축하가 이어졌다. 나란히 놓인 케이크와 다정하게 똘똘 말린 비건 김밥들. 꼬박꼬박 정성스레 말아낸 김밥만큼이나 서로를 챙기는 이들의 다정함은 집을 금세 온기로 채웠다. 위계적인 교실에서 처음 만난 세 사람이 서로를 동료로 다시 선택하고, 기록과 공간을 통해 연대를 서로에게 새겨온 과정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투쟁이었다.

가족은 한곳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챙기느냐에 따라 그 면적을 넓혀간다. 인천에서 서울로, 다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들의 관계가 맺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져 나간다는 사실은 큰 용기를 준다. 제도가 규정한 좁은 칸막이를 넘어, 우리가 기어이 선택한 사람들 곁에서 밥을 짓는 일. 오늘도 누군가의 식탁을 밝히며, 또 다른 ‘집’을 이어가고 있을 에큐펨의 내일이 더 따뜻한 풍경으로 채워지기를 응원한다. (에큐펨 2026.4.12)


자전거 통행금지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변호사

여름과 다현

망신살 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지

서로를 향해 던지는 농담의 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뭐 하다가 엎어지면 도와주기는커녕 카메라부터 들이대며 놀린다”는 이들은, 서로를 ‘바보 같고 모지리 같지만 그게 귀여운’ 존재로 표현한다. 애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이 짓궂은 친밀함은, 낯선 게임 대기방에서 ‘같이 밥 먹어줄 다현 구함’이라는 엉뚱한 문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단순히 같이 수다를 떨 사람을 찾던 게임 방의 대기 시간은,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점유하는 삶으로 이어졌다.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순간을 지나, “이렇게 살면 이게 결혼 아닌가요?”라고 묻게 되기까지. 여름과 다현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방식으로 하루 하루를 채워가고 있었다.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아이도 나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반려견 포실이와 로다와 함께하며 비로소 완성된 가족. 여름과 다현이 함께 만들어온 생활의 한 장면을 따라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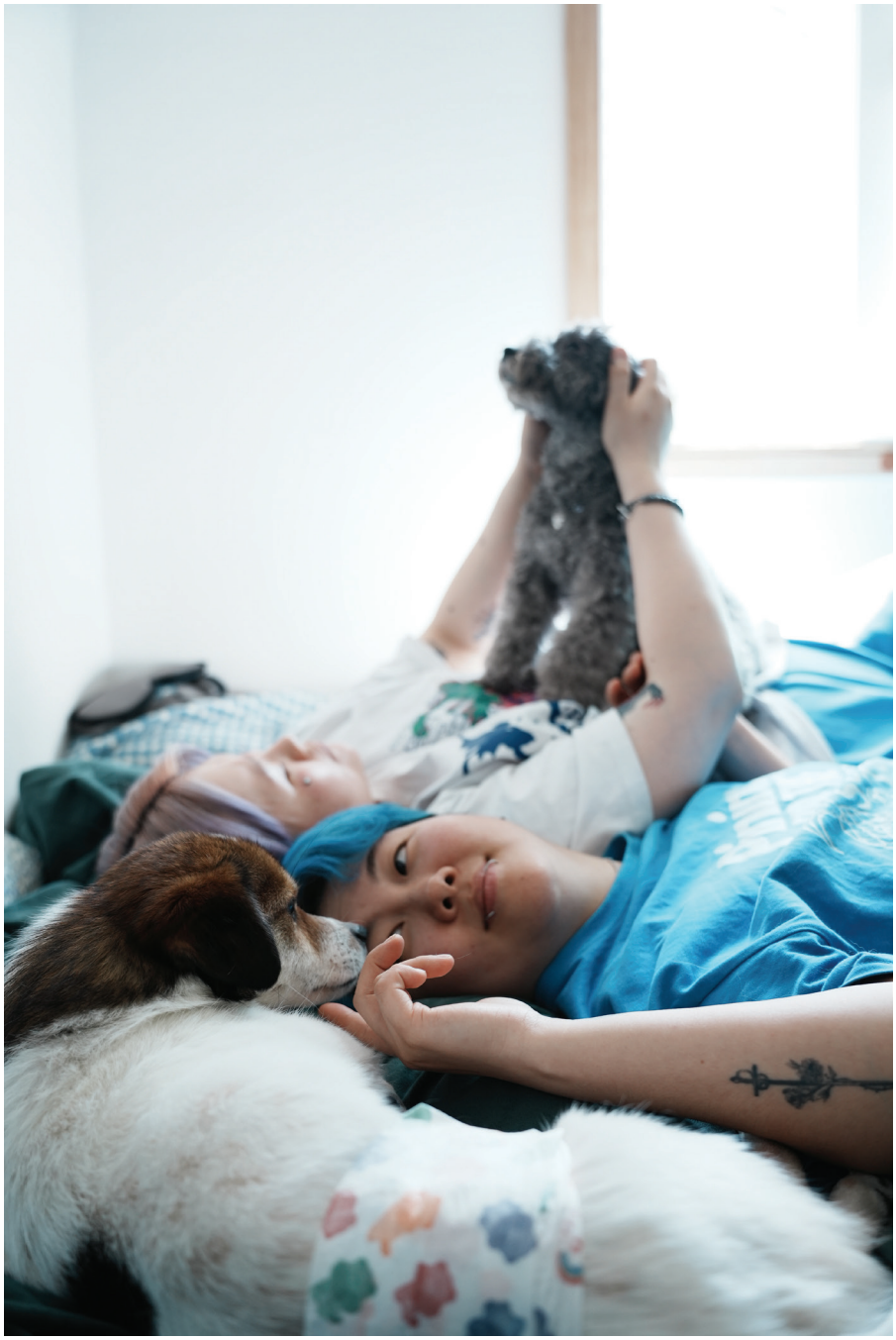









THE DREAM SONGS
Pining








Pining
FOR THE
SUMMER
TIME
©Teket.Com
To Express Summer's Moments
In Our Own Words


Pining
FOR THE
SUMMER
TIME
Tek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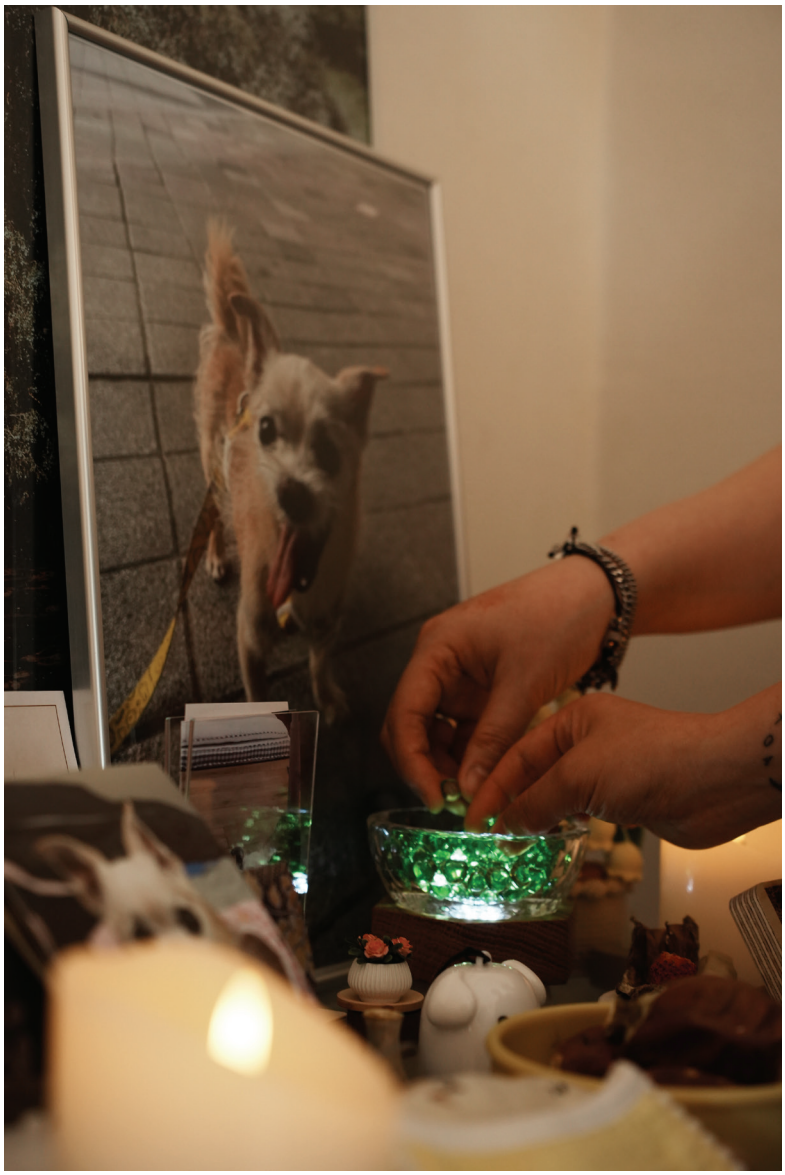

Fresh strawberries are
a good nutrient for us.
THE
MEMORABLE MOMENT
FOR
OUR DAILY LIFE.
YOUR
SHUTTER
LACUZIN


new
Jeans
Bubble


Fresh strawberry
a good nutrien
SUMMER
TIE
To Express Summer
in Our Own


Pining
FOR THE
SUMMER
TIME
©Teket.Com
To Express Summer's Moments
in Our Own Words


사는 게 힘들어










사람이야







승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은 관계를 이어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름 저희는 2023년 11월 9일에 처음 만났고, 이제 2년 반 정도 되었어요.

승연 어떻게 만나셨어요?

다현 저희 친구들끼리 같이 '구스구스덕'이라는 게임을 하려고 방을 만들었다가 만나게 됐어요.

여름 거기서 같이 게임하다가 친구가 됐고, 자주 게임하는 시간대도 겹쳤어요. 게임이 5명이 모여야 시작할 수 있는데, 저랑 다현이를 포함해서 늘 4명만 모여 있는 상황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나처럼 게임 기다리고 있구나' 하면서 조금씩 친해졌어요. 그렇게 대기방에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울 산다는 얘기도 하다가 다현이가 먼저 오픈채팅으로 1대1 연락을 했어요. "서울 살면 언제 한 번 만나자" 해가지고…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였어요.

다현 친구의 친구들이니까 그냥 같이 놀려고 만나자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별로더라거요.

승연 서로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별로였다는 거예요?

다현 그냥 제 마음에 안들었어요.

여름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죠?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다현이가 ENFP라고 해서 되게 활발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낯도 많이 가리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현 사실 첫 만남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름이 생각한 친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것과 다현이 생각했던 선의 경계가 너무 달랐다. 그냥 기대했던 거랑 좀 달랐다.

승연 (차마 인터뷰에 싣진 못하지만 듣고 놀람) 첫 만남치고는 꽤 강렬하긴 했네요. 여름님이 초면인데도 모든 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셨네요.

다현 맞아요. 그리고 트름을 막 하고 처음 만났는데 빵구를 끼고 자꾸 그러길래 웃겼어요.

여름 완전히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온라인으로도 대화를 많이 했고, 그냥 친구 만나는 느낌으로 편하게 나가서 그런 거였죠. 당시에는 제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보통 8시에서 8시 반 정도였거든요. 혼자 살 때라 퇴근하고 나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 "나랑 밥 먹어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얘가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냥 "밥 먹어줄 다현 구함" 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나오는 정도였죠.

승연 왜 나갔나요?

다현 저는 6시에 퇴근했는데, 그때 회사는 시청역이고 집은 수유역이어서 집에 갔다 오면 너무 멀었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친구 만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얘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놀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나와서 같이 밥 먹고 놀고 그랬어요. 그게 더 재밌었거든요.

여름 다현이는 원래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스며들었네? 가 된 거죠.

승연 시간을 많이 보내기 시작하니까.

다현 저는 얘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 일단 만나보자" 했죠.

여름 저희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속으로 "제발 나만 아니어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승연 다현님은 진짜 별 생각이 없으셨군요.

여름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도저히 주체를 못 하겠어서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가 듣고는 "생각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저

는 당연히 차인 줄 알았죠. 근데 그날이 원래 얘네 집 가서 자는 날이었거든요. 원래도 서로 집에 자주 놀러 가고, 가서 자고 그랬어요. 제가 잠도 잘 못 자는 편이고 해서요.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손을 잡는 거예요.

다현 아니, 저는 그냥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저도 좀 충동적인 편이기도 하고요. 보통 저는 저 좋다고 하는 사람이랑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니까 일단 만나보자" 하고 만나면, 나중에는 저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의 연애를 계속 해왔어서, 그때도 그냥 "생각 좀 해볼게" 했던 거죠. 근데 막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2~3시간 정도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여름 저는 한 2~3주 정도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손을 잡더니 "그래, 만나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은 필요한 거 아니냐" 했죠.

다현 갑자기 자기가 고백해 놓고?

여름 저는 당장 사귈 마음은 없었고, 썸 기간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어요. 근데 다현이가 계속 취해서 "그래, 그럼 우리 만나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현 "그래, 알았다" 했고,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승연 와, 너무 웃기고 운명 같아요. 그렇게 사귀게 된 거네요. 두 분은 서로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름 바보 같아요.

승연 진짜 한국 사람들의 근본 애정 표현 방식이네요.

여름 진짜 바보 같아요. 똥방구 얘기 좋아하고, 좀 딩초 같고 약간 모지리 같은데 그런 게 귀여워요. 제가 원래 남이랑 같이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랑은 같이 살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저는 좀 예민한 편인데, 얘는 되게 둔한 편이라서 옆에서 뚱땅뚱땅 해도 그냥 코 골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옆에서 조금만 소리 나도 놀라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고요. 그런 제 예민함을 다 그냥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잘 때도 시끄러우니까 알아서 문 닫아주고 그런 배려들이 되게 좋았어요.

승연 다현님은 어떠세요?

여름 기억 안 나시죠?

승연 너무 자연스러워서 기억을 못하는거 아니야?

다현 자기가 아침에 자고 있을 내가 볼따구 많이 만지잖아.

여름 기억 안 나.

승연 기억 안 나는 부분을 서로 사랑하네. 2년간 사귀었던 순간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여름 그냥 서로의 망신살을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다현 맞아요. 재미있어요.

여름 뭐 하다가 엎어졌을 때도 막 "괜찮아?" 이런 것보다 그냥 보고 웃으면서 안 도와주고 카메라로 찍고 놀린다든가…

승연 그런 부분이 되게 단짝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또 나이도 같으시니까.

여름 그냥 짝꿍 같은 느낌.

승연 저도 여자친구랑 같이 살면서 느낀 게, 여자친구도 굉장히 지지해주고 포용력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예민함도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예민함이 바깥을 향하는 것도 있지만, 제 안으로 향하는 예민함도 있었는데요. 상대가 남한테도 되게 너그럽고, 자기 자신한테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연애만으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시간을 어느 정도 같이 보내야 "아, 저 사람은 삶을 저런 태도로 흘려보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 같은 걸 배워가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거가 그런 경험이었어요.

여름 마냥 바보 같지 않아요. 우리 애 일도 잘해요.

다현 저는 여름이가 할 말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웬만하면 좀 참는 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냥 참고, 좀 선 넘는다 싶어도 일단은 참는 편이에요. 선을 많이 넘어도 참고 넘어가는데, 얘는 그걸 안 참고 바로 표출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가끔은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아직까지도 배워가는 중인 것 같아요.

여름 근데 너무 표출을 해서 시비가 걸릴 때도 많아요. 또 다현이랑 살면서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아요.

승연 이상한 행동을 할수록 저는 오히려 사람이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억누르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제 안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현 네, 강아지들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것 같아요.

여름 앉아서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승연 뭔가 상상이 돼서 웃긴다. 아까 강아지들과 댄스타임도 너무 웃겼어요.

여름 그리고 나체 샤워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승연 두 분은 어떻게 같이 살게 되셨나요?

다현 사귀고 3개월 뒤 마침 각자 집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그러면 같이 살까?" 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여름 근데 그렇게 마음먹게 된 게, 얘가 떨어져 있으면 불안도가 좀 높고 같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원래 남이랑 같이 사는 거 절대 못 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랑해서 했습니다.

승연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 사셨어요?

여름 저는 분당에서 지내다가 전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원룸에서 혼자 살기도 했어요. 그러다 졸업하고 나서는 서울에서 친 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 패턴도 안 맞고 서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요.

승연 어렸을 때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름 그냥 좁은 집에 방도 없이 예민한 사람 둘을 같이 살아놓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제가 뛰쳐나와서 혼자 살게 됐고, 그때 다시는 남이랑 같이 안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승연 그럼 그동안 애인이 있었어도 같이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여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다현이랑 집을 합치게 될 때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위에서도 "너무 이른 거 아니냐" 하면서 반대도 했고, 저희가 또 많이 싸우기도 하니까 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도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계속 같이 살아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얘가 저랑 있으면 좀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살자고 확신을 내리게 됐어요.

승연 여러 감정이 같이 있었던 선택이었네요. 그럼 강아지는 어떻게 가족이 된 거예요?

여름 다현이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낸 뒤에, 먼저 강아지를 다시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현 원래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 와서 딱 1년 정도 살고 떠났거든요. 그 뒤로 펫로스가 너무 크게 와서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를 만나게 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인스타 스토리에서 아는 분이 강아지 사진을 올리면서 임보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전에 키우던 애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름도 비슷했어요. 제가 키우던 애는 방울이였는데, 걔는 버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운명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또 나이도 너무 많은 거예요. 버블이가 그때 스물두 살이었는데 원래 할아버지가 키우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보호처를 찾게 된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 당장 안 데리고 오면, 내일이라도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

이 급해져서 여름이랑 얘기하고 바로 문의를 남겼고, 3일 만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버블이를 데려오고 1년 정도 있다가 포실이도 데려오게 됐어요.

여름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원래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고양이보다도 단계가 높고 거의 제일 심한 정도예요. 털 알레르기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강아지를 데려오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충분히 준비됐을 때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얘가 밥 먹다가 그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전에 키우던 애랑 닮아서 귀엽다", "똑똑해보여서 오래 살겠다" 이 정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원래 데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강아지를 키울 마음도 없었고, 강아지 자체에 대한 애정도 아직 없었으니까요. 얘는 전에 키우던 애랑 닮아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겠지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승연 멋지다 멋져. 여름님이 다현님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여름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버블이를 데리고 왔죠. 근데 처음에는 저는 진짜 싫었어요.

다현 여름이가 진짜 귀찮아 했고. 처음 한두 달은 낯 가렸어요.

여름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가더라고요. 약간 고양이 같은 강아지였거든요. 불러도 잘 안 오고, 그냥 휙휙 가버리고. 근데 또 가만히 제 옆에 와서는 궁둥이 붙이고 있고, 그러다 제 머리 위에서 자고 그랬어요.

다현 이후에 버블이를 데려온 곳에 한 번 인사하러 가자 해서, "버블아 본가 가자" 하면서 같이 보호소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포실이가 얘한테 이렇게 폭 안겨 있었던 거예요.

여름 포실이가 이렇게 안겨가지고, 진짜 사람처럼 "가지 마" 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제 팔에 이렇게 턱 기대서.

다현 팔에 딱 붙어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름 그런 것도 있었고, 원래 포실이가 버블이랑 같이 입양을 갔었는데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보호소로 오게 된 서사가 있었어요.

다현 버블이가 주인을 두 번 보냈거든요.

여름 근데 그때 주인이 돌아가신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고, 집 안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랑 엮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걸 강아지가 직접 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애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입양하게 됐죠.

승연 포실이와는 어땠어요?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다현 처음에 또 낯가렸어. 같이 데려오자고 해놓고서. 그리고 초반에는 포실이한테 되게 뭐라고 했었어요

여름 왜냐하면 저는 처음엔 저한테만 안기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한테나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로다(현재 임보중인 강아지)도 사실 제가 데려오자고 했어요.

승연 똑같은 보호소에서요?

여름 버블이가 결국 노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너무 허전해서 임보라도 해볼까 했는데, 그게 버블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르지 않나?" 싶으면서도 데려올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현이도 충동적인 편이라서 "그럼 로다는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로다가 마음에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게 됐죠.

다현 그전부터 계속 버블이랑 포실이 키우고 있을 때도, 얘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다리를 절면서 질질 끌고 나오는데, 만져주고 싶어하면서도 또 무서워해서 손길을 피하고… 그런 모습이라서 계속 신경 쓰였던 강아지였어요.

여름 그래서 "여기서 잘 사회화시켜서 내가 예뻐해 주고, 잘 걷고 웃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려오게 됐어요.

승연 짧은 시간 안에 강아지를 만나고, 또 평생 같이 살아본 적도 없던 존재를 만나서 함께 지내다가 떠나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만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셨어요?

여름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강아지를 안 키웠을 때는 몰랐는데, 키우게 되고 나니까 계속 데려오는 게 다 인연인 것 같더라고요.

다현 그리고 강아지 있을 때 좀 더 삶이 채워지는 기분이 있어요.

여름 우울증이 되게 심했는데, 강아지가 있으니까 우울할 틈이 없어요. 사람이 좀 바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무기력감도 강아지 덕분에 좀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승연 그럼 강아지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름님을 좀 돌보고 있었던 거네요?

여름 그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도 나를 돌보고 있구나.

승연 두 분의 동거 생활도 강아지가 있으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다현 네, 아무래도 좀 싸우거나 언성이 높아질 때 강아지가 옆에 있으니까 "소리 좀 줄이자" 이렇게 되죠. 저희가 우울해서 나가기 싫고 방에만 있으려고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산책을 나가게 되니까 그게 또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승연 강아지가 있어서 서로 더 의지하게 되고, 책임감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게 그냥 데이트를 즐기면서 여자친구와 같이 사는 것뿐 아니라, 사실 가족 사진에 참여를 신청하신 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여름 저는 원래 성 지향성에 대해 오픈되어 있는 편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엄마도 지지를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커밍아웃은 첫 여자친구를 사귈 때 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말해도 돼?" 하고, "나 사실 여자 만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니가 사랑하면 됐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사람이구나. 왜 걱정을 했지? 엄마까지 날 지지해 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연 우와, 어머니가 지지를 해주셨군요. 부러워요.

여름 회사에 있을 때는 원래는 말을 안 했어요. 최근까지도 굳이 이야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차피 나가는 마당이라서 그냥 말했어요.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남자친구 없고 와이프 있어요" 라고 하면 요즘은 다 좀 열린 분위기라서 "우리 회사에도 몇 명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승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예술 쪽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오픈된 상태로 살 수 있었는데, 일반 회사에서 커밍아웃하는 건 되게 부담스럽거나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현 님은 어떠셨어요? 고향이 경상도라 좀 반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이셨을 것 같은데.

다현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고요. 대신 사촌 언니랑 삼촌이 먼저 저희 집을 보고 가셨는데, 삼촌이 "다현이 여자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은 좀 깨어 있는 편이세요. 서울 쪽에 계속 사셨고, 언니 친구들도 외국인이랑 결혼한 경우도 많고요. 사촌 언니 쪽 친구들도 되게 다양하게 살아서 그런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저희 집에 와서 "혹시 너희 둘 사귀니?" 하길래 "사귀어요" 이렇게 됐어요.

승연 그 전에는 그냥 친구, 룸메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다현 아니, 그전에는 그냥 딱히 안 물어보길래 그냥 "양여름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여름 대단한 양여름이다. 저희 아빠도 원래 좀 보수적인 편이었는데, 최근에 좀 변화하면서 이름 개명하는 것도 갑자기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가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다" 이

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예전 이름이 아빠가 작명소에서 지어온 이름이었거든요. 돈 주고 지은 이름이라 아빠한테는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네가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아빠가 다시 작명소 가서 이름 받아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현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승연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생각보다 유연하게 바뀌는 모습은 예상 못 한 지점이기도 하고, 되게 지지가 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두 분은 결혼이나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름 이렇게 살면… 이게 결혼 아닌가요? 굳이 법에 묶여서 살고 싶진 않아요.

승연 그 "이미 가족이다"라는 감각이 더 강한 거네요. 실제로 동성혼이 법제화 되면 어떨까요?

다현 법제화가 되면 다시 생각해볼 수는 있는데 이미 이 형태가 가족이잖아요.

승연 오히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겠죠.

다현 근데 있으면 좋겠죠. 결혼은 안 하고 싶어.

여름 만약에 제도가 생기면 좋은 점은 병원에서 수술할 때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필요한 부분이죠.

승연 관계를 인정받는다기보다, 생활에서의 권한이 생기는 문제에 더 가까운 거네요.

여름 근데 결혼이 아니어도 동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승연 생활동반자법 같은 형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실제 생활에서의 권리나 보호자 문제 같은 게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여름 나랑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고, 만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테니까요. 그러면서 하나씩 "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승연 그 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세상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승연 약간 이 세상과 내 세상이 다르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세상이 혐오를 하고 차별을 해도.

여름 근데 그건 네 세상이 아니야.

승연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각자의 세계도 모두의 세계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올해 목표가 있으세요?

여름 운동을 좀 하기.

다현 왜 그렇게 쳐다 봐.

여름 운동을 좀 하기.

다현 (스트레칭 중)

승연 무브먼트예요?

여름 둘 다요. 엑셀 사이즈를 넘어선 무브먼트.

승연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마디씩, 그리고 이 인터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다현님, 여름님 서로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름 너무 마음에 담아두는 말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출해 .

다현 자기는 말을 조금만 자제하자.

여름 우리 안을까?

승연 귀여운 연극 하나를 본 것 같아요.

여름은 백화점 향수 매장에서 일할 무렵 모았던 향수를 아낌없이 나누어주었고, 동네 맛집으로 이끌어 주꾸미를 사주었다. 다현은 인터뷰가 끝날 무렵 잊지 않고 맛있는 과자를 건넸다. 무릎에서 내려갈 줄 모르던 포실이의 온기와 "언제든 놀러 오라" 던 두 사람의 다정한 초대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서로의 일상 속으로 초대받은 시간이었음을 실감하게 했다. 여름이 준 러쉬의 솔티 향을 맡을 때면, 낯선 세상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달콤하고 시원한 계절을 일궈가던 두 사람의 매력이 문득 떠오를 것 같다. (여름과 다현 2026.4.26)





장미와 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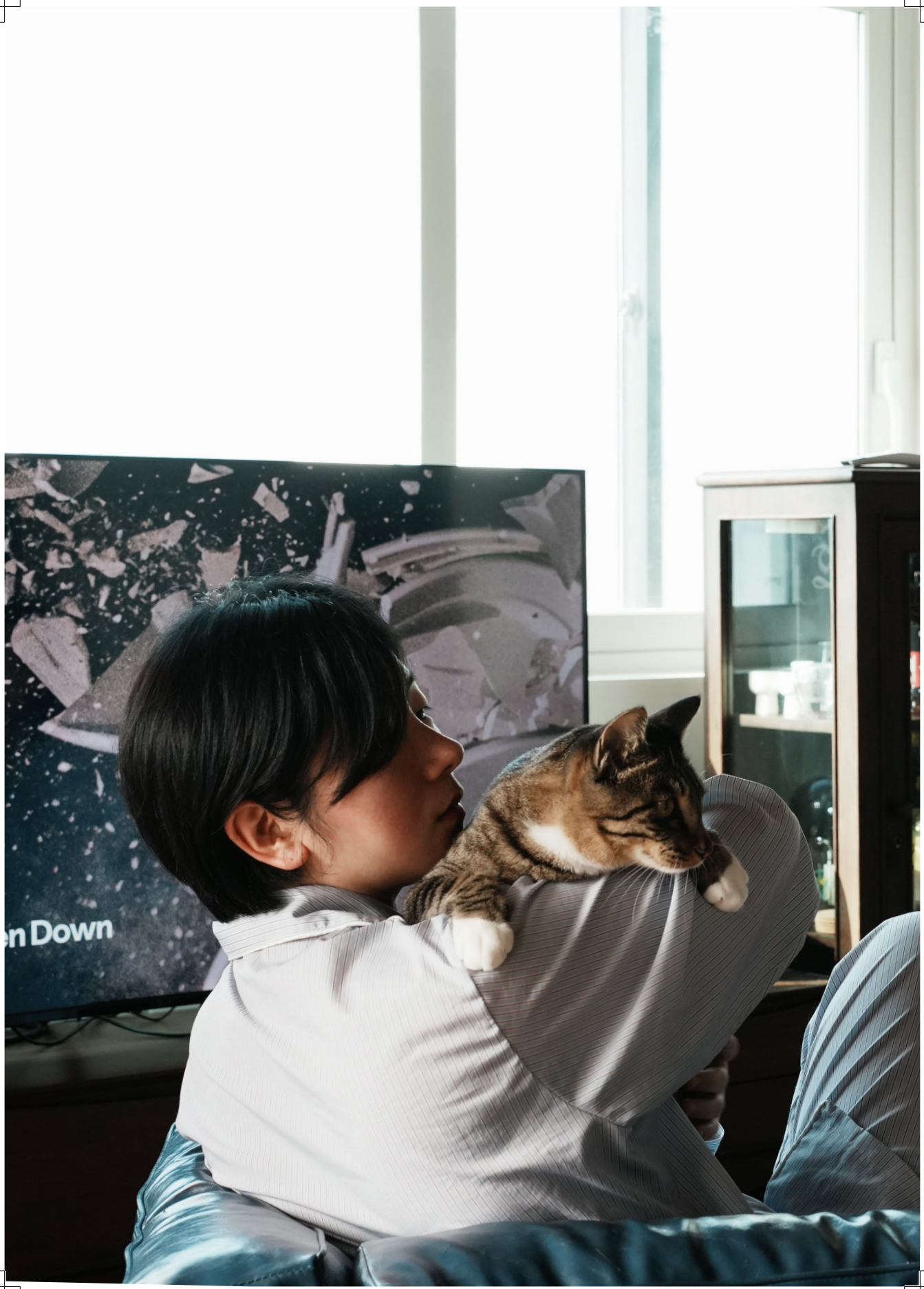
가족은 기세다

밖에는 7080 단란주점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천장은 투박한 목조로 마감된 곳. 누군가는 '피해야 할 집'이라 말할지도 모를 이 공간을, 나은과 장미는 첫눈에 '우리의 낭만'이라 이름 붙였다. 세상의 표준에서 묘하게 비껴간 이 낯선 집은, 아이러니하게도 제도 바깥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로 한 두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안식처가 되었다.

네 마리 고양이의 집사로, 예술가로,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연인으로 살아가는 3개월 차 동거인들. 이들에게 가족이란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함께 고양이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고양이들을 위한 다리 텐트를 만들어주며 일상의 균열을 메워가며 좌충우돌하는 생의 궤적이다. 특히 연애 초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택시비에만 50만 원을 쏟아붓던 장미와 나은이 이제는 서로에게 "돈 좀 아껴 쓰자"며 현실을 일깨우는 풍경이라니.

"가족은 기세다." 나은의 이 호기로운 선언처럼, 카바레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두 사람의 솔직하고도 떠들썩한 안부를 함께 나누어 보았다.




n Down






CE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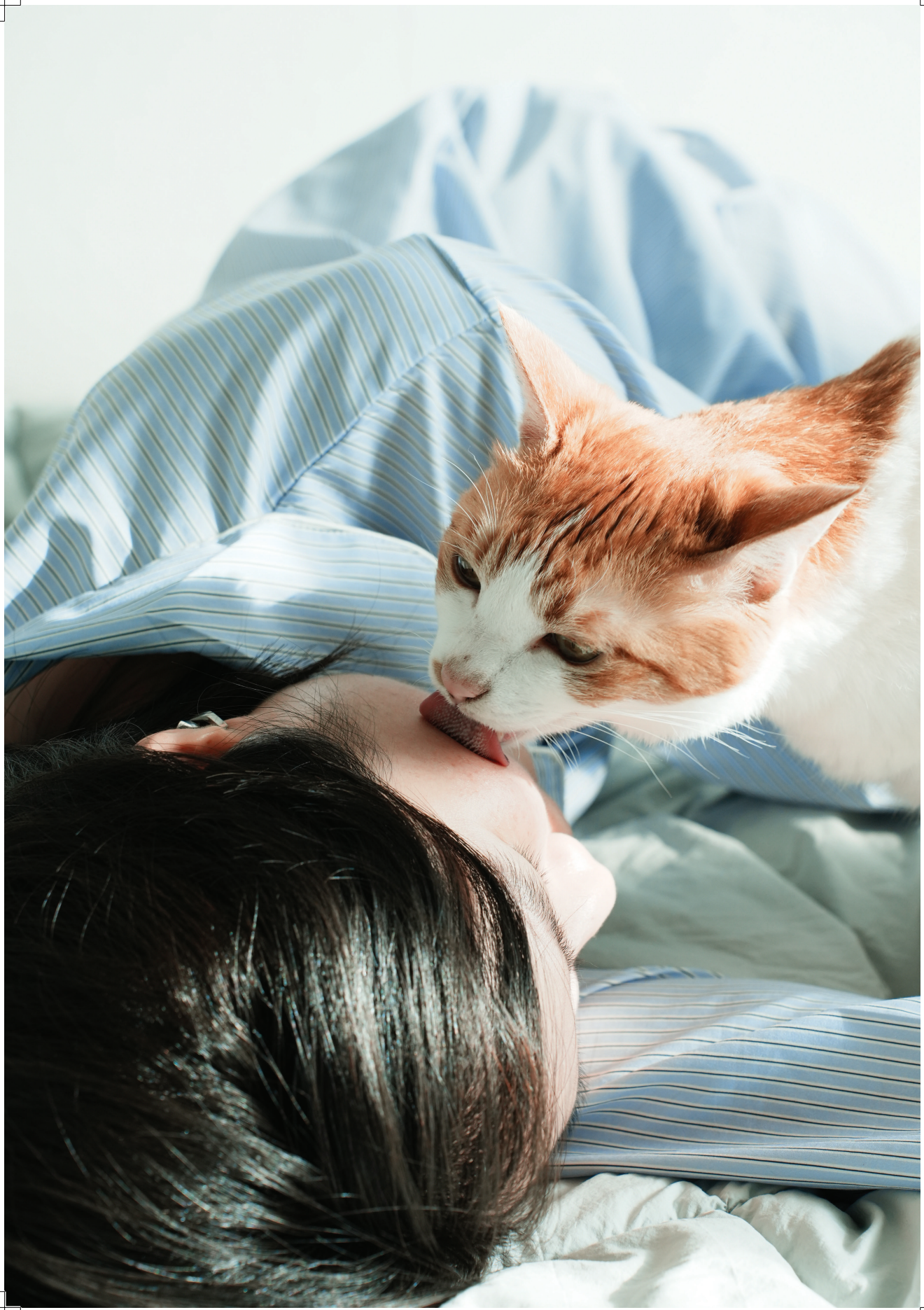





No One
Alone Carey














보행자전용도로









승연 우선 집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이 집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상가 건물 안에 있고, 밖에는 7080 단란주점 간판이 붙어 있고요. 천장은 목조로 되어 있고, 외벽도 일반적인 주택이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고요. 만약 제가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면… "피해야하는 집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은 근데 저는, 저희는 오히려 그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본 집이었거든요. 첫 번째 보자마자"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승연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나은 넓었어요. 이 가격대에서 이 사이즈의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장미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 것도 좋고, 밤에 그 단란주점 간판 깜빡이는 거 보셨잖아요. 주방에 주황색 파란색 불빛이 꽉 차요. 근데 처음에 집 보러 갔을 때는 블라인드 치고 있어서 전혀 몰랐어요. 낮이기도 했고요. 근데 알고 나서도 낭만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니, 그래도 여기 가정집인데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좀 그렇다 … 싶었어요. 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너무 좋다고 나은이가 막 춤추길래… 그런가 싶어서 좀 설득됐어요.

나은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잖아, 카바레처럼.

장미 자꾸 나은이가 재밌다, 좋다 하니까 저도 좋은가? 하고 약간 설득됐어요. 되게 좋아해요, 그 조명을 아직도.

나은 불 꺼놔도 뭔가 살아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불을 다 껐는데, 저 사람들이 빛을 내주고 있어요.

승연 저도 설득 되네요.

장미 가끔은 지하 1층에서 노래도 들려와요. 되게 좋아요.

나은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우렁찬 소리가 되게 즐거워 보여요. 목소리도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어.

승연 밤에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두 분은 언제부터 같이 사셨나요?

나은 사귄지는 3년 좀 넘었고 같이 산지는 3개월이 좀 넘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거의 장미 집에 얹혀서 하는 식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승연 3개월 같이 살아보시면서 어떠셨어요? 3개월이면 집에도 좀 적응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랑 이렇게 타인으로 같이 살아보는 것도 처음이니까요. 이제 "아 이 사람이랑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셨는지 궁금해요.

나은 사실 아직도 생활 양식에 맞춰가야 할 부분들은 많지만. 연애할 때도 장미 집에 거의 눌러앉아 지냈던 적이 있어서요, 장미랑 같이 지내는 일상 자체가 그냥 너무 익숙해요. 익숙하고, 뭔가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우리의 공간이 된 느낌이라 더 편한 것 같아요. 놀이 공간도 있고, 우리 애기들도 있고요. 고양이들 안고 같이 잘 때가 제일 좋아요.

승연 고양이들이 4마리 다 올라와요?

나은 그럼요. 이게 항상 케바케인데, 애들도 침대를 좋아해서 네 마리 다 올라오면 좁으니까 한 마리씩 빠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가끔 네 마리가 동시에 다 올라와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행복해요.

승연 그러면 누워 있으면, 고양이들이 각각 어디에 자리 잡는 편이에요?

장미 선호하는 자리가 다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포리랑 고등어 남매는 보통 발치 쪽이나 몸통 쪽에 있고요. 유자는 꼭 나은이 옆에 껴안고 자요. 아니면 저희 사이에 딱 끼워져 있기도 하고요.

승연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마리는 같이 산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장미 원래는 제가 유자랑 포리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 집 근처에서 꼬물이 두 마리를 주워왔어요. 그게 표고랑 타리예요. 처음에는

유자가 엄청 싫어해서 퍽 소리 나게 때려가지고 애들이 막 굴러가고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포리는 그나마 나이가 좀 있었어요. 한 9살, 10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물어도 "허허…" 이러고 있었는데, 유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팼어요.

승연 언제부터 안 패기 시작했어요?

장미 지금도 패요. 지금도 시도는 계속해요. 표고가 그렇게 커졌는데도요. 타리가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자를 패요. 어렸을 때 미움이 좀 쌓였나 봐요.

승연 두 마리 살 때랑 네 마리 살 때랑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특히 눈에 들어와요? 이게 진짜 자식들이 늘어난 거 잖아요, 그만큼 관계나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장미 약간 자식 다 키워놨더니 또 애기가 나오는 느낌. 포리는 이제 저랑 거의 말이 통하거든요. 그냥 걔가 "왕" 하면 뭘 원하는지 알고, 제가 누워 있을 때 "왕" 하면 다리 텐트 만들어주면 그냥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의사소통이 된 느낌이에요. 유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가 와서 "왕" 하면 "오케이, 이거구나" 하고 바로 되는데… 근데 이 애기들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승연 외국인이네.

장미 외국인 맞아요. 아직 한글을 안 뗀 느낌이고, 사고도 많이 치고요. 다시 아기 키우는 느낌이에요. 근데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아기가 오면 활기차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나은이랑 다시 육아하는 느낌도 나요. 힘들어도 좋긴 했어요. 왜냐하면 독박 육아를 제가 1년 했으니까요.

나은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장미 처음 데려왔을 때 저희가 임보하려다가 너무 정이 들어버렸는데, 그때 제가 현실적으로 "네 마리는 좀 오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있으니까, 제가 결국 케어를 다 하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나은이는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냐" 했더니, 자기는 데려오면 잘 케어하겠다고, 집도 자주 오겠다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멘탈이 나갔어요. 완전 육아에 지쳐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 왜 데려오자고 했냐" 이런 하기도 하고고요. 오줌은 가치우기도 힘든데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정병이 제대로 와서… 독박 육아하니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느낌이 있었어요. 산후우울증 같은 게 왜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나은 하필 그 시기가 제가 장편 영화 촬영 들어갔을 때였어요. 지방 촬영으로 2주 동안 나가 있고, 서울 돌아와도 바로 사무실 출근해서 다음 촬영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데요. 장미도 바쁘고, 독박 육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화로 얘기하면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오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결심이었어요. "그러면 같이 살면 그래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같이 살면서 지금은 제가 똥도 다 치우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어요.

장미 다들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초반이었나, 아니면 계약하고 나서였나, 나은이한테 "왜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좀 더 귀여운 대답을 기대했거든요. "같이 있고 싶어서", "좋아서" 이런 거요. 근데 고양이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가지를 긁어서 같이 살게 됐대요. 그 얘기 듣고 좀 당황했죠. "아 현실적인 이유였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은 같이 살지 않으면, 실은 제가 같이 사는 것만큼 걔네들을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승연 그게 동거를 좀 빨리 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던 것 같네요.

나은 네, 실은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도 동거를 좀 더 늦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을 다니는 입장이 아니어서 돈이 넉

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각자 생활하면서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게 우선이었을 거예요. 고양이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캥거루족으로 살면서 더 돈을 모으는 게 우선순위였겠죠.

승연 현실적이라서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나은 처음 장미를 만났을 때는 한참 외로웠던 시기였어요. 4년 전쯤인데, 그때가 전 연인과 헤어진 지 거의 1년 정도 지나가던 때였고. 그때가 되게 외로운 시기잖아요.

승연 그렇죠, 외롭죠. 연애를 충분히 쉬기도 한 그런 시기.

나은 그래서 미친 듯이 제 외로움을 달래려고 조이(레즈비언 데이팅 어플)에 들어갔어요. 스와이프를 열심히 하고 다녔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 신조는 하나였어요. 절대 먼저 말을 걸지는 않는다.

승연 어려운데요. 어플에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

나은 먼저 말은 안 건다. 근데 정말 말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글이라든지 사진, 이런 게 마음에 꽂히면, 한 번쯤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장미는 사진이 좋았어요. 예뻤죠.

장미 글은 뭐 딱히 안 써둔 거 같은데.

나은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을 안 걸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롭잖아요. 조이 써보셨어요?

승연 당연히 써봤죠. 그 공허한 어플 데이팅 시스템.

나은 써보시면 알잖아요. 대화한 이후에 그 공허함이… 그 공허함이 미치겠는 거예요. 잘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 얘기를 해도 툭툭 끊기고 재미도 없고요. 일상적인 질문 주고받는 것도 다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지고, 계속 그렇게만 있는 거죠. 근데 또 새벽에, 제가 그때 눈물이 좀 많은 시기였는데 혼술도 하고 조이도 보고 그러다가 어느 새벽에 너무 외로워서 제가 좋아요를 했던 사람들 히스토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거 거기서 "이 중에서 내가 말 안 걸면 아쉬울 것 같은 사람들"만 한 번씩 쭉 보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에게 메세지를 보냈어요.

승연 선거 유세냐구요. 와, 근데 너무 운명적이다. 그 안에 장미님이 만약 없었다면.

나은 그렇게 많이 보내진 않았어요. 5명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장미 엄선된 리스트가 있네.

나은 정말 글이 마음에 든다거나, 아니면 외모가 정말 내 스타일이라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보냈고 장미는 답이 없었어요.

장미 아니요, 그냥 조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임라인을 보면, 5월쯤에 저희가 서로 좋아요를 눌렀던 거고, 근데 둘 다 따로 인사를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그냥 애인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친구랑 딱 5월부터 11월까지 사귄 거예요. 깨지고 나서 금방 다시 조이에 들어갔고요. 근데 8월에 온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장이 안 올 줄 알았어요. 텀이 너무 길잖아요, 이미 11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보냈는데, 그거에 답장이 온 거예요. 3개월 텀을 두고요. 그래서 "만나자" 했더니 "동네 친구나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때 사는 동네가 진짜 가까웠거든요. 저도 원래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연락하면 스스로 너무 노잼 같고 "나라도 나 안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헤어진 지 2주도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연애할 생각은 아직 없고, 그냥 친구 만나듯이 만나보자" 이런 느낌으로 만나러 갔죠.

나은 빠르게 별 대화 안 하고 만났었던 것 같아요.

승연 재미 있었어요?

장미 재미 없었어요. 진짜 재미 없었어.

승연 장미님이 질문도 별로 안 하셨다고.

나은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궁금

한가? 그래서 반대로 장미가 궁금하긴 했어요. 말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요. 근데 말을 해도 신변잡기 같은 말, 되게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말 같은 느낌의 말을 했어요. 시시껄렁한 얘기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뭘까, 왜 이런 얘기밖에 안 할까" 싶었어요.

승연 근데 저녁에 만났는데 아침 5시까지 술을 마셨다면서요. 얼굴이 재밌었어요?

나은 네, 얼굴이 재밌었어요.

장미 아니, 그게 왜 그랬는지 기억날 것 같아요. 원래 오프하면 솔직히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승연 애인으로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장미 그건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 거의 알잖아요. 인사만 해도. 근데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 가능"이었고, 제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 만들어야지" 하고 나온 건데, 속으로는 "너는 내 타입인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부러 그런 질문은 절대 안 했어요. "이상형이 뭐예요?" 이런 거 하면 너무 티 나는 것 같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까만 마음으로 나온 것 처럼 보일까봐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질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승연 뚝딱 됐군요.

장미 네 그래요.

승연 하지만 얼굴이 재미있어서 새벽 5시까지 술을 먹었군요. 그다음 날에 무슨 생각했어요?

나은 장미가 좀 궁금하다. 근데 장미가 이날 술 먹고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거 때문에 가게에 계속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장미 산 지 2~3주밖에 안 된 지갑.

승연 안에 돈도 많았어요?

장비 지갑이 40만 원짜리였고요. 키링도 10만 원짜리, 나름 신경 써서 세트처럼 예쁘게 맞춰놨던 거고, 안에 현금도 한 15만 원인가 들어 있었고요. 아무튼 그날 총 한 70만 원을 그냥 날린 거예요. 여자 만나다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았는데, 결국 못 찾았고요. 저는 그 슬픔 속에서도 "이 사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갑 얘기하면서는 또 너무 슬퍼하고… 되게 이상한 하루였어요. 저희가 헤어질 때쯤엔 이미 둘 다 엄청 취해 있었고요.

나은 맞아.

장미 제가 나은이 뒷모습을 딱 봤는데, 팔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전 그 정도로 취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걱정이 돼서요. 지금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잘 가나 보려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따라갔어요. 호감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롯데리아 24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멀쩡한지만 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어 갔어요. 근데 안에서는 당연히 얘가 저를 보고 "나 따라왔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나은 내 입장에서 말해볼게. 저는 술 먹으면 배고파지는 스타일이에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먹고 혼자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장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 간다며? 날 왜 따라왔지?" 딱, "나 좋아하나?" 싶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플러팅을 해봤어요. "뭐야, 저 좋아해요? 왜 따라왔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장미가 막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런 반응이요.

장미 아, 좀 찔려서 저도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저도 "나도 그냥 배고파서 왔다" 그랬죠.

나은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처음부터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없구나.

장미 그 뒤로 계속 연락했어요. 연락을 막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도, 되게 안 끊기고 거의 한 달 정도는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 사이에 제가 고백 같은 말을 하기도 해서, 그 얘기하고 다음 날 대학원 친구들한테 가서 "나 어제 또 걔랑 술 마셨는데… 나 어제 고백도 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승연 무슨 말이었는데요? 아, 흥미진진해. 너무 궁금해요.

장미 "나 요즘 되게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친구로도 앞으로 못 지내는 거니까 그게 너무 아까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나은 어때요? 이거 들으면.

승연 다른 여자를 좋아하나? 너무 혼란스러워.

나은 저는 "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보통은 "난 너랑 친구로서 더 좋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 알아서 멀어져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승연 이거 잠깐 다시 시뮬레이션해 보죠. 맞아요, 너무 애둘러 거절하는 것 같아요.

나은 전 거절이라고 봤어요. 이거는 진짜로요. "나한테 알아서 다가오지 말아줘, 나는 네가 좋지만 친구로서가 더 좋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승연 그럼 장미 님은 그 말을 한 의도가, 그걸 듣고 "아니, 우리 사귀자!"라고 박력 있게 고백해주길 바란 거예요?

장미 진짜 의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일본 사진 스티커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순간 떠올랐던 말이었거든요.

승연 진짜 INFP의 엉뚱함 같아요. 그러면 이건 고백이라기보다 그냥 생각을 말한 거네요.

장미 "날씨 좋다", "맛있다", "춥다" 이런 것처럼 "나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을 말한 거였어요.

나은 그렇게 몇 번 더 삽질하다가 드디어 사귄거죠.

승연 아, 너무 재밌어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삽질을 하게 될까요. 근데 그 과정이 또 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백합 만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동거를 결심하게 됐어요?

장미 근데 한 번에 결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연차가 지날수록 뭔가 "다음 단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초반에는 오히려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제 같이 살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1년쯤 됐을 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같이 살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크게 싸우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단계를 몇 번 낮춘 적이 있어요. "아, 이제는 같이 못 살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꽤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상태까지 서로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많이 싸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뭐랄까… 완전한 신뢰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버틸 수 있는 감각 같은 게 생긴 거죠.

나은 같이 살 때 됐다, 약간 느낌.

승연 나은님 아까 전화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막 이불 보내준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부모님도 두 분의 연애 사실을 아세요?

나은 저는 알고 있는데, 장미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미 저희 엄마는 고추장이랑 된장 이런 걸 보내주세요.

승연 근데 어차피 이제는 같이 산 지 오래됐으니까, 딱히 그걸로 영향을 받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알든 말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장미 네, 그냥 당연히 모두 그렇겠지만 부모님과 사이가 나빴던 때도 있고 좋았던 때도 있는데요. 만약 되게 놀라거나 너무 싫어하시면, 각자의 인생을 살 준비는 되어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엄마가 해주는 게 고맙고, 반찬도 엄청 자주 보내주시거든요. 김치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아빠도 아빠대로 과일 같은 거 열심히 깎아서 갖다주시고, 그

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끝이다” 이런 오기라기보다는, 그냥 “아,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은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승연 그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장미 근데 저는 성 지향성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 빨랐어서, 사실 남들 얘기에 상처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남 얘기에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소심한 편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그냥 딱히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어차피 바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 지향성을 깨닫고 한 친구를 좋아하게 됐을 때도, “나 동성애자인가 봐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떡하지, 내일 어디서 마주치지” “내일 뭐 입고 가지” 이런 고민을 먼저 했었거든요. 전혀 디나이얼 기간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없었어요 당장 그냥 이 사람 좋아다니기가 바빠서 그래서 그때 디나이얼을 겪지 않았더니 나중에도 오지 않았어요.

승연 나중에도 오지 않았다는 말이 진짜 웃기다.

장미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아요. 겪었어야 하는데 못 겪었어요.

승연 그 이후로 계속 오픈으로 살고 계신건가요?

장미 네, 중간에 그냥 아웃팅도 좀 크게 당했었고, 그때는 좀 되게 힘들어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아웃팅 때문에 약간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까발려졌으면 내가 먼저 말하겠다”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그냥 더 자연스럽게, “아 저 방금 여자친구랑 밥 먹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승연 우리가 서로 알게 된 것도 장미님의 레즈비언 동양화 워크숍에서 된 거잖아요. 동양화 쪽에서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분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이 마음의 기저에 뭐가 있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두 분은 결혼 생각이 있으세요?

나은 결혼, 그러니까 제도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어요. 결혼이라는 게 퍼포먼스적인 것도 있고 제도적인 것도 있잖아요. 제도적인 결혼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어요. 빨리 법적으로 묶여야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도 조금 더 안정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결혼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장미 저도 이 얘기를 저번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제도적인 게 없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년 전쯤에요.

나은 맞아요. 그 제도적인 결혼이 돼야 그게 결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허울뿐인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공표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관계를 알리는 것. 1순위는 그래도 제도적인 거예요.

승연 이 가족사진이 어느정도 공표의 역할을 했으면 해요. 가족사진 찍으면서 어떠셨어요?

장미 너무 행복했어요.

나은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정식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가족사진 찍으니까 가족이고.

승연 저희가 증인 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인 거 저희가 봤어요” 이런 느낌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인 추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되게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되는 것 같아요.

장미 약간 기세로, “가족은 기세다” 이런 느낌으로 나은이가 선포하고 싶다 했는데요. 저는 이게 좀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나은 “선포”라는 표현이 맞나… 결혼하면 공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선포는 너무 도전적인 것 같기도.

승연 그만큼의 기세라는 거죠. 근데 그 기세로의 첫 번째로서 가족사진이 된 거네요.

나은 근데 진짜 행복했어요. 저도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결과물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SNS에 올렸을 때, 내가 굳이 다 오픈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 여자 만나요" 이렇게 다 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다들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런 반응을 해주는 게 되게 축하받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장미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

나은 정말 좋아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승연 이 사진이 그런 역할을 해서 너무 기쁘네요. 동거 생활에 있어서 목표라든가, 우리 집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장미 저는 일단 각자 작업적으로 잘 풀리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가 서로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요. 사람으로서 사이도 좋고 그래야겠지만, 각자 일이 잘 돼야 가정이 행복할 것 같고요.

나은 응 맞아요. 각자의 인생이 행복해야 서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미 불행한 개인 둘이 모여서는 그냥 불행한 집이 되어버리니까요.

나은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계속 더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걸 크게 연습해보지 않다가, 이제는 우리도 앞으로 미래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다 싶어요. 저도 30대이고 아직 학생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불분명한 상태이고요. 장미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한 집을 유지하자, 이런 것들도요.

장미 남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미술해요, 제 애인은 영화해요" 이러면 다들 와 멋있다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전혀 다른 뜻으로, 둘 다 그냥 각자 변변치 않게 밀어놓고 사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둘 다 상업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더 크고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같이 좀 가라앉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 회사원이면 현실 감각을 좀 더 일깨워주고 "그래도 평균 이만큼은 벌었어" 이런 기준이 생길 텐데, 그게 또 좇길 필요는 없지만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나은 인터뷰와는 다른 얘기인데, 요즘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얘기라기보다, 레즈비언들의 평균 소득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봐도 특히 레즈비언 커플이나 동거인들의 소득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임금 차별이 있는 사회라서 여성-여성 커플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지만, 그래도요.

승연 레즈비언들이 임금 소득이 낮은데, 돈을 너무 잘 써요.

나은 맞아요, 서로에게 돈을 너무 잘 써요. 진짜 중요한 얘기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낭만에 취해서 현실을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장미랑 연애 초반에는 택시비를 50만 원씩 썼지만…

승연 내가 여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밝은 거다.

장미 저분이 제일 위험하신 거 같은데, 제일 위험군.

나은 여자는 밝은데, 우리의 직업은 밝지 않다. 우리의 처지를 좀 알아야 된다.

승연 그래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한 얘기야.

나은 그냥 여자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여자라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의 처지는 그렇게 단순하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낭만에만 취해 있지 말고요. 꼭 전해주세요.

승연 이거 꼭 쓸게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장미 저도 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오픈이 됐나 싶더라고요. 좀 흔한 말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받은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그걸 가져가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미 안에서 받은 게 너무 커서, 밖에서 뭐라고 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요.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은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편하게 오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되게 퀴어-페미니스트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외부 프로덕션에서 잠깐 일했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느꼈던 게, "아 내가 만약에 계속 그런 사회에만 있었으면 오픈이 되지 못했겠구나"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느냐인 것 같아요. 오픈을 못 하는 걸 두고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사실 나은과 장미의 이야기를 한 번의 만남으로 다 담아내기는 무리였다. 첫날, 촬영을 마치고 장미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우리는 인터뷰의 목적을 잊고 그저 신나게 웃고 떠들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 인터뷰를 목적으로 한 번 더 마주 앉았다.

누군가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귀 기울이는 일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의 애틋함을 알아보고 그 가족됨을 곁에서 기꺼이 응원하겠다는 나만의 방식이다. 두 번의 만남 동안 함께 맛본 음식과 술잔 너머로 오간 두 사람의 서툰 시행착오의 연애담과 인생의 역사는, 낭만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깊어진 이들만의 가족 서사가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느냐가 삶을 만든다"는 나은의 말처럼, 장미와 나은은 두 사람만의 든든한 울타리를 스스로 짓고 있었다. 낭만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 스스로 탕진의 역사를 가졌기에 더욱 뼈아프고 다정한, 두 사람의 당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다.

"여자들아, 낭만에 취해 현실을 버리지는 말자.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만의 낭만은 끝내 포기하지 말자."

(장미와 나은 2026.5.16)





민희와 이현

캐나다라는 모자이크 안에서 가족을 조립하기

한국의 퀴어 여성들 사이에는 오랜 도시 괴담처럼 떠도는 로망이 하나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해외로 떠나고, 그곳에서 차별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게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캐나다 밴쿠버에 정착해 4년째 살고 있는 민희와 이현 커플을 보면, 누군가는 그 로망이 완벽히 실현된 모습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도착점이라기보다 계속해서 갱신되는 질문에 가깝다. 이방의 나라에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퀴어로서의 자리를 매번 다시 놓고, 다시 배치하며 살아온 시간.

민희와 이현은 두 사람의 울타리를 넓혀간다. 밴쿠버에 있는 한인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위해 정기적으로 '가족 통신문'을 발행하며, 밴쿠버라는 비어 있는 공간을 자신들만의 색채로 채워가고 있다. 때로는 아이를 함께 기르는 미래를 꿈꾸며, 때로는 서로의 일상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곁을 내어주는 일. 여기, 누구보다 명랑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사실 이 인터뷰와 촬영은 아주 개인적인 반가움과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영화 유학을 위해 떠났던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외노자' 시절, 그 막막한 공허함 속에서 우연히 민희와 이현을 만났다. 놀랍게도 이현은 내가 스무 살 무렵 페미니즘 동아리를 함께했던 친구였다. 타국에서 6년만에 재회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친구로서 어울리며, 또 다른 한인 레즈비언들과 연결되어 느슨한 커뮤니티를 꾸려 지냈다.

함께 밥상을 차리고, 서로의 일상을 살피며 버텼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낯선 땅에서 같은 정서와 언어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가 되어주었던 그 연대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지 말이다. 이 인터뷰는 나의 친구들이자 동료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사적인 연대기이다.


18
INTERSTATE
BATT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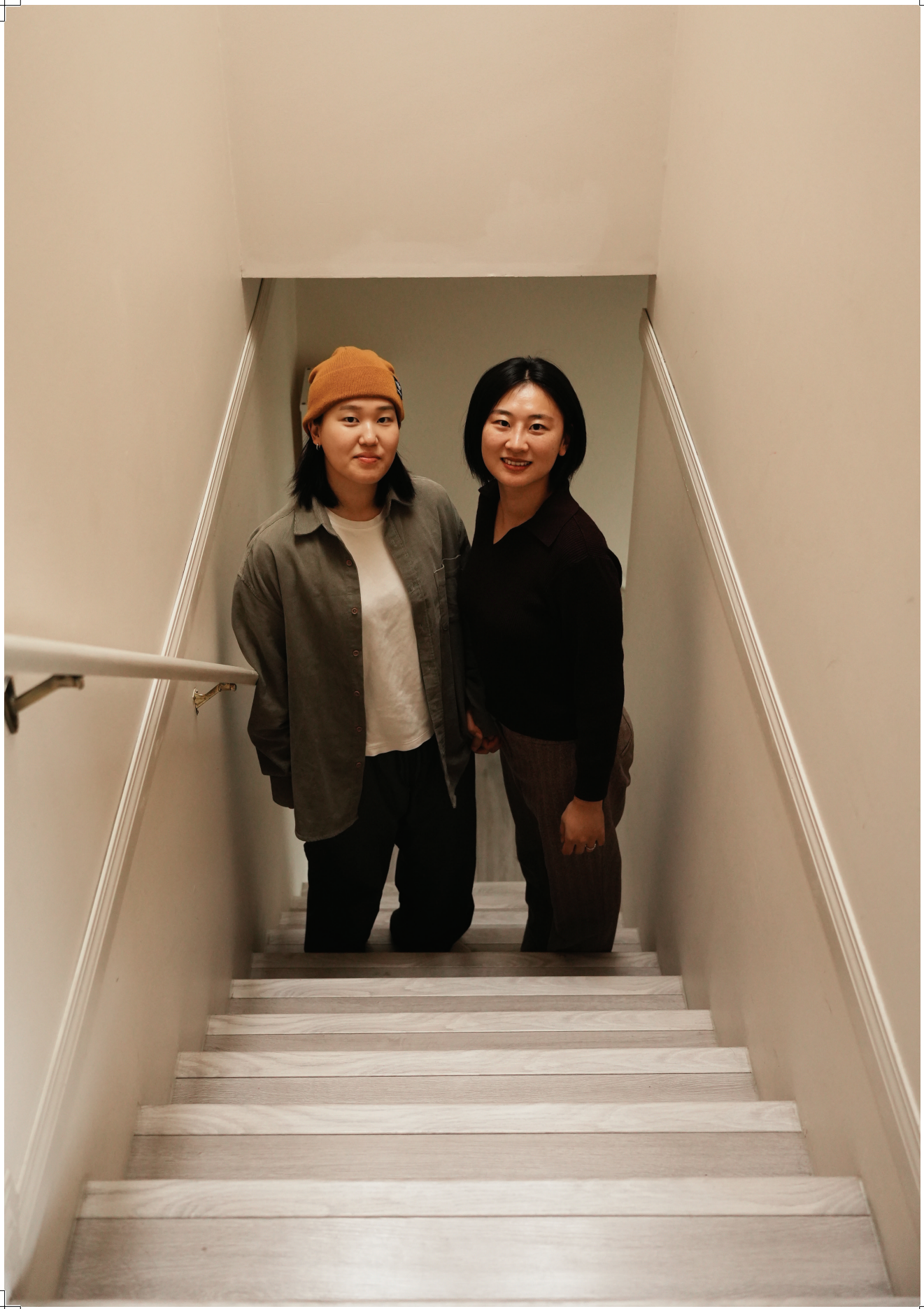



PASSE COUTEE


adidas










4862
INTERSTATE BATTERIES

승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민희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나다 밴쿠버에 4년째 살고 있는 레즈비언 김민희.

이현 김이현 입니다. 저는 레즈비언 아니고 바이예요.

민희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현 바이 가시화.

민희 중요하지. 레즈비언 및 바이 커플.

승연 레즈비언 및 바이 커플, 민희님 그리고 이현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다 캐나다 밴쿠버에 산 지 4년 정도 되셨잖아요. 근데 한국 퀴어 여성들 사이에는 늘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 해외로 떠나고, 거기서 함께 살아가며 동성 결혼을 하는 삶. 마치 오래된 도시 괴담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요. 처음 두 분을 봤을 때 저는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든 커플" 같다고 느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캐나다 행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이현 저희는 여기 와서 만나는 케이스라서, 사실 각자 도생하려고 여기 왔다가 우연히 서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나가서 만나서 같이 결혼하자" 이런 로망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걸 중심으로 여기 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희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오래 연애하다가 같이 밴쿠버에 정착한 레즈비언 커플들이 꽤 많거든요. 최소 4~5년 정도 만나고 넘어온 경우도 많고요. 근데 밴쿠버에 와서 만나 연인이 된 커플은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밴쿠버 레즈비언들을 위한 소식지 <가족 통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밴쿠버 레즈비언 커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취재했으니 그것도 참고해주세요.

승연 너무 재밌겠어요. 가족 통신문 얘기는 이따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 두 분이 4년 전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캐나다로 오게 되셨는지 각자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현 저는 대학생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때 해외 생활이 저랑 너무 잘 맞았거든요. 그 해방감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감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캐나다 처음 올 때부터 저는 영주권을 생각하고 왔었고요. 워킹 홀리데이부터 시작해서 영주권 따기 위해 준비를 계속 했고, 운 좋게 비교적 빠르게 딴 케이스예요.

민희 캐나다라는 나라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 호주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이현 나는 사실 미국이 마음에 들었는데. 총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무서워서 캐나다로 왔어요. 캐나다는 그냥 착한 미국 같은 느낌.

민희 착하고 가난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4년 전에는 대학을 칼같이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으로 3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평생 똑같은 일만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네이버를 보는데, 유치원 교사로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딸 수 있다는 걸 보고 마음을 빨리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만두고 바로 준비해야겠다" 해서 퇴사하고 여기로 온 케이스입니다.

승연 두 분 다 캐나다 행을 결정했을 때, 사실 삶의 모양을 크게 바꾸는 결정이잖아요. 그때 불안도 있었을 텐데, "이게 맞다"는 감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민희 맞다는 감각은 없었고, 저는 항상 제 선택에 후회는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오게 되면 계속 "그럼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유 없이 "아 그냥 가야겠다"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여기가 맞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살아간다"는 감각? 뭔가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해야 된다"라는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현 저도 약간 목표를 하나 정하면 그걸 달성할 때까지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일단 "영주권 따는 게 목표다" 해서 온 거니까, 그거 딸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일만 했고요. 그 과정에서 크게 힘들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승연 참고가 되네요. 캐나다에 왜 그렇게 잘 적응하게 되었는지. 근데 막상 캐나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어땠어요?

민희 저는 도착하자마자 "아,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기댈 데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요. 물론 완전히 자유롭긴 한데, 동시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확 느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는구나.

이현 그래서 그렇게 만남 어플을 돌렸어?

민희 아니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였죠. (정색) 네트워킹 하려고. 이현은 어땠어요?

이현 저는 캐나다 처음 와서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는 집주인 때문에 고생하고, 일하면서는 일터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고, 또 온갖 한국 사람들한테도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좀 크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한국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였거든요. 한국의 그런 각박한 분위기에서 좀 떨어지고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서도 내가 아닌 사람인 척하면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래서 나는 영주권 따면 무조건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승연 오히려 영주권이라는 목표에 대한 열망이 좀 더 커졌어?

이현 약간 그런거야.

승연 그전까지는 "일단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밴쿠버가 워킹홀리데이 성지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한국인들이 모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관계 맺고 싶은 사람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거기서는 다시 야생에 던져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또 다른 작은 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감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현타를 많이 느꼈는데, 그 경험이 오히려 더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싶다는 마음의 촉발제가 되었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래서 민희는 어플은 왜 돌리기 시작했나요?

민희 저는 그냥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을 사귈 때는 공통점이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나는 퀴어니까 퀴어 친구를 만나야겠다"였던 것 같아요.

이현 맞는 말이야, 나도 친구 사귀려고 했어. 나도 친구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승연 그럼 틴더를 돌린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조이 (레즈비언 데이팅 앱)? 조이가 원래 외국 꺼죠?

민희 맞아, 외국 어플일 거야.

승연 소개에 뭐라고 했어요? 암 코리안, 루킹 포 LGBTQ 이랬어요? 기억나요?

민희 아니, 그냥 뭐 사진 올리고. 루킹 포 프렌즈. 이렇게.

승연 상대방이 코리안인 거 어떻게 알아요?

민희 왜냐하면 한국인은 그냥 한국인끼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삘이 와요.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본인 얼굴을 잘 안 올리거든요. 어플 보면 일부러 풍경 사진 올리고, 고양이 사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백발백중 한국인이더라고요.

이현 왜, 나 셀카 올렸는데.

민희 넌 셀카 올렸는데 이름이 현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한국인인 걸 알았지.

승연 그럼 민희는 어떻게 올렸어 이현아?

이현 나는 기억 안 나.

승연 민희는 알지?

민희 나는 민희라고 올렸을 거야.

이현 나는 어플을 너처럼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어.

민희 난 하루 종일 들여다봤어.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이게 어플을 하는 사람이면 느끼겠지만 이게 깔았다가 지웠다가 깔았다가 현타 와서 지웠다가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대다수의 얼굴을 눈에 익혔고 그래서 이현이의 얼굴을 기억하게 됐어요.

승연 그 때 매칭이 된 거예요? 라이크를 해서?

민희 그렇게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얘기하자면 긴데, 이현이가 먼저 밴쿠버에 와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제가 그 포스팅을 보고 되게 밴쿠버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웃 신청을 하고 저도 밴쿠버에 곧 갑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 근데 이제 얘가 입국 후기 쓰고 사라진 거야. 1년 동안 글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동안 나는 꾸준히 블로그를 쓰고 있었고.

승연 이현이는 일 하느라 아무것도 못 올린 거야?

이현 맞아.

민희 근데 연말에 이현이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연말 결산 같은 포스팅이었을 거예요. 그 글에 "내년 목표: 친구 많이 사귀기" 이런 식으로 써있어서 거의 댓글로 자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락해야 되니까 "혹시 인스타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고 들어갔는데, 이현이가 원래 인스타에 절대 셀카 안 올리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연말이라서 스토리에 셀카를 올린 거예요. 근데 눌러보니까, 조이에서 봤던 그 얼굴이 딱 있는 거죠.

승연 진짜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 그리고 약간 민희 취향이었어요?

민희 뭐, 당연하죠. 원래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건데, 막상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니까 '나는 네가 퀴어인 거 알고, 나도 퀴어다'라는 걸 빨리 밝혀야겠더라고요. 늦게 말할수록 뭔가 이상하고 음침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얼굴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어플에서 많이 봤어요'라고 선수부터 쳤죠. 근데 차마 무슨 어플이라고는 말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약간 부끄러웠거든. 그래도 퀴어 토크는 하고 싶으니까 계속 성 지향성에 대해 묻기도 하면서 좀 수상하게 대화를 이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답답했는지 이현이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대체 무슨 어플을 말하는 건데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조이요…' 라고 말했지.

이현 아니, 처음에 초면인데 보자마자 나한테 "어플에서 많이 봤다" 이래서 나는 블로그 어플 얘기하는 줄 알았어. 얘가 계속 나에 대해 아는 사람처럼 얘기했거든. 그래서 진짜 핸드폰 보여주면서 "어디서 봤는데요?" 이랬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조이였던 거지. 나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얼굴을 그냥 달달 외워놓은 거였고. 사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서로 알아가는 정도였는데, 나는 오히려 서로 관심 없는 줄 알았어. 왜냐면 진짜 민희가 정적이 3초만 생겨도 "집에 갈까요?" 이랬거든.

승연 왜 그랬어?

민희 아니, 왜냐하면 나는 그때 정적을 견디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

승연 너무 이해돼. 이해돼. 광대로써. 그 사람이 불편할까 봐.

민희 그리고 이현이가 말을 계속 하는 편이 아니잖아.

승연 이제는 알지.

민희 그때 나는 잘 모르니까, "내가 재미없어서 말이 없는 건가? 아니면 집에 가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이현 내 입장에서는 민희랑 대화를 하는데, "다른 친구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길래 내가 "그럼 언제 괜찮으세요?" 했거든. 그랬

더니 민희가 “그때 가서 봐요” 이러는 거야.

승연 아니 그건 또 뭐야?

민희 아니, 그냥 약간 충청도 사람들 약속 잡는 특징이야. “언제 볼래?” 하면 “나중에 한 번 시간 봐서 연락할게” 이런 느낌.

승연 웃겨, 여기서 또 충청도 지역성이 나오네.

이현 그래서 나는 “아 우리는 호감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진짜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지. 나는 사실 그때 다시는 못 보게 될 줄 알았어. 너무 빼길래. 근데 며칠 뒤에 내가 혼자 영화를 보고 왔거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혼자 봐요?” 이러면서.

민희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만나고 버스 타고 오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는데. 얘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약간 “와이프 메테리얼”인 거지.

승연 어떤 점이 좋았어?

민희 그냥 되게 건실하고 믿을 만하고, 사람이 성실해 보이는 느낌이었어. 진짜 약간 결혼 상대감이었지.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구애를 했어. 구애하면서 “아, 결혼 전제로 만나보자. 연애만 하는 거 나는 싫다” 이렇게.

승연 진짜로? 몇 번째 만남부터?

민희 얼마 안 됐어, 한 3주?

승연 그 사이에 몇 번이나 만났는데?

민희 되게 자주 만났어. 일주일에 한 세 번.

승연 왜? 그냥 친구가 되기 위해서?

민희 아니.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많이 만났지. 나는.

승연 근데 이현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나를 친구로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들어하는 건지 언제 알았어?

이현 나는 계속 몰랐어. 그냥 “아 친구 생겨서 좋다”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맨날 같이 놀고. “아 얘 진짜 심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문자하다가, 나는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근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빵빵 터지는 거야, 민희가. 그래서 내가 “제가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이랬더니, 갑자기 민희가 “좋아하니까 웃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민희 그래서 이현이가 당황해서 “그러면 잠깐 전화 좀 할까요?” 이렇게 했고, 그때 전화하면서 마음을 고백하고 진전이 됐죠.

승연 근데 원래 민희는 그렇게 불도저처럼 고백하는 스타일이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생각 안 하고?

민희 나는 약간 밀당을 잘 못해.

승연 답답해? 충청도 사람이라며. (충청도 사람이 더 답답할거라는 편견)

민희 아니, 그냥 내가 잘 참는 걸 못해.

승연 근데 이현이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했을 것 같아.

이현 나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 사람 대체 뭐야? 근데 자꾸 막 생각나. 근데 이제 너무 급해.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민희 시간을 달라고 했어, 이현이는.

이현 그러고서 곧바로 내가 한국을 갔다 와야 됐어. 한 한 달 정도?

승연 또 타이밍이 그랬네.

이현 근데 민희가 그 한 달 동안 나한테 엄청 정성스럽게 구애를 하는 거야.

승연 그때 결혼 전제로 만나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야? 사귀지도 않았는데? 진짜 80년대 남녀처럼? 진짜 웃기는데 되게 매력 있었을 것 같아. 민희가.

이현 진짜 되게 매력 있었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계속.

승연 자꾸 생각났을 것 같아.

민희 내가 "만 불 주면 저랑 결혼해 주실 거예요?" 이랬어. "저 영주권 따야 돼요" 이러면서.

이현 그리고 내가 한국 가 있는 동안, 내가 별점 5점 줬던 영화들 다 보고 리뷰도 써주고, 하루에 한 번씩 내 블로그 들어와서 글도 남겨주고 그랬어. 민희가 원래 밤 10시면 무조건 자야 되잖아. 근데 밤새서 나랑 전화도 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 그러다가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랑 있다가 다시 여기 오니까 또 혼자가 된 거야. 근데 민희가 공항에 나를 데리러 왔어. 그 외로운 순간을 민희가 딱 파고 들어가지고.

민희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귀자" 이런 말 할 새도 없이 그냥 동거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지.

승연 그럼 동거는 얼마 만에 결정된 거야?

민희 1월 2일에 만났고 우리가 4월 1일부터 같이 살았어.

승연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랑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어땠어?

민희 그래서 엄청 싸웠지. 왜냐하면 관계가 얼마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도 내 삶의 방식이 있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방식이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승연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기 시작했어?

민희 진짜 싸웠어. 냅다 싸웠어. 우리도 잘 싸우는 방법 안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냥 냅다 싸우고, 냅다 말 안 하고 있다가 3일 정도 그냥 서로 안 보고 지내고, 그러다 또 엉엉 울면서 싸우고, 집 나가고… 그런 고난이 있었어.

승연 냅다 싸우면서 또 어떻게 냅다 화해했어?

민희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현 웃게 해주는 게 결국 화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냥 막 싸우다가도 갑자기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둘 다 자존심이 세서 절대 먼저 안 봐주는데 상대가 갑자기 애교를 부리면 "아 진짜 얘가 지금 노력하긴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풀리게 되는 것 같아.

민희 맞아, 그런 걸로 화해하는 것 같아.

승연 또 둘이 동갑이잖아.

민희 그러니까, 둘 다 그리고 장녀라서 진짜 막 난리도 아니야.

승연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쭉 같이 살고 있는 거고. 어때? 요즘 캐나다 삶은, 이렇게 3~4년 살아보니까.

민희 요새 삶이 어떻다고 말하기가 애매할 만큼, 그냥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 한국에서도 "삶이 어때?" 하면 사실 "그냥 뭐… 살면 살지" 이런 느낌이잖아. 너무 적응해버리면 결국 그냥, 그냥 사는 거지.

이현 그리고 처음에는 둘이서만 살다가, 룸메 구해서 하우스 셰어도 하고, 아는 언니랑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둘이서만 살게 됐잖아. 그래서 요즘은 또 그 나름대로 "신혼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다시 둘만의 맛이 생긴 느낌.

승연 어쨌든 밴쿠버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집이라는 구성도 계속 바뀌잖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어때?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런 느낌이야?

이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그냥, 우리가 둘이서 처음 살던 집에서 거실을 셰어해준 거였어. 단기로, 워홀 처음 와서 임시 숙소 필요한 사람이나 일주일 정도 여행 오는 사람들이 잠깐 쓸 수 있게 방처럼 만들어서 해본 거지. 우리 나름대로 시도해본 건데, 어쨌든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 뭔가 우리가 둘이서 하나의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는 느낌.

민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

면서 우리 한계를 좀 넓혀보자는 거거든. 왜냐하면 계속 둘만 있으면, 특히 레즈비언 커플은 "섬 연애"처럼 되기 쉬우니까 결국 고이게 되잖아.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더 배울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바운더리를 계속 넓혀가면서.

이현 그리고 이게 그냥 네트워킹으로 친구 통해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집의 한 공간을 내어주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잠깐이라도 생활을 공유하게 되면 되게 내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유되게 되거든. 그래서 대화의 깊이도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냥 밖에서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관계랑은 확실히 다르게.

승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네, 주변에.

민희 그치, 많이 봤지. 물론 계속 킵 인 터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순간에 충실했던 것 같아.

이현 우리 집에 왔던 분을 우리가 한국 갔을 때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때 왔던 분 중에, 그 첫 번째 손님 기억나?

민희 고등학교 선생님, 우리랑 비슷한 나이대의 딸이 있었던 분.

이현 우리 어머니 또래였는데 혼자 여행 오신 거였어.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 우리 엄마도 혼자 어디 잘 못 가는데. 그런 분이랑 나눴던 대화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승연 이 얘기 사실 오늘 인터뷰에서 예상 못 했던 파트인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 나도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계속 집이랑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 밴쿠버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랑 부대끼며 살게 되잖아. 근데 너네는 그걸 그냥 버텨야 하는 환경으로만 보지 않고, 거기서 재밌는 점이나 배울 수 있는 걸 찾았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게 너네 관계의 활력이기도 한 것 같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결국 그런 태도 덕분에 만나게 된 거였잖아. 나 그때도 되게 고마웠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너네가 진짜 사람 자체를 흥미로워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

이현 우리도 당연히 여기서 오래 같이 있을 친구들을 사귀면 좋겠지. 왜냐면 잠깐 만났다가 떠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마음도 그렇고. 항상 끝이 있는 만남은 결국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또 그런 게 익숙해지면서, 여기서도 결국은 "이 순간에 진짜 충실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

승연 둘이만 잘 살아야 한다기보다, 둘이 더 잘 살아가기 위해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넓혀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가족 통신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나도 캐나다에 있었을 때 되게 많은 한국 레즈비언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모임 같은 게 형성됐잖아. 그 흐름이 결국 가족 통신문까지 이어진 건데,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해.

민희 일단 나는 밴쿠버에서 이렇게 어플을 계속 돌리면서 밴쿠버에 사는 한인 레즈비언 퀴어들을 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어. 이 사람을 다 알아보고 싶다.

승연 진짜 커뮤니티 디자이너네. 돌봄 공동체.

민희 물론 막 하나의 엄청 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계속 친구의 친구를 만나고 건너 건너 관계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모임 규모가 커졌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계속 만나고 싶어도 다 같이 자주 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 그래서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 기반으로 남을 수 있는 어떤 소식지 같은 걸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가족 통신문>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너도 한국 돌아가서 '오리집' 이랑 같이 지내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했잖아. 그때 마침 이현이가 한국 여행 갔다가 너 소개로 오리집에 같이 방문했을 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줬었거든. 그런 여러 경험들이 다 조금씩 섞여서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아.

승연 그동안 쌓아온 라포도 있었고, 이제는 캐나다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도 알게 됐고 주변에도 사람이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네.

이현 나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민희랑 처음 같이 한국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 되게 기억에 남아. 갑자기 민희가 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느꼈다는 거야. 그게 나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캐나다 돌아와서는 "나 없이도 친구들이랑 좀 더 놀아",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그래" 하면서 계속 연결될 수 있게 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그런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 가끔 한 번 만나고 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 다 비슷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것 같아. 나도 한국 갔다가 '오리집'에서 느낀 게 있었고, 그때 같이 갔던 밴쿠버 한인 레즈비언 친구들도 비슷한 감각을 느꼈던 것 같아. 다들 그런 공간이 주는 소속감이나 안정감 같은 걸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결국 각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감각들을 품고 있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가족 통신문>이라는 형태로 맞아떨어진 것 같아.

민희 그래서 약간 저희 슬로건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느슨하지만 언제든 비빌 수 있는 언덕" 같은 거. 꼭 계속 붙어 있고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언제든 기대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느낌?

이현 맞아. 뭔가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보다는, 필요할 때 언제든 연대감을 느끼고 싶으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냥 궁금하면 편하게 찾아오고, 연결될 수 있는 느낌으로.

승연 결국 너희만의, 진짜로 '오리집' 같은 보금자리 커뮤니티를 만들게 된 거네.

민희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물리적인 커뮤니티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해.

승연 아직은 온라인으로 존재하면서 소식을 나누는 정도로 시작한 거지. 지금 세 번째 발행까지 했나?

민희 세 번째 호를 발행했어.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승연이한테도 항상 종이 버전으로 꼭 보내줘야지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종이 버전이 진짜 오리지널이고, 이메일은 약간 부가적인 형태에 가까워서.

승연 그럼 종이는 어떻게 보내? 진짜 갖다 줘? 만나서? 디자인이랑 편집 같은 것도 너희가 다 하는 거지? 재밌어?

민희 재밌어. 왜냐하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이라서, 거의 잊을 만하면 다시 해야 되고, 또 귀찮아질 만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그런 리듬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 사실.

승연 그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보고 싶진 않아?

이현 그런 거를 할 인력이 없어.

승연 그렇구나. 오히려 이렇게 그냥 회원제 소식지 이런 느낌이 더 잘 맞는 거구나.

민희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 잘하는 구성원이 생기면 그분한테 맡겨서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런 종이, 인 퍼슨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승연 근데 그 점이 되게 캐나다 같기도 해. 뭔지 알지? 모든 게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속도는 느린데 이상하게 그 방식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 요즘은 다들 커뮤니티 디자인이나 로컬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더 빨리 퍼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싶어 하잖아. 파급력이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근데 사실 나는 천 명의 팔로워보다도, 내 이야기를 진짜 이해하고 관계 맺어줄 수 있는 옆의 열 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긴밀하게 소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종이 형태의 <가족 통신문>을 만든 게 너무 귀엽고 좋은 것 같아. 진짜 이름

그대로 가정통신문 같기도 하고.

민희 맞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가끔 새 블로그를 파서 <가족 통신문> 홍보 글을 올리거든. 막 엄청 자주는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블로그를 보고 이메일을 보낸 거야. 자기가 밴쿠버 와서 너무 외로워서 네이버에 그냥 "레즈비언" 이런 식으로 검색해봤는데 내 블로그 글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고는 그 글 보면서 되게 위안을 얻었고, 자기도 통신문 구독해도 되냐고 메일을 보냈더라고. 근데 그 메일을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 있다가 본 거야. 근데 진짜 갑자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지. 이런 피드백이 사실 창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하잖아.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재밌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걸 보고, 직접 문을 두드려주고 있다는 걸 처음 실감한 순간이었어.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

승연 사실 너도 너네만의 가시화 활동 및 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민희 그치, 맞지.

승연 완전 대단한 일이지. 왜냐하면 캐나다가 아무리 성소수자 친화적인 나라라고 해도 거기 안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는 또 다르고.

민희 이게 의외로, 사실 밴쿠버에는 레즈바나 레즈 카페 같은 게 거의 없잖아. 그만큼 열려 있는 도시이긴 한데, 반대로 말하면 "레즈비언만을 위한 공간"은 없는 거고.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지게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보면 지금 하는 건 되게 작은 로컬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승연 어떻게 생각해? 외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이기도 하고,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삶에 속해 있기도 하고, 또 퀴어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이 모든 정체성이 사실 굉장히 교차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

민희 완전 소수자 중에 소수.

승연 근데 그렇게 여러 소수자성을 다 갖고 있는데도 또 이런 걸 해보고 있는 거잖아. 사실 연대라고 하면 꼭 외국인 백인 퀴어랑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인 퀴어들이랑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실제로는 친구들 중에 캐나다 사람들도 많고 다양할 텐데, 그런 관계들이랑은 또 느낌이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 어때?

이현 캐나다 친구 별로 없어.

민희 물론 직장 동료나 현지 친구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통신문>이나 한인 레즈비언 친구들은 약간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결국 외국에서의 관계들은 어느 정도 다 사회생활의 영역이기도 하잖아. 영어를 해야 하고, 계속 설명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거랑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감각이니까.

이현 같은 퀴어 커플이라고 해도 묘하게 벽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단순히 언어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각자 살아온 퀴어 문화나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쉽게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지. 단순히 둘 다 동성 커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공유될 수 없는 감각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

민희 그러니까 약간 페미니즘도 백인 여성들이 중심이 된 페미니즘이 있고, 유색 인종 여성들이 경험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이 따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그런 결이랑 비슷한 느낌.

승연 맥락과 배경이 다른 거지, 맞아. 그래서 사실 내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는 되게 잘 융화될 줄 알았거든. "여기 멜팅 팟*이니까 다 섞이겠지" 이런 느낌으로. 근데 밴쿠버는 늘 하는 말처럼 "멜팅 팟"이라기보다는 "모자이크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각자 자기 맥락

*멜팅 팟(melting pot)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하나로 섞여 단일한 문화로 융합되는 사회 모델.

**모자이크(mosaic)
각자의 문화와 정체성이 유지된 채로 함께 배열되어 공존하는 사회 모델.

을 그대로 가진 채로 존재하는 느낌이지, 서로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민희 맞아요. 맞아.

승연 그런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너무 내 친구들인 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

민희 감사합니다. 섹시하다 우리.

승연 가끔 한국에 오면 어때요?

민희 점점 가면 갈수록 한국을 이제 내 고향이라고 말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내가 떠나온 시점부터 한국도 너무 달라져 있는 거야.

이현 확실히 그건 있어. 밴쿠버 공항에 돌아와야 집에 온 것 같아.

승연 이젠 그런 감각이 생겼구나.

이현 한국 본가에 가면 당연히 편하고 좋지. 근데 거긴 돌아와야 할 곳이잖아. 어쨌든 나한테 한국은 정착하러 가는 곳이라기보다,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여행 가는 느낌이야.

승연 한국이 여행지가 됐군.

민희 그래도 늘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늘 가고 싶지. 돌아와서 휴대폰을 열면 계속 한국 뉴스나 한국 콘텐츠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 여기서도 한국식으로 생활하고, 그렇다고 한국에 가서도 100% 내 자리인 건 아니니까.

승연 되게 다중의 한국이라는 개념을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현 되게 정말 정확한 말이다. 그게.

승연 나도 그때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 나는 분명 한국인이고, 사고방식도 되게 한국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배경만 외국으로 바뀐 느낌이랄까. 소셜미디어도 여전히 다 한국 기반이고, 내가 보는 콘텐츠나 관계들도 대부분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만은 아닌 것 같았어. 내 안에는 이미 관념적인 '한국'이 되게 크게 존재하고 있었고, 외국에 나와서도 그건 계속 같이 이동하고 살아남는 거지.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 그런 감각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

민희 맞아. 그게 되게 신기한 지점인 것 같아. 물론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캐나다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캐나다 뉴스 보고, 현지 문화 중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정서적으로 끌리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 웃긴 포인트나 말투, 밈 같은 사소한 감각들까지도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한국 사람이라 편하다"를 넘어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한다는 게 되게 큰 안정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

이현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딱히 '캐나다 시민'이라면 이런 이미지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민희 진짜 모자이크처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는거.

이현 각자 있는 그 자체가 되게 캐나다 같은 거지.

승연 어떻게 보면 그게 캐나다의 특수성 같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지만, 나라 자체가 강하게 하나의 정체성을 요구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완전히 '캐나다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배경을 유지한 채 느슨하게 사는 느낌이지. 그런 면에서 캐나다는 좋은 의미로든, 혹은 좀 비어 있는 '보이드(void)' 같은 공간 같아. 캐나다라는 문화나 나라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 안에 각자 자기 문화나 정서를 가져와서 채워 넣어야 하는 곳 같이.

민희 맞아.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오히려 더 한국을 갈구하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캐나다라는 공간을 채우고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승연 예를 들어 중국처럼 문화적 밀도가 강한 곳에 갔으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덜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고 어떤 문화를 만들며 살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야 하는 느낌이 큰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고.

민희 맞아, 어떻게 맨날 메이플 시럽만 먹을 순 없잖아.

승연 두 분 다 지금 영주권은 따신 상태인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저번에 이야기 나눴을 때는 아이 계획도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좀 어때?

민희 둘 다 영주권을 취득했구요, 요새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는 조금 사그라든 것 같아. 예전에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100%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담이나 시험관 시술 비용 같은 것들을 직접 마주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꼭 돌봄이나 가족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반려동물처럼 다른 형태의 가족이나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을 더 많이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

승연 이현이는 어때?

이현 나는 우리 아이가 생길 줄 알았어.

민희 나도 진짜 생길 줄 알았어.

이현 내가 한국에 잠깐 여행 갔다가 돌아왔더니 아이가 사라졌어. 상상 속에서 애 키워가지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이가 사라졌어.

승연 프린세스 메이커냐고.

민희 이현이가 지난 겨울에 한 달 동안 한국에 갔다 왔잖아. 그동안 나는 너무 외로웠던 거야. 아 그냥 애고 뭐고 다 모르겠고, 지금은 그냥 이현이 없는 상태 자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혼자는 진짜 못 살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지. 그래서 이현이가 돌아와서 "그동안 생각 어떻게 해봤어?" 이랬을 때 내가 그냥 "낳지 말자. 그냥 여기서 살다가… 둘이 같이 안락사하자" 이렇게 말한 거야.

승연 이현이는 어땠어? 듣고.

이현 나 완전,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충격받았어. 내 애는 어디 갔어? 막 이랬지. 근데 사실 민희가 출산을 하고 내가 내 난자를 쓸 생각이었으니까 그걸 내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민희의 자궁은 민희의 초이스인데.

승연 마이 자궁 마이 초이스.

민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현이가 한 번 그게 마음이 사라져서 정말 상실감이 커가지고 내가 가끔씩 그냥 우리 애나 낳으러 갈까 우리 로또 당첨되면은 당장 멕시코 가서 시험관이나 할까? 이렇게 말 해. 그러면 이현이는 절대 안 하겠다고 이미 자기 애 사라졌다고 ㅋㅋ

승연 그 열망이 너무 궁금하고 이현이 성격이면은 뭔가 목표가 생기면 아까 말했듯이 되게 달성하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상실감이 컸을 것 같긴 해.

이현 맞아.

승연 근데 너는 애를 어떻게 원하게 된거야? 애를 갖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느껴진 거야?

이현 우리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 진짜 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한 30살을 기점으로 갑자기 아기들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고, "나도 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도 딱 그 나이였더라고. 그래서 이게 혹시 유전자에 새겨진 어떤 타이밍 같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나이대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각인가 싶기도 하고.

민희 "이 나이에 애를 낳아라" 같은 어떤 내면의 기준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둘 다 노인이 됐을 때를 상상해보면, 명절이나 일상을 둘이만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승연 대박. 한국에서도 비혼 출산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갖는 케이스가 있긴 하잖아. 근데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장애물이 너무 많거든. 반면에 캐나다는 정보도 많고, '이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다' 하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딱 붙어 있잖아. 그게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조금 더 실행 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

민희 한국에서는 그럴 것 같아. 사실 여기서는 진짜 뭐랄까, 난임 시술 센터에 이메일 문의까지 보내봤거든. 그만큼 여기선 이런 게 너무 접근하기 쉬우니까.

이현 우리 맨날 정자 은행 들어가봤잖아.

민희 정자 찾고, 정자 찾고… 맨날 캡처해서 "이 정자 괜찮지 않아?" 이러고 있고.

승연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레즈비언 커플이 정보 좀 알려줬다고 하지 않았어?

민희 맞아. 우리가 어떤 커플 소식을 보고 DM을 보내가지고 한번 물어봤지.

이현 응, 진짜 엄청 잘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결국 아기 꿈은 좀 접게 됐지

승연 근데 그게 뭐, 나중에 다시 꿈을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민희 그치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승연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캐나다라는 데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선택지가 좀 있다고 느껴지긴 해.

민희 맞아 맞아. 여기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당연한 선택지"로 깔려 있으니까 아이의 미래를 굳이 하나하나 걱정해야 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한국은 시작점부터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지. 나도 예전에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걸 상상했을 때, 제일 먼저 걸렸던 게 "그럼 이 아이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였거든. 내 호적 아래에 두 명 다 올리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구조 자체가 애초에 안 맞는 건지. 그렇게 되면 아이는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애매해지고, 존재 자체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남는 느낌이 드는 거야.

승연 그치, 이런 얘기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현실로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아 우리가 진짜 법 바깥에 서 있네" 이런 감각. 가족도 사실 되게 웃긴 게, 꼭 결혼이나 혈연으로 딱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서로 돌보고, 그냥 삶을 같이 굴리는 사람들인데도 충분히 가족이 되잖아.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동성결혼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생활동반자법이라도 빨리 만들어라" 이쪽으로 더 감각이 가 있기도 하고. 결혼이나 혈연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미 서로 돌보고 살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새로 조립하는 느낌이거든. 특히 여기 캐나다에서는 그게 생존이랑도 직결되니까. 너희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민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우리도 많이 생각해봤거든. 동성 결혼이나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해봤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는 동성결혼이 이미 합법이고, 북미 자체가 되게 가족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게 그냥 "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승연 그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느낌이네. 한국은 가족 얘기 나오면 답답하고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북미는 또 어떤 결이야?

민희 북미는 정말 가족중심적이야.

이현 맞아. 오히려 더 가족 중심이지. 포용 범위가 넓을 뿐이지, 구조 자체는 되게 가족 중심 사회인 것 같아.

민희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하다"는 전제가 되게 강하니까, 거기 안에 너희도 들어올 수 있어, 가족 하고 싶으면 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이현 맞아, 겉으로 보면 되게 포용적인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틀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

승연 되게 흥미롭다. 이 포인트.

이현 동성이든 뭐든 상관없어. 가족이 하고 싶으면 가족 해.

승연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이현 그게 오히려 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승연 거긴 친구끼리 어떻게 가족이 돼? 법적으로 가족으로 묶이는 '생활동반자법'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야?

민희 여기는 사실 생활동반자법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결혼"으로 가는 구조인 것 같아. 커먼로***도 사실상 사실혼 개념이고. 결국 동성/이성 나누기보다는 그냥 결혼 자체가 되는 거지.

승연 그러니까 그냥 결혼, 커먼로, 이런 게 다 사실상 배우자 관계로 묶이는 거네. 법적으로는 거의 가족으로 인정되는 구조고. 생활동반자 같은 별도 카테고리라기보다는.

민희 맞아. 그래서 나는 가끔 생각해. 그럼 이 나라가 언제쯤 폴리아모리 같은 가족 관계도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승연 아, 나 이제 밥 먹고 나가야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현 응, 우리도 이제 자야지.

승연 내일 출근 잘 하고. 또 연락할게 잘 자.

민희 승연이도 전시 준비 잘 해. 가족통신문 보내줄게.

***커먼로(Common-law)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일정 기간 이상 동거하며 경제적·정서적으로 공동체를 이룬 사실혼 관계를 의미한다. 캐나다에서는 이 제도 덕분에 법적 부부와 거의 동일한 사회적·제도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서울의 나는 늦은 점심을 고민하고 있었고, 밤 9시에 잠들 준비를 해야 하는 북미의 두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하루 위에 서 있었다.

밴쿠버에 산다는 사실이나 한인 레즈비언이라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서로를 이어 붙이며 살아가는 방식들. 조금 더 내 세계를 넓혀가려는 시도들. 결국 어디에 있든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연결을 만들고, 오늘을 지나 내일을 같이 상상하면서 살아간다.

그 장면들이 이 대화를 통해 더 가까이 보였다. 서로 다른 시계를 차고 있지만, 결국 같은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 일. 이 시차를 건너온 다정한 신호들이 내 점심 메뉴보다 훨씬 더 배부르게 느껴졌다. (민희와 이현 2025.11.10)





예지와 다정

사랑은 원래 지긋지긋한거야

개를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강아지에게 온 우주를 내어준 이들이 있다. 웬디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를 세상의 중심에 두었던 두 사람, '웬디언니들', 20년 지기 예지와 다정의 이야기다.

웬디는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이었다. 이 집에서는 강아지의 서열이 사람보다 높다고 농담할 정도로, 웬디는 가족의 중심이었다. 웬디의 털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바닥 색에 맞춰 집 안 전체를 리모델링했던 일화는, 이들이 웬디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1년 전 봄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 세 가족의 모습은 벅차게 아름다웠다. 서로가 진짜 '웬디언니'라고 우기며 웬디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려 애쓰던 두 사람의 얼굴엔 웬디를 중심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다정한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렇기에 웬디가 갑작스럽게 떠난 후, 남겨진 두 사람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웬디와 함께 반짝였던 시간을 지나, 이제 두 사람은 웬디를 '웬깨비'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여전히 웬디가 없는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 웬디를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지와 다정 친구로서 나는 인터뷰라는 핑계로 조심스레 안부를 묻는다. 웬디를 떠나보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이들의 삶, 그 자체를 더 진득하고 오래 지켜보고 싶은 나의 마음이다.
















FUSE














Mind Your Fingers
ibiyaya









승연 안녕하세요, 예지님 다정님. 두 분은 어떻게 가족이 되셨나요? 썰 좀 풀어주세요.

예지 다정이가 말 해줘야겠는데요.

승연 예지는 아직 잠을 깨고 있거든. 짱구도 먹어야 되고.

예지 이런 것도 들어가요?

승연 네, 말맛이 재미있으면 들어가요.

다정 한 20년 전, 중학교 3학년 때였어. 아마 학기 초였던 것 같아. 하굣길에 신발 갈아 신고 집에 가려는데, 같이 다니던 현진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누굴 데려오는 거야. "우리 반에 내 새로운 친구야." 하면서. 그게 예지였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앞머리는 되게 두꺼웠던, 예쁜 친구.

승연 예쁜 친구.

다정 예쁜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현진이랑 예지는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대. 학교 앞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다면서 나보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어. 그날 그렇게 친구가 됐지.

승연 어땠어? 다정이? 기억 나?

예지 처음에 서로 되게 싫어했어.

다정 아니야, 안 싫어했는데.

승연 그러면 솔직하게 둘 다 얘기해줘.

예지 다정이는 좀 약간 친구 독점력이 있었어.

다정 어릴 때 그런 정병이 있었어.

승연 그치, 어릴 때는 친구한테 좀 집착하게 되는 시기가 있잖아. 그리고 한 번쯤은 왕따 비슷한 것도 당해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 아, 사람을 독점할 수는 없구나 하고.

예지 서로 다른 친구가 생긴다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조금씩 경계하고 있었다.

다정 예전에 한 번은 내 친구를 현진이한테 소개해준 적도 있었는데, 그건 잘 안 됐어. 나는 그냥 다 같이 친해지고, 즐겁고, "내 친구의 친구도 내 친구" 같은 느낌으로 해피하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그때의 나는 또 친구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예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나 봐.

예지 우리가 그때 마을버스를 타고 다녔단 말이야. 학교를 멀리 다니지는 않았는데 마을버스가 굉장히 과밀했어. 근데 다정이가 상당히 동작이 빨랐어. 그래서 마을버스가 오자마자 뒤에 세 자리, 가장 노른자 자리를 맡아 놓고, 맞아, 우리를 약간 "여기야~" 이렇게 부르는.

승연 정말 중요한 역할이지.

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퇴근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승연 하교. 회사도 아니고.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네.

다정 너무 슬프다.

예지 하교하고 현진이 집 가거나, 다정이 집 가거나, 우리 집 가거나 하면서 항상 하루를 보내고, 매일매일 보는 사이가 되고. 같은 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셋이 그대로 어울려서 지냈지.

승연 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다정 별 거 한 건 없어. 근데 맨날 그냥 서로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누워서 깔깔거리고. 그냥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

승연 서로 유머 코드라든가 그런 게 비슷했나 봐.

예지 어렸을 때 만나서 좋은 점은 약간 가치관을 같이 형성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만나면, 예를 들어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면 친구가 되기 어렵잖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같이 부딪히면서 비슷한 결로 만들어 오게 되니까.

다정 맞아. 그래서 이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우리끼리 너무 어릴 때 만나서 동기화가 많이 돼 있다고.

승연 대학생 때는 어땠어?

다정 대학생 때는 각자 학교를 갔고, 예지가 일단 한 3~4년 동안 알래스카로 유학을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도 그랬고, 그렇게 공백이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

승연 그때 카톡이 있었어?

(싸늘해짐)

승연 미안해. 아니, "뭐로 소통했어?"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예지 텔레그램이었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본 사이니까. 그때 알래스카에 갔을 때쯤에는 이미 관계가 굉장히 가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몇 년 떨어져 있다고 해서 헤어질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 사실 내가 알래스카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지에 대해 고민했을 때도,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다정이랑 현진이가 컸었고.

다정 그냥 의심을 안 했어. 이 관계가 멀어질 거라든가, 멀리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예지 그렇다고 연락을 엄청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니었지.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고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어.

승연 그때 동거를 시작하게 된 큰 계기가 뭐야? 원래 같이 살기로 했던 약속이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거야?

다정 내가 끊임없이 주입했어.

승연 예지가 좋은 동거인 같았어?

예지 아니 그냥 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다정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어른들이 "너네 지금 너무 보기 좋고 예쁘지만, 커서 시집 가면 다 헤어져" 이런 말.

승연 맞아 맞아, 그런 말이 있었지.

다정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반발심도 있었고,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얘네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커서 같이 살자" 그랬지.

예지 만약에 어른들이 "너네 커서까지 이렇게 같이 살 거야" 했으면 오히려 같이 못 살았을 수도 있어.

승연 오히려 진짜 반발심으로 같이 살게 된 거네.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는 어땠어?

예지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는 워낙 매일매일 보는 사이였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싸울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안 싸웠어. 절대 안 싸울 거라고 생각

하고, 화가 나는 것들이 있어도 참았지. 그러다가 참다 참다 이제 "야, 너 여기 앉아 봐"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지.

다정 맞아, 맞는 얘기고 우리가 진짜 안 싸웠거든. 그 오랜 시간 친구를 하면서도 진짜 안 싸웠는데, 같이 살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끼리 세션을 만들었어요. 둘이 싸웠더라도 셋이 같이 앉아서, "사랑의 세션" 해가지고 다 풀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 같이 살아도 이게 동작할 거야"라고 약간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

승연 그리고 뒤지게 싸웠어?

예지 그래서 이제 같이 사니까 가족처럼 싸우는 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승연 친구랑은 어쨌든 최대한 감정을 죽이면서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잖아. 근데 가족이랑은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이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니야?

예지 뭐야, 우리 싸우는 거 봤나 봐.

다정 그러다가 누가 한 쪽이 막 도르르 울면 왜 우냐고.

승연 그렇게 맞춰가기 시작한 거구나. 나도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내 주변의 친한 친구들만큼 깊게 우정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거든. 사실 다 같이 커왔고 서로의 삶의 궤적도 오래 봐온 사람들이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 결국 그 인연이 어느 시점에서 멈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새삼 예지랑 다정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긴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계속 이어져온 찐한 가족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

예지 다정이가 끈기가 있어서 그래.

다정 내가 항상 얘기했어. "그래, 뭐 잠깐 다른 데 갔다 와.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랑 살면 돼."

예지 나한테 이 얘기를 한 20년째 하고 있어. 결혼하고 오라고.

다정 "갔다 와도 상관없어. 결론적으로 나랑 살면 돼." 이런 얘기를 예지가 들으면서 지긋지긋해하잖아. 그러면 나는 "야, 사랑은 원래 지긋지긋한 거야" 이래.

승연 와, 방금 인터뷰 제목 뽑혔어. "사랑은 원래 지긋지긋한 거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어때? 진짜 갔다 오고 싶어?

예지 아니, 근데 사랑이 좀 지긋지긋하긴 하다.

다정 웬디한테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 웬디를 너무 예뻐하면서도, 웬디가 한숨 쉬거나 그러면 "웬디야, 언니가 사랑은 뭐라고 그랬지? 사랑은 지긋지긋한 거라고 했지?" 이러고.

승연 근데 또 그 말이 너무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막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한숨까지 계속 견디고 보는 일이기도 하잖아. 웬디는 어떻게 만나게 된거야?

예지 옛날에 친구가 강아지 두 마리를 임시 보호하게 됐는데, 어린 강아지들을 데려왔거든. 근데 그 중 한 마리가 다른 강아지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 괴롭히는 강아지가 웬디였어.

승연 가해견이 웬디였구나.

예지 밥도 못 먹게 하고. 근데 얘네가 둘 다 아팠거든.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얘네를 둘 다 케어하기는 좀 무리다, 한 마리는 떠나보내야 될 것 같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냥 말장난처럼, "우리 나중에 고양이 입양하면 이름은 케이트로 짓고, 강아지 입양하면 이름은 웬디로 짓자" 했었거든. 근데 진짜 웬디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집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운명이야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고 당장 모시러 갔지.

승연 그리고 만났을 때는 어땠어?

예지 만났을 때는 웬디가 우리를 별로 안 사랑했어.

다정 당시에 그 집에 갔는데, 웬디가 자기 말고 얘 데려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 약간 저 아픈 친구 데려가라고 눈빛으로 말하는 느낌? 몸짓에서 그런 게 느껴졌고. 근데 그 여린 피해견 친구는 "저를 구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내 손에 막 올라오고. 웬디는 내가 안으려고 하니까 안 안기더라고. "여기가 내 집인데?" 이런 느낌으로. 근데 웬디는 그 집에 온 지 하루 됐었어.

예지 그 집을 약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강아지였어.

승연 아, 어렸을 때 웬디를 생각하니 너무 귀엽다. 웬디랑 같이 살면서 가족의 어떤 형태라든가, 리듬이 좀 달라졌어?

예지 너무 달라졌지.

승연 강아지 키우는 게 처음이었나 둘 다?

예지 같이 키우는 건 처음이었어. 부부가 신혼으로 있다가 아기가 생기면 다이나믹이 달라지잖아. 아기가 생긴다는 게 되게 달라지는 일이잖아. 정확히 똑같이 우리도 이제 육아할 강아지가 생긴 거지.

승연 웬디는 진짜 아기 강아지였죠.

예지 그때는 또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 같이 공부하고 교육하는 방법 알아보고, 밥은 어떻게 먹이고 이런 것도 알아보면서. 그리고 산책도 몇 번씩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스케줄 맞추고, 막 이러면서 진짜 이제 육아하는 스케줄로.

승연 그것 때문에 가족이 좀 단단해졌던 것 같아?

예지 가족이라고 더 단단하게 느끼게 된 건 웬디를 입양했을 때인 것 같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웬디와 함께하고서부터였어. 그전에는 뭔가 가족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던 느낌이라면, 이제는 외부에서도 좀 가족이라고 불러주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고, 또 그랬던 것 같아.

승연 여태껏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을 인터뷰해왔는데, 확실히 반려동물이라는 존재가 가족을 더 결속시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예지 막 서로 꼴 보기 싫을 때도 웬디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우리 원가족들도 웬디를 엄청 예뻐하거든. 거의 손녀처럼 생각하는 정도야. 나랑 내 여동생도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는데, 걔가 웬디를 보고 싶어 하고 웬디도 걔를 좋아하니까 자주 집에 놀러 왔었어.

다정 내 남동생도 웬디 보러 엄청 집에 자주 왔었어. 나 보러는 안 오거든.

승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는 손녀딸 같은 존재였네. 원가족과의 사이는 어때?

예지 좋아. 그리고 웬디가 있고 나서 가족들이 더 웬디 보러 집에 더 자주 오고. 우리 집이 거의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도 큰집처럼 되는 거야. 웬디 보러 다정이 어머니도 우리 집으로 오시고, 항상 와서 용돈 주시고.

승연 사실 각자의 부모님도 둘을 16살 때부터 엄청 오래 봐왔잖아. 이렇게 가족이 됐을 때 뭐라고 하셨어?

다정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지.

예지 맞아. 우리 엄마는 거의 약간 말하자면 사위처럼 다정이를 가족으로서 봐주고, 가족으로서. 같이 살기 시작한 후부터 그랬던 것 같아.

다정 엄마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내 딸의 친구면 같이 얘도 좀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예지 어머니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엄마도 예지 되게 예뻐하시고. 내 동생도 누나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승연 내가 처음에 예지를 만났을 때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관심을 두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었다고 했거든. 근데 사실 누구나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있으면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다큐 작업으로 옮겨가게 된 계기가 있어?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예지가 다정이를 "내 가족이다"라고 모두에게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

예지 맞아. 다큐를 만들었던 이유는 나는 이미 그게 좀 흔한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 정상 가

족이 아닌 형태로 살아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나간 얘기 아닌가, 좀 진부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근데 여전히 내 작은 버블을 벗어나면, 그런 걸 너무 충격 받은 얼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승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

예지 예를 들어 다정이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조건 같이 사는 사람은 남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랑 같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여자친구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집단 밖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또 무조건 남자인 친구랑 같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승연 모든 곳에서 유성애적인 방식으로 계속 작동하고 인식되고 있었구나.

예지 어. 어쨌든 이게 나에게는 좀 흔한 얘기고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 그리고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하신 팟캐스트 있잖아. 거기에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웬디랑 같이 사연을 보냈는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전위적이라고 말씀하셨어.

승연 어머, 그 선생님들은 이미 둘이 같이 사는 얘기로 책을 썼으면서.

예지 그 둘도 우리랑 비슷한 형태로 살고 있잖아. 나는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전위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럼 이건 만들어질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어.

승연 다큐는 지금 잠깐 중단됐다고 들었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어?

예지 처음에는 다큐를 지금 승연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가족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가족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좋을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좀 더 내밀한 얘기를 담는 게 좋을까 고민했었어. 그런데 다양한 가족들을 담는 방식은 너무 약간 프로파간다적이라는 피드백을 좀 들었어요.

승연 나 프로파간디스트.

예지 당연히 그런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다큐를 할 때는 또 재미도 있어야 하니까. 나 스스로의 흥미도 그렇고 보는 사람의 흥미도 가져가려면 뭔가 더 내밀한 얘기가 재밌겠다고 생각했어.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의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그때그때 무슨 사건들이 있을 때 촬영해 놓고 그랬지.

승연 어땠어요? 기억에 남는 게 있어?

예지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지금은 웬디에 대한 거지. 그때그때 찍어놔 가지고, 사실 웬디가 세상을 떠나고도 나에게 많은 푸티지들이 있으니까.

승연 200기가 넘게.

예지 200기가요? 웬디 장례식만 2테라 정도 되는데요.

승연 요즘 외장하드도 비싼데. 다정은 취재를 당하면서 어땠어?

다정 취재를 당했을 때 재밌었지. 남겨준다는데.

예지 근데 오늘처럼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정이는 항상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어.

다정 맞아, 맞아.

승연 뭔가 카메라는 굉장히 의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예지 다정이가 배우는 아니니까 카메라랑 자꾸 대화를 해. "안녕하세요."

승연 다정은 주위에 예지와의 관계를 설명했을 때, 주위에서 들었던 피드백 같은 것도 있었어?

다정 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쓰지 않는 편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되게 그냥 공공연하게 "친구랑 살고, 걔 그냥 가족이에요. 웬디는 제 딸이에요. 제 딸이 5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다행히도 잘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긴 했는데.

승연 진짜 어이없다.

다정 근데 그게 사실인데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넘기고, 그냥 반응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

예지 근데 얘는 회사에서 진짜 그걸 잘 받아들여 줬어요. 웬디가 딸이라는 점도 그렇고. 웬디가 아프고 그러면은, 아기들 아플 때처럼 육아휴가 비슷하게 회사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럴 때도 다 이해를 해줬어. "저 오늘 웬디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좀 늦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줬어.

승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아기 강아지였던 웬디랑 같이 살게 되면서 커가는 모습을 봤잖아. 어땠어?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어?

다정 우리가 다른 강아지를 임시 보호한 적이 있어. 해실이라고. 근데 크리스마스 때 강아지들을 위해 강아지용 머핀을 굽고, 사진도 찍겠다고 하고, 머핀을 나눠주려고 세팅을 해놓고 있었는데, 웬디는 식탁 옆에 자기 앞에 예쁘게 앉아 있었어. 그때 해실이가 갑자기 난입한 거야. 웬디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지. 너무 곱게 자라고, 모든 건 이제 다 웬디가 먼저고 막 이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새치기한 경험이 없었던 거야. 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웬디가 예쁘게 기다리고 있다가 해실이가 갑자기 난입해서 팍 하는 게 찍혔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웬디 엄청 충격 받았었어.

예지 웬디가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우리는 웬디가 왜 화가 났는지 몰랐지. 그래서 "웬디야, 기다려야지" 이러고.

승연 그게 다 느껴지는구나. 나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는 감정 표현이 엄청 잘 보이는 것 같아.

예지 진짜 투명해. 그리고 웬디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눈물 한 방울씩 툭툭 흘리거든. 근데 최근에 인스타에서 보니까 강아지가 감동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승연 나는 웬디가 한숨 쉬는 거 기억나는데. 언짢았을 때.

다정 한숨 진짜 많이 쉬었지.

예지 내가 아는 강아지 중에 제일 한숨 많이 쉬는 강아지.

승연 요즘도 웬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

다정 우리는 이제 웬디에게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해 줬잖아. 말해도 되나?

다정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승연 아니야. 한 번만 얘기해 줘.

다정 웬디는 지금 도깨비가 되어 가지고, 언니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어.

승연 도깨비가 된 이유는 뭐야? 천사가 될 수도 있잖아.

예지 도깨비가 뭐 잃어버리면 찾아주는 거 알지?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팔찌 같은 거를 잃어버리면 "도깨비님 찾아주세요" 하면, 원래는 죽어라 찾아도 안 나오던 게 뒤돌면 "아 여기 있었네" 하고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 다정이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카드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나왔대. 그래서 그냥 "웬디야, 언니 카드 좀 찾아줘" 했는데, 그 말하고 뒤돌았더니 카드가 바로 나왔다는 거야.

다정 그 차를 세 번이나 뒤졌는데 안 나왔어.

예지 그래서 "웬디 도깨비 된 거 아냐?" 이런 말을 하고, 그때는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었는데. 내가 최근에 유럽 가는 준비를 하면서 여권이랑, 국제운전면허증 만들려고 사진 뽑아둔 걸 찾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죽어라 안 나오는 거야. "이러다가 유럽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근데 5분 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그 5분이 국제면허증을 만들 수 있는 마지노선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웬디야 찾아줘" 했더니, 갑자기 어떤 서

랍에서 그 두 개가 같이 툭 나왔어. 근데 그 두 개를 나는 원래 같이 두지도 않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웬깨비"라고 부르게 됐어. 웬디가 도깨비로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승연 웬디가 주위에 있어주니까 되게 고맙다. 나도 한번 집에서 뭐 찾다가 물어볼게. 우리 집에는 안 와주려나.

예지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갈 수도 있지.

다정 웬디가 또 이제 진돗개니까. 진도깨비.

예지 그러니까 아무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도깨비로서 종종 찾아주신다.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신다 생각하고 있어.

승연 사실 친구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도 미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항상 좀 있었거든. 근데 만약 내가 우리 고양이를 떠나보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생각해봤을 때 "이 아이는 내 삶에 들어와 함께 있다가, 다시 인연의 흐름을 따라 떠난 거다" 같은 걸 상상해보는 게 나는 가끔 위로가 되더라고.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겠지만, 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예지 나는 그거 있잖아. "Life is short, eat your dessert first." 그 말을 되게 오래전부터 좋아했거든.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거, 가장 맛있는 걸 자꾸 뒤로 미루지 말자. 재밌는 것부터 하면서 살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

다정 맞아. 난 근데 그게 항상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뒤로 미루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살아왔거든. 근데 예지가 항상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승연 다정은 있어? 이름처럼 다정하게 살기?

다정 나는 내 이름처럼 살고 있긴 하지. 근데 내 이름의 뜻은 '다정하다'의 다정이 아니고, 곧을 정 자여가지고 약간 대쪽 같은 성격이야.

승연 이것도 너무 재밌다. 당연히 '다정하다'의 다정인 줄 알았어.

다정 대쪽 같은 성격이니까 예지한테 "갔다 와" 이러기도 하는거지.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웬디가 너무 갑자기 갔잖아. 근데 웬디가 가기 직전이 내 인생에서 "너무 행복하다",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였거든. 그래서 웬디가 갑작스럽게 갔을 때, 상실감이랑 함께 그 충격도 되게 컸던 것 같아. 내가 가치관처럼 믿고 살아왔던 것들도 지금은 많이 깨졌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살고 있어.

승연 그럴 것 같아.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갑자기 큰 상실이 들어오면, 내가 믿고 살아왔던 방식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들이 새로 생기고, 어떤 것들로 다시 채워지게 될지 궁금하기도 해. 둘 다 "웬디언니"라는 별명을 정말 많이 사용했잖아. 사실 그건,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들 대부분이 웬디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

예지 맞아. 웬디를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나 인생의 방향성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고, 예를 들어 동물권이나 채식 같은 것들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내가 중요하게 두는 관심사들이 전체적으로 달라졌던 것 같아. 다큐를 찍을 때도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방향성에 영향을 줬고.

승연 다정은 웬디를 만나고 어땠어? 아까 웬디를 딸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다정 그치, 웬디는 내 딸이지. 너무 사랑하는…

예지 운대요, 양다정 운대요.

승연 웬디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쟁탈전 했었잖아.

다정 아직도 하고 있어.

승연 작년에 촬영했던 거 생각난다. 그래도 웬디가 매너 있어가지고 더웠는데도 가만히 있어주었던 것 같아.

예지 처음에는 웬디도 되게 재미있어 했어요.

승연 진짜야. 느껴졌어.

예지 사진에도 그게 보이거든. 표정이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어 하고, 네가 시키는 것도 하는 것도 되게 성취감 있게 즐겁게 했거든. 근데 너무 길었어, 촬영이.

승연 아니, 그때가 역대급이었을 걸. 내가 찾아가서 가족 사진을 찍은 것 중에 제일 길게 찍은 거. 셋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길어졌지 뭐야. 작년에 가족 사진 찍기 잘했다. 그치.

다정 그러니까 진짜 잘했다.

예지 사진 진짜 닳도록 보고 있어요.

승연 웬디 보고싶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예지와 다정이 건넸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은 원래 지긋지긋한 것”이라며 장난스럽게 웃던 두 사람, 그리고 웬디를 떠나보낸 상실감조차 도깨비라는 존재로 품어보기로 한 마음.

사실 나는 이들에게 웬디의 부재를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웬디라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이 요즘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 긴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던 것 같다.

강아지의 생은 왜 이렇게 짧을까. 사람의 마음과 기억은 그것보다 너무나 긴데, 남겨진 우리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며 살아가야 할까. 웬디가 모든 것을 다 찾아줄 수는 없을 것이다. 웬디가 가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며 예지와 다정의 일상을 지킨다면,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것은 곁에 있는 친구들의 몫일 테니까. 웬디라는 귀한 온기를 공유했던 우리인 만큼,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깨비가 되어주며, 길을 잃지 않도록 다정하게 곁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예지와 다정 2025.5.12)





진아와 아현

레즈비언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스근하게’ 행복해지는 법

대구에서 나고 자란 30년 로컬, 진아와 아현은 스스로를 ‘가부장제에 기꺼이 편입하고자 하는 레즈비언 커플’이라 명명한다. 각각 다른 대학의 퀴어동아리 대표로 만나 친구가 되고, 6년간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이제 2027년 가을, 하와이 신혼여행을 꿈꾸며 결혼식을 준비 중이다.

흔히 퀴어의 삶이라 하면 으레 떠올리는 비극, 단절, 혹은 예술적 고독 같은 문법을 이들은 보란 듯이 비껴간다. 양가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가족 행사를 챙기며, 남들 다 하는 ‘공장식 웨딩’을 착실히 준비하는 일상. 누군가는 이들에게 “좋은 주변인이 가득하니 그렇게 할 수 있다, 복 받은 인생이다”라고 속 없는 소리를 하지만, ‘복 받은 인생’을 개척해 오는 삶이 얼마나 ‘엽기 인생’인지, 그것은 당사자만 안다.

대구라는 ‘실명성의 도시’에서, 때로는 ‘아저씨’가 되고 때로는 ‘아줌마’가 되어 서로의 삶을 든든히 지탱해 온 두 사람. “내 차례를 기다릴 순 없지만, 내 뒤에 오는 누군가는 나보다 수월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두 사람은 오늘도 꿋꿋하게 자신들만의 결혼을 말아내고 있다. 대구에서 성소수자 가족의 새로운 지형도를 써 내려가고 있는 진이와 아현의 유쾌하고 단단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power pop




TUAN CHUN-HAO
MILLENNIUM
LINDA
헌법이
구한다
인평등
GYULMEDAL
CHECK OUT OUR TASTE NOTE!
JAMESRECORD




MONTHLY PLAN
3 제빵선거
6 가족사진
9 TMCC [베이트볼 6]
13 서울컨퍼
14 영화페스티벌
20
23 TMCC [대국초대]
25 심문기일
27


MONTHLY GOALS
MONTHLY PLAN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지방선거
4
5
6
가족사진
7
8
9 TMCC [헤이트를 B]
10
11
12
13 서울퀴퍼
14 영희페스티벌
15
16
17
18
19
20
21
22
23 TMCC [애국소녀]
24
25 심문기일
26
27
28
29
30
TO DO
NOTES




[별지 제21호서식]

대구광역시 남구

2026.03.31.

문서번호 가족관계등록 제 63 호

수 신 신고의무자 최 진 아

주소 :

제 목 신고불수리 통지

아래의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사건본인 성명 : 최진아

등록기준지 :

사건본인 성명 : 임하현

등록기준지 :

2. 사건명 : 혼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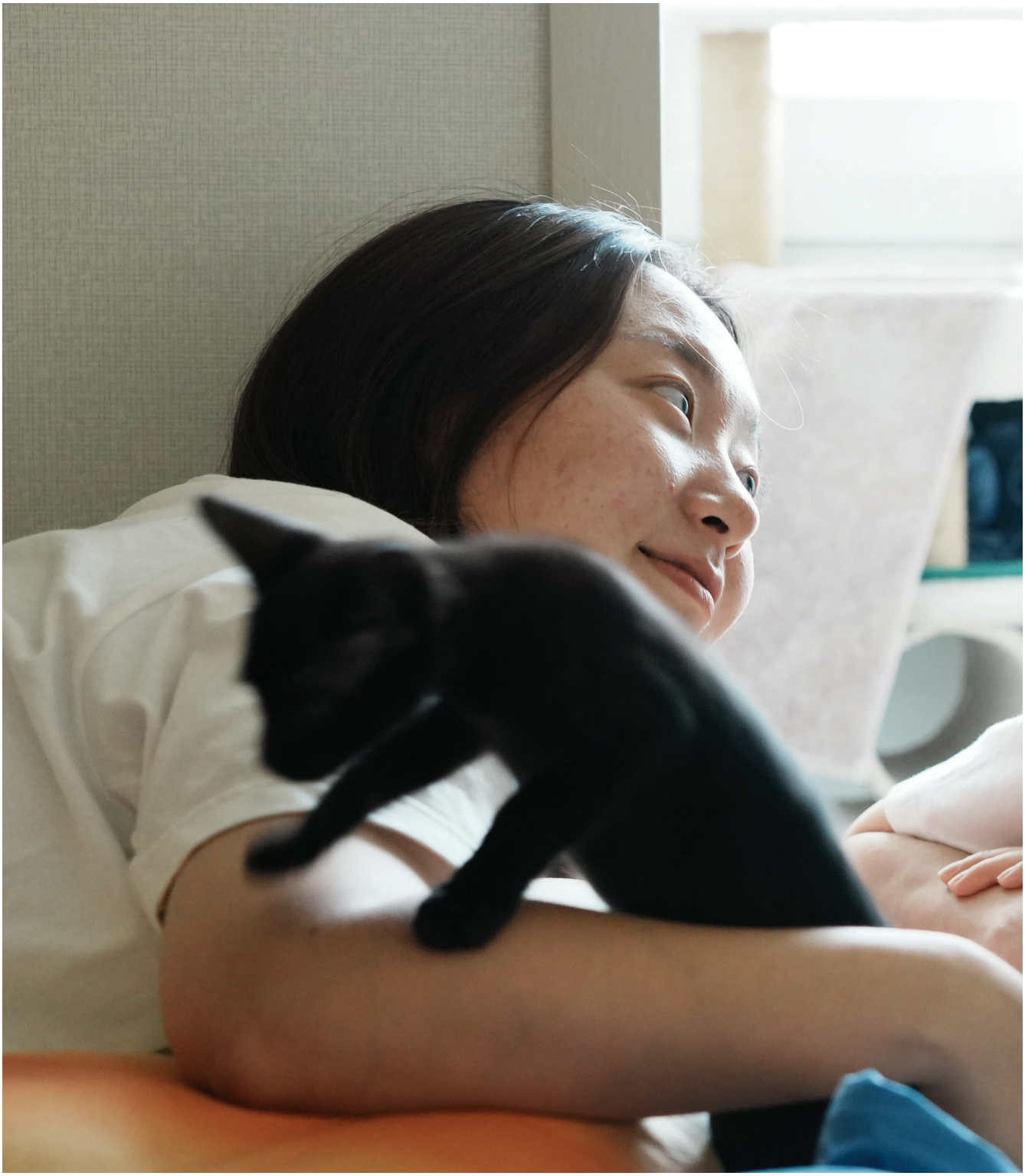
3. 신고사건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2026.03.31.

4. 불수리 사유 : 헌법제36조제1항 및 민법 제812조 제826조 등에 의하여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 혼인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조 [illegible]

[illegible]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이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illegible]있습니다.










DISP
SCAN
INFO
BSM
SETUP
CLOCK
PUSH AUDIO FILE/TUNE
5:54
PHONE
MP3 Play
FM
AM
CD
AUX
POWER PUSH VOLUME
FOLDER
SEEK TRACK
1
2
3
4
5
6
A/C




Maison Margiela
PARIS




JAM
Come In
WE'RE
OPEN


ESRECORD
제임스레코드



승연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과 가족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현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올해 만 30살이 됐습니다.

승연 축하드립니다.

진아 만으로 30년째 대구에 살고 있는 최진아고요. 내년에 결혼식을 앞둔 저의 짝꿍 와이프와 고양이 두 마리와 살고 있어요.

아현 저희가 처음 만난 건 대학생 때였어요. 각자 대학교 퀴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알게 되고 친해지다가 어느 날 서로 사는 동네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 출신이더라고요. 나 동대구 어디 산다, 나 어릴 때 그 동네 살았었는데 하면서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얘기하다가, 너 무슨 초 나왔어? 야 너 무슨 중학교 졸업했어? 이렇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까 같은 초등학교를 3년이나 같이 다녔고, 유치원도 같았더라고요. 아기 때 사진을 서로 뒤져보니까 같이 찍힌 사진도 나오고요. 어쨌든 친해진 건 대학생 때였고, 그렇게 한 5~6년 정도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마음이 생겨서, 저희는 그냥 3년 사귄 여자친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승연 모든 레즈비언의 로망 3년 사귄 여자친구를 달성하시다니…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갈 때 어땠어요?

진아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했어요. 엄청나게 어색하죠.

아현 잠깐은 어색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로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각자 전 연인들이 요구했던 어떤 이미지나 역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무의식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역할 놀이가 저희한테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진아 몇 달 연애를 해보니까, 저희 관계에서는 그런 걸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게 됐고요. 잠깐은 서로에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지내는 느낌도 있었는데, 같이 계속 지내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죠. 아, 우리는 꼭 그런 식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 관계는 아니구나 하고요. 그렇게 점점 더 편해지면서, 다시 연인으로서도 훨씬 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승연 역할 수행이라는 게 팸/부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팸/부치 문화는 레즈비언 문화 안에서의 하나의 놀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데이팅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 일정한 문법처럼 중요하게 작동하기도 하잖아요. 수행으로서든 외관으로서든요.

아현 네. 원래 얘는 부치 수행을 하면서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머리가 짧은, 전형적인 부치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허위 매물이었어요.

승연 나도 허위 매물인데 너무 반가워요.

솔 최근에 출연하신 MBC 방송에서 과거 사진 봤었어요.

아현 우리는 그때는 서로 취향이 아니었는데, 하도 붙어 다니니까 친구들이 사귀라고 했어요.

승연 친구분들이 진아님이 아현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현이를 만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다면서요.

진아 (옛날 사진을 보여줌)

승연 와, 진짜 잘 생겼다.

솔 완전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아현 그래, 얘도 인기 많은 걸 아니까 실제로 그런 인기 많은 사람처럼 하고 다닌 거예요. 일종의 자기 세일즈였던 거죠.

진아 인기 많은 것은 즐거웠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역할도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현이는 항상 단발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

게 되니까, 저는 연인 관계가 되면 내가 부치 수행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과 아현이의 스타일을 대강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현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을 보여주며) 저희 이 때 완전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승연 어색해 보여요.

아현 저는 사실 코어가 아저씨인데, 진아가 부치 여친 역할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역할 놀이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안에서 내가 맡아야 할 역할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했죠.

승연 그치. 전략 판단을 해야지.

아현 그래서 한 3~4개월 되게 헤매다가 자연스럽게 찾아갔죠.

승연 이때도 사실 진아님은 자신의 코어가 아줌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아 자각이 없는 상태였어요.

아현 얘는 그런 끼는 있었는데, 부치로 해야 잘 먹히니까 계속 스스로를 부치로 퍼포먼스를 한 거죠.

진아 맞아, 퍼포먼스를 한 거죠.

아현 그러니까 저는 얘를 만나고 나서 제가 아저씨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약간 프라이드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오히려 부치 패싱을 당했던 거죠. 부치랑 아저씨는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나는 부치도 아니고 팸도 아니야.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승연 그냥 임아현인데.

아현 나도 정체성 혼란을 많이 겪었지.

아현 얘도 진짜 심했어요. 아줌마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해서요.

승연 진아님은 본인의 코어가 아줌마인 걸 알고 있었나요?

아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주변에 친구들은 얘가 아줌마인걸 알았는데. 부치로써 훨씬 인기가 많으니까.

진아 그게 잘 어울리는데 어떡합니까?

승연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데. 지금 스타일도 엄청 멋있어요.

진아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는 좀 혼란을 겪었어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편해졌고,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사귄다는 사실도 더 이상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 전에는 그냥 제 짱친이랑 갑자기 사귀게 된 거니까, 저희 스스로도 너무 어색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살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너무너무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승연 두 분을 언론에서만 접하고 너무 궁금했는데, 아줌마와 아저씨라는 관계성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현 이게 근데 참, 이 업계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아현 대구 MBC 기자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승연 삭제하게 된다니까요, 이 재밌는 포인트를.

진아 재밌게 잘 말아주이소.

아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퀴어들은 이 맥락을 바로 이해하고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남성 역할, 여성 역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아저씨인데 어떡하라고.

진아 난 너무 아줌마인데.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또 너무 웃긴게. 우리 집 안에서도 역할이 딱 자연스럽게 나뉘었어요. 전기 같은 거, 뭐 꽂는 거 이런 건 다 쟤가 알아보고요. 전기 안 꽂는 거, 그러니까 다른 생활적인 건 또 제가 알아보는 식으로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

그건 우리 집 아저씨한테 물어봐. 나 잘 몰라” 이렇게 말하죠.

승연 아, 우리 집 아저씨라는 말이 너무 웃기다. 대명사로서.

진아 진짜로. 그건 우리 집 아저씨한테 물어봐. 근데 밥은 뭐 해줄까, 뭐 먹을래? 이러죠

아현 그건 우리 집 아줌마한테 물어봐 이러고. 저희 엄마도 너희 집 진아한테 고춧가루 필요한지 물어봐라, 이래요.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건 꽤나 갑작스러웠다. 연애 전부터 각자 독립과 동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이어졌다. 진아와 나가 같이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현의 어머니는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듯 아현과 함께 집을 보러 갔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진아는 2주 뒤 출가하겠다는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살림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 속에 이삿짐을 옮기는 것으로 무탈하게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건 부모님들의 태도였다. 이삿날 침대가 하나뿐인 것을 보고도, 혹은 연말에 둘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당연하게 물어보시는 일상 속에서도 굳이 둘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려 들지 않았다. 부모님들은 아현과 진아를 각자의 자녀만큼 자연스럽게 대했고, 그들 역시 각자의 가족 행사나 안부를 챙기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에 스며들었다. 상대의 부모님이 집에 들를 때면 함께 청소를 고민하고, 명절에는 서로의 이름을 빌려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 일상.

승연 근데 그게 사실 풍경 자체는, 한국에서 부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장면이잖아요.

진아 엄청 한국적이죠.

승연 근데 퀴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전복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입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현 그래서 마음이 좀 심란할 때가 있어요.

진아 네. 너무 편입이 잘 돼서 짜증 나는 거.

아현 저는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우리의 결혼이 엄청나게 오피셜한 가족 행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고, 엄마 아빠는 와서 자리해 주는 정도라고요. 근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엄마가 “그래도 오빠가 먼저 가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이걸 퀴어하게만 생각했구나, 너무 예외적인 일로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의 결혼이라는 게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되게 큰 마음과 무게를 갖는 일인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승연 저도 사실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에게 그냥 통보처럼 말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현 어차피 제 결혼이 부모님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도 하니까요.

승연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랑 대화가 잘 돼서 이걸 가족 행사로 같이 만들어간다고 하면, 부모님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될 수도 있고요.

아현 조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승연 그럴 것 같다 충분히.

아현 그러니까 저도 통보를 했죠.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결혼이라는 걸 뭘 어떻게 협의를 하겠어요? 생각했는데.

진아 협의를 하지, 헤테로 결혼은 철저하게 협의를 하지.

승연 나는 헤테로가 아니잖아.

아현 “나 진아랑 결혼하기로 했는데”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되게 서운해하셨어요. 그 마음을 저는 몰랐던 거죠.

진아 저는 철저하게 우리 언니보다 1년 뒤에 결혼해야 한다는 타임라인을 다 짜놨어요. 저도 언니가 있는데, 언니 역시 오래 만난 짝꿍이 있었고 결혼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언니 언제 결혼해?", "결혼식장 잡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식장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순간부터는 유교적으로 최소 6개월,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는 지나야 동생 결혼 순서가 온다고 생각해서, 제 결혼 타이밍도 그걸 기준으로 잡게 됐어요.

아현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진아 아무도 가족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저는 언니가 2026년 봄에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2027년 가을에 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잡게 됐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더 서두를 수도 있었고, 우리 일정대로 가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 사이에 저희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안정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2027년 가을을 목표로 예전부터 계속 설정해왔고요. 식장을 잡은 건 오늘이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승연 오늘 식장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소중한 날이네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결혼 로망,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꽤 전형적인 한국의 공장식 웨딩을 바라신다고요. 드레스도 두 분 다 입고요.

진아 저희는 웨딩홀에서 드레스 두 벌 입고, 혼주석도 꽉 차 있고, 하객도 많이 와서 같이 뷔페 먹고 인사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승연 어쩌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게 되셨어요?

진아 그냥 평범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남들 다 하는 것과 같은 결혼을 하고 싶었고, 너무 튀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언니보다 결혼을 유교적으로 텀을 두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같은 맥락이었고요.
이미 제가 퀴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에 벗어난 일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야 결혼으로 더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승연 전략이네요.

진아 네, 왜냐하면 동성과 결혼하는데 잔디밭에서 원피스 입고, 아니면 흰 티에 흰 바지 입고 결혼한다고 하면 주변 어른들은 그걸 결혼으로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결혼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누가 인정해준다고 해서 성립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나 결혼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 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현 저는 하와이만 가면 돼요.

승연 왜요?

아현 제가 파인애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승연 거기 돌 파인애플 농장 있잖아요.

아현 맞아요. 거기에 유명한 돌 파인애플이라는 농장이 있어요. 식민지 시기 플랜테이션의 아픈 역사긴 한데. 어쨌든 파인애플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가 있고, 또 게이 메리지 패키지 같은 것도 있어서 실제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진아 티피컬한 신혼여행이죠.

아현 그냥 저는 파인애플의 주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20대 초반부터 계속 좋아했는데, 여유롭고 스근하고, 어떤 휴양지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경상도 말로 "스근하다"는 그 느낌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와이나 파인애플을 보면 그 스근함이 떠올라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의 온도 같은 거죠. 파인애플이 선글라스 끼고 선베드에 누워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걸 상상하면 그냥 되게 행복

해요. 그래서 파인애플 굿즈도 좋아하고, 파인애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인스타 아이디도 파인애플이고. 그러니까 파인애플이 너무 좋고 그냥 하와이 여행만 가면 된다. 그것이 나의 어떤 로망. 가보지 못한 고향 같다.

진아 아현이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오로지 신혼여행지에 있는 거예요.

승연 어떻게 보면 결혼식에 대한 조율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진아님은 원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고, 아현님은 그것을 기꺼이 따라주시는 편이고요. 어쨌든 하와이만 가면 되니까. 두 분은 퀴어 가시화 운동을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현 저는 대구에서 청소년 때부터 대구 퀴어문화축제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어요. 그때부터 사실 대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 운동이라 하는 건 다 했던 사람이었고요. 원래 청소년 운동도 했었고, 제 주변에 있는, 눈앞의 문제들을 당사자로서 직접 운동으로 풀어가는 게 저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대구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운동이 되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 10년의 역사를 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였고요. 다만 진아가 아니었으면 이런 방식으로까지 더 나서서 확장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승연 진아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아 저는 20대 초반에 정체화를 하고 퀴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했어요. 다만 대학생 때까지는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당사자 활동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초반에는 어떤 행사에 가서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다른 단체 대표들은 다 올라가는데, 저는 여건상 대독으로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인터뷰를 요청받았을 때도 "모자이크 해주세요", "목소리도 익명 처리 해주세요", "닉네임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얼굴도 안 나오고 뒷모습만 나오거나 모자이크된 채로, 음성도 변조되고 이름도 익명 처리된 모습이 너무 '범죄자'나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 또는 불쌍한 이미지로 소비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숨겨서 나오는 방식이 싫어서 얼굴을 내놓기로 했어요. 막상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나 활동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인터넷에서 욕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만나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체감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집회에서 시민발언을 할 때도, 몇천 명 앞에서도 그냥 말하게 되고요. 언론 인터뷰도 얼굴을 드러내고 진행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여러 경험과 반응이 쌓이면서 서서히 노출에 대한 감각이 바뀌어 온 것 같아요.

승연 완전히 공감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영상 특성화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경험을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글을 쓰라고 하면 늘 제 이야기를 쓰고 싶으면서도, 제 스스로 퀴어라는 걸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도 했거든요. 청소년 시기는 주체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안전하지 않았고,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늘 두려움과 함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이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야금야금 나아갔어요. 한 번 드러내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다시 조금 더 나아가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나는 사진가 유승연이고, 퀴어 당사자로서 퀴어와 여성들을 기록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지점에 온 게 저는 정말 행복하고요. 이건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두렵지만 계속 발을 내딛으면서, "이렇게 하면 낙인찍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확인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험들이 쌓였고요. 그러면서 다음 발을 또 내딛고, 그렇게 계속 가시화가 진행돼 온 것 같아요.

아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품을 수 있는 세계나 시각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퀴어 당사자들이 "너네 대단하다", "멋있다", "용감하다", "얼굴 드러내고 활동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할 수 있어서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못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도 이해되고요. 다만 동시에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정말 안 무서웠을까?”, “난 정말 잃을 게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처음부터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아닌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그 사람들이 과거의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더 잘 걸어 나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승연 그 점이 뿌듯하고, 또 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용기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져요. 대구라는 지역에서 30년 동안 계속 살아오시고 활동도 이어오셨는데요, 이미 지역 안에서 오래 활동해온 주민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어떤 지점에서는 “이건 좀 특색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현 서울은 익명성의 도시잖아요. 사시면서도 느끼시죠? 번화가에 나가서 아는 사람을 불시에 마주칠까 걱정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홍대에 가도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실 텐데요. 저희는 시내에만 나와도 아는 사람을 마주치거든요. 아까도 주차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고요. 대구는 그런 도시예요. 일종의 “실명성의 도시”라고 할까요. 물론 아주 작은 읍 단위처럼 완전히 좁은 곳은 아니지만, 도시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꽤 알고 지내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진아 대구는 광역시고 도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30년을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 직장, 활동 공간, 그리고 다녔던 가게들까지 합치면 정말 수백, 수천 군데는 될 거예요. 먹어본 밥집만 해도 그만큼 될텐데. 그런데 그렇게 쌓인 관계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실명성’이 이제는 꼭 약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때만 해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여자친구랑 시내를 손잡고 걷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는 사람을 마주칠 게 뻔했고, 실제로 마주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클로짓 상태를 벗어나고 나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성소수자 커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변에 있는 단골 가게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승연 우와, 그런 관점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역이라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진아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를 편들어줄 사람이 꽤 많다는 감각이 있어요. 그런 게 오히려 안전으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걸 숨길 수도 없고, 숨으려고 하지도 않게 되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같은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요. 대구가 보수적인 지역으로 많이 이야기되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 거리가 완전히 단절된 구조는 아니거든요. 결국 다들 눈앞에 있는 사람이고, 두세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친구의 친구고, 결국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혐오나 공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에서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연결될수록 결국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이 되는 과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운동의 특별한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안동에서 녹색당 허승규 후보가 당선된 것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지역에서 소수 정당 활동가로 계속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그 당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거나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활동하고 부딪히고, 결국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요.

승연 그 분이 그 지역에서 줌바를 3년 동안 하셨대요.

진아 그러니까요. 그런 지점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과도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당선 소식이 저는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도 여기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먹히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는 잘 안 먹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폐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이 있는 거죠.

승연 공감이 돼요. 사실 서울처럼 익명성이 큰 도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혐오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친구가 되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텐데.

아현 아무리 대구를 욕해도, 우리는 대구에서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지역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요.

승연 대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아현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점.

진아 내가 계속 해서 살아왔던 곳.

아현 떠날 수 없어서 사랑하게 된건지, 사랑하게 돼서 떠나지 않는건지. 잘 모르겠고.

진아 질척질척한 사랑.

아현 그리고 대구라는 지역이,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타지인이나 외지인에 대한 구분과 배척이 꽤 강한 곳이에요. 외지인이 오면 "대구 사람 아니죠?" 이렇게 묻고, "서울에서 왔죠?" 이런 식으로 바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객이 오면 또 "대구 사람 아니죠?" 하고, 그러면 "아 놀러 왔어요" 하면 "맛있는 데 추천해 줄게요" 이렇게 반응이 나뉘고요. 결국 이곳은 소속된 사람과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꽤 명확하게 가르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천에서 10년 살다가 여기 와서 또 10년을 살아도, "그래서 너는 어디 사람이야?" 하면 여전히 인천 사람이라고 불리는 식으로, 쉽게 섞이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멜팅팟처럼 섞이기보다는 구분이 유지되는 도시죠. 그런데 동시에 대구는 중·대형 도시라서 주변 지역, 예를 들면 안동이나 상주 같은 곳에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또 각자의 출신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섞이기보다는, 계속 "어디 사람"으로 남아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처럼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완전히 로컬로서 축적된 자원이 생기잖아요. 그게 일종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사회적 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대구 사투리를 쓰고,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오래 살면서 좋은 공간과 사람들, 네트워크를 계속 발견해 온 경험들이 쌓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지역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결국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승연 오늘 대구에 처음 방문해 본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흥미롭네요. 익명성의 도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가 쌓이는 구조가 있다는 게 새롭게 느껴져요. 두분의 혼인 평등 소송 심문 기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현 4월 초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정확히는 소송이라기보다는 '불수리 불복 이의 신청'이라 '비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법원은 3심 구조로 판결이 내려지는데, 가정법원의 혼인신고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의 신청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4월 9일, 목요일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4월 13일 월요일에 바로 심문 기일이 잡혔어요. 이렇게 빠르게 기일이 잡히는 경우는 여러 케이스 중에서도 상당히 드문 편이라고 들었고요.

승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진아 케이스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난달에 심문 기일을 진행하신 분은 2024년에 불복 신청을 했고, 약 2년 만에 기일이 잡힌 사례였어요. 그게 부천지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최근 영남권에서 진행된 3건은 4월에 신청하자마자 6월에 연달아 심문 기일이 잡힌 상황이에요. 신청 시점 기준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일정이 잡힌 편이죠. 법원의 재량과 관

련된 거죠.

승연 이 지역 법원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네요.

진아 그쵸. 법원장의 재량과 성격이 있어서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대구가정법원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직접 법리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처럼도 읽히는 것 같아요. 24년에 시작된 수도권 11쌍 사건은 아예 심문 기일 없이 기각이나 각하로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판단이 이미 끝난 상태로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11건 중 9건은 기각또는 각하로 정리됐고, 2건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1건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다른 1건은 약 2년 만에 심문 기일이 잡힌 사례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6년에 영남권에서 3건을 신청했을 때는, 세 건 모두 두 달 안에 심문 기일이 잡혔어요. 저희는 4월 초에 심문 기일 날짜를 받았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가장 빨리 잡힌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우리 1등인가 보다" 하면서 정말 기뻤어요. 실제로 날짜가 뜬 건 저희가 가장 빨랐던 게 맞았고요. 그런데 이후에 부천 사건도 잡히고, 다른 영남권 사건들도 계속 이어서 잡히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건들이 저희보다 더 빠르게 심문기일이 진행되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잡힌 4건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마지막 일정이 된 셈이에요. 그래도 이런 '꼴찌'라면 오히려 너무 기쁜 꼴찌라서,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승연 기쁜 꼴찌라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심문 기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어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결혼을 원하는 레즈비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현 결혼을 하세요.

진아 하세요. 하시는데 …

승연 결혼을 하는 레즈비언 커플들도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두 분은 소송과 가시화 활동을 함께 병행하면서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아현 미친 거죠.

승연 결혼을 개 크게 하는 느낌.

진아 진짜 개 크게.

진아 양가 감정이 들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다들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천천히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들거든요. 지금 저희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막막하더라고요. 예식장 하나 잡는 것부터도 여러 번 거절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에 스드메나 다른 준비 과정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과정들이 저희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선례들이 쌓여야 점점 더 쉬워지고 보편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데는 다 해주던데요" 같은 말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고요. 서울은 이미 그런 흐름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종로 쪽에서는 반지 샵이나 예식장 등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커플링 후기나 퀴어 예식 후기들도 많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다들 조금씩이라도 같이 시작해서, 이 과정이 더 빨리 쌓이고 더 쉽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요. 다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웨딩 준비를 빨리빨리들 시작하셔서 식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승연 현상처럼 만들어 버리자.

진아 그런 마음이랑 동시에 저희가 먼저 해놓고 그냥 여러분은 천천히 하세요, 지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도 같이 있어요. 어제는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예식장 보러 다니고, 거절도 많이 당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너무 고생스럽다, 나중에 하지 왜 굳이 먼저 하려고 하냐, 선구자가 되지 말고 좀 뒤에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그 말을 들으면서도 동시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도 제발 누군가가 내 앞에 나서면 좋겠는데. 내 차례를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기다릴 수 없다면 내 뒤에 오는 누군가는 나보다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고. 그렇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근데 저희 재미있게 결혼 해볼 테니까, 소문도 많이 낼 테니까 많이들 결혼하셨으면 좋겠고.

승연 두분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내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 같아요.

진아 저희도 사실 완전히 최전선에 있는 건 아니고, 앞서서 결혼식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사례에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이나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저는 김규진 작가님의 책《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레즈비언 결혼식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현 저는 그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없어서, 내용도 많이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김규진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계급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결혼을 준비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급을 초월한 엽기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맞닿는 지점이 있는 거에요. 물론 어떤 지점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 엽기 인생의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경험들이 만들어낸 결들을 좀 같이 이해해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아 저도 예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픈리 레즈비언 커플로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를 보면서도 누군가 "쟤네는 복 받은 인생이다", "부모님 잘 만나서 가능한 거잖아" 이런 말들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퀴어 당사자들이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네는 하객 그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결혼식 하는 거지" 같은 말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현 그걸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다들 규진 작가님 욕하지 마, 이런 마음이에요.

승연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뜨거운 김규진 작가님이었냐.

아현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계급적인 맥락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앞에 튀어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낭중지추처럼 드러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든 갖다 붙여서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도 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 커밍아웃이 가능했지.

진아 네네, 우리 부모님 진보적이죠.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아현 근데 어쨌든 같은 엽기 인생의 배 안에서는 모두가 괴롭다.

진아 그래봤자 엽기 인생.

승연 우와, 이 얘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속이 좀 시원해요. 저한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퀴어 가시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운 좋네"라고 시니컬하게 생각했던 과거도 있었고요.

아현 근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규진 작가님이 하시는 말들이 되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딘가 남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멀게 느껴지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삶의 문제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다만 언젠가라도 조금 더 가까운 지점에서, 자기 자

신을 조금 내려놓고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생긴다면 “아,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좋겠어요.

진아 최근에 작가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기도 아무리 중산층이어도 결국 퀴어로서의 삶은 각자의 방식으로 ‘엽기 인생’일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퀴어의 삶의 사례 중에 이렇게 중산층 퀴어라는 다양성도 획득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시라.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퀴어 삶이 꼭 다 비극적이고, 차별받고, 가난하고, 예술적이고, 뭐 부모님과 연 끊고, 뭐 그래야 되나요? 저희는 부모님과 잘 지내고 가부장제에 기꺼이 편입되는 그런 퀴어의 삶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승연 저희 레스토랑 메뉴는 이겁니다.

진아 이거를 드시러 오셨으면 이거를 기대하셔야지. 저희는 이거 전문입니다.

승연 마치 저희는 김치찌개 전문인데, 왜 된장찌개는 안 나오냐고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요.

진아 우리는 김치찌개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김치찌개만 요구하시라. 그거는 마음껏 드릴 수 있다. 저희 가부장제 편입하는 레즈비언 부부예요. 그건 마음껏 드립니다.

승연 말아 드리겠습니다.

진아 마음껏 말아드립니다.

승연 김치찌개 전문 진아님, 아현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아현 저희는 지역에서 양가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일종의 ‘가문 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결혼 제도 안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거 보신 적 있느냐 보여드리겠다. 저희가.

진아 기꺼이.

아현 기꺼이 보시고 축하해 주셔라. 정말 수고롭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행복하게 살 테니까 축하해달라. 엄마 아빠한테 지금 이 결혼식을 어떻게 설명할지, 어디까지 모실지 이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거란 말이죠. “쟤네는 부모님이랑 잘 지내고 부모님한테 싸바싸바 하잖아.”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저희 기꺼이 싸바싸바하고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이 김치찌개 집, 대박나서 백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내내 우리는 퀴어로서의 삶을 관통하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끊임없이 웃음으로 변주했다. 퀴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삶을 '엽기 인생'이라 규정짓는 이 엽기적인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농담들은 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가뿐히 넘어서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생존 무기이자 공격 수단이다.

퀴어의 삶이 단 하나의 모양일 필요는 없다. 부모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지역 사회에 뿌리 내려 곁을 지키며, 제도의 틈새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메워가는 것. 이것은 진아와 아현이 선택한 당당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기꺼이 싸바싸바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수많은 문제와 장벽을 마주할 때마다, 기꺼이 두 사람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온 투쟁의 선언이다. 세상이 정한 '정상 가족'의 틈바구니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새로운 관계를 재해석해낸 진아와 아현의 행보는 현명하고도 따뜻하다.

이 뜨끈한 김치찌개 식탁은, 엽기적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는 이들이 모여 서로에게 건네는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위로의 장소가 될 것이다. 2027년 가을, 하와이의 파인애플 향기처럼 진아와 아현의 결혼이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스근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진아와 아현 2026.6.6)





따라가는 가족사진

진솔

문화기획자, <찾아가는 가족사진>
프로젝트 현장 기록 및 촬영 지원

새로움이 찾아오는 봄이었다. 나와 여자친구, 그리고 퀴어문화공간 오리집의 운영자 하나는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보다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서울 양천구 목2동 퀴어문화공간 오리집은 진짜 집이 아니지만, 레즈비언들이 밖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두는 공간이기도 했다.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오리집에서 모여있었고, 인스타에 올라온 승연의 <찾아가는 가족사진> 프로젝트 모집 글을 보았다. 나는 서슴없이 신청 했고, 승연은 그날 저녁 서슴없이 찾아왔다.

촬영이 시작되고 우리는 어색한 포즈를 취하는 대신 늘 하던 일을 했다. 토마토 박스를 리폼해 조명을 매달고, 주황빛 조명 아래서 타코를 먹고, 뜨개를 하는 모습이 하나 둘 담겼다. 너저분한 색연필과 종이조각조차 승연의 시선에서는 아름답게 놓인 조형물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이 공간에 존재하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이 사진에 온전히 담겨있었다. 이후 우리는 사진가와 작가, 기획자, 디자이너로서 농담같이 시작한 일을 제법 멋지게 해내며 계절을 지났다. 예전부터 남의 집에 가는 걸 좋아하는 나는 승연이 <찾아가는 가족사진> 프로젝트에 초대해 주었을 때 뛸 듯이 기뻤다. 남의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낯선 향이 나는 핸드워시와 뽀송한 수건, 구석에 벗어둔 옷가지와 가방, 깨끗이 치워두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생활의 흔적들,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포스터. 집에서만 볼 수 있는 물건은 낯선 친숙함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초대받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경들을 잔뜩 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짜릿함을 맛봤다.

승연을 따라 여섯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레즈비언 커플이기도 했고, 대안가족이기도 했으며, 동물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도 했다. 승연은 촬영이 어색한 가족들에게 “냐-하” 라고 소리를 내보라고 하거나, 카메라를 절대 보지 않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시선을 끌기 위해 북치박치 비트박스를 했다.

카메라를 들지 않는 나는 집 안 곳곳을 옮겨다니며 촬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동안 책장에서 우리집에도 있는 책을 발견하고, 친구들이 올 때만 사용한다는 안마의자에 앉아 보고, 처음 보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책상 위 캐릭터 피규어를 구경하고, 고양이 장난감을 흔들거나 강아지 가족을 무릎에 앉혔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들이 쌓아온 사랑의 흔적을 발견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랑은 집 안에서 자연스레 온기로 다가왔다. 제도적으로 엮여 있지 않고 법적으로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가족이라 불렀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끊기면 관계 역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보살피고 신경을 쓰며 살아갔다.

여러 가족을 찾아다니며 내가 본 것은 특별하게 엄청난 사랑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장면들이었다. 냉장고 앞에 빼곡히 붙여 있는 편지와 인생네컷, 행복한 일을 하나씩 적어 담아두는 행복저금통, 동물 가족과 춤을 추고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들.

<찾아가는 가족사진> 프로젝트에서 만난 가족의 정의는 넓고 느슨하게 확장되고 있었다. 사랑의 증거는 함께 공기를 머금는 순간에 존재했고, 사진가 유승연은 그 찰나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가족의 모습을 더 자주 상상하게 되었다. 어떤 모습이어야 가족이 될 수 있는지보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서로를 돌보고, 믿고,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가족의 형태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우리가 만난 가족들은 모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랑과 돌봄이 또렷이 존재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만들고, 또 그 가족이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바라게 되었다. <찾아가는 가족사진>은 그런 가족들이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음을 내게 보여주었다.

Sol Jin

진솔

사람들과 부대끼며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연결을 기록하는 문화기획자.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성, 그리고 유머를 잊지 않는 글을 쓰고 있다.

@sol_keeps_going

solwithsol@gmail.com





가족사진 남기기

김하나

작가, 디자이너. <찾아가는 가족사진> 프로젝트 디자인 총괄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지만 가족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중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무엇인지 증빙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라는 사실을 공표했는지,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있겠지만,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사진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들의 혼인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법조인들은 이들이 찍어둔 정다운 사진을 보고 피부양자 자격을 주기도 하고, 유산을 얼마나 상속할지 결정하기도 한다. 도장 한 번 찍으면 완성되는 이성애 부부도 사실혼에 관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진가 유승연이 <찾아가는 가족사진>을 통해 방문한 가족들은 이 "도장 한번"으로 만드는 관계에 서류를 낼 기회조차 가진 적 없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는 재생산을 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족 사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는 고유한 이름이 없다. 모두 칫솔을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칫솔마다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 식이다. 사람이 살아가며 맺는 관계에는 친구, 애인, 동료 등 다양한 이름이 있겠지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어떠한 관계"인지 구체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정의된다.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얼굴을 보는가. 얼마나 가까이에 두고 앉거나 설 수 있는가. 함께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나는 당신을 무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삶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계는 인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지표로 정의되는데,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그것을 써 넣을 때 "남편이기는 하지만 잠자리는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봐요", "동거인일 뿐인 친구이지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요"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의 정황이 담기지는 않는 것이다. 관계라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장면들이 서류라는 비좁고 작은 틀에 꼭 알맞게 들어갈 일은 희박하다. 그 가족이 어떤 성원으로 구성되든 마찬가지다.

가족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에 이름 없는 사물들이 등장한다. 세면대에 사이좋게 놓인 칫솔, 두 명이 사는 집에 하나 놓인 침대, 사용하는 사람의 손길을 따라 길들여진 수많은 물건들. 그 사물에는 고유한 이름이 없는 대신, 사용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준다. <찾아가는 가족사진>은 카메라라는 사물로, 사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눈 앞에 놓인 관계의 한 순간을 잡아둔다. 그리고 보여준다. 그리고 묻는다. 이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가족이 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제도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면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가족은 성인 남녀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테니스장에서 만난 고양이, 여중 동창, 대학 동기, 데이팅 앱으로 만난 동성 애인과 가족을 만든다. "보여준다"는 말이 함의하는 것은 이와 같다. 우리는 이 사진들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 한 장의 사진이 포착해둔 이 관계의 정황은 무엇인가. 인간이 고등 동물이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루고, 자신의 취약함을 미지의 타인과 협상하면서 삶을 유지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이 사진집에 실린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는 말이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다. 관계라는 입체의 한 순간, 빛을 현상한 표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관계의 정황이 가르키는 관계에도 반박의 여지가 없다. 이들은 가족이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것 뿐이다.

Hana Kim

김하나

서울시 양천구에서 퀴어문화공간 오리집을 운영한다. 안전한 감각을 나누는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기쁨을 나눈다. 가끔 글을 쓰고 자주 산책한다.

@orizip

orizip.home@gmail.com



찾아가는 가족사진

우리집에 머문마음

ⓒ유승연, 2026

초판 1쇄 발행 2026년 7월 8일

지은이 유승연
발행인 김하나
사진 촬영 유승연
현장 기록 및 녹취 진솔
디자인 김하나
후원 다음세대재단
전자메일 unicpicnic@naver.com

펴낸곳 오리집
출판등록 2022년 3월 8일 제 2022-000017호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29 302호
ISBN 979-11-978867-8-2